



6

1979

문학예술출판사

#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79. 6호

(루게 380)



## ◆◆◆◆◆◆◆◆ 차 례 ◆◆◆◆◆◆◆◆

나의 조국 .....	4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 .....	6
조국 .....	7
영원한 화불 (외 1 편) .....	7
귀틀집 .....	8
집 .....	9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뜨거운 흙모와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노래 .....	11
혁명의 성산 백두산은 천하의 명승 .....	15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송가.....	18
충성의 노래, 심장의 노래 .....	19
새 령마루 .....	21
아름다운 모습 .....	28

설봉의 이야기 .....	36
봄은 한껏 짙어가고 .....	40
들에도 수를 놓아간다오 .....	41
온 마을의 이름으로! .....	42
아, 《만경봉》 호 .....	44
가장 귀중한것 .....	45
다듬은말 .....	56
태양의 품 .....	57
한가정에서 .....	64
조국땅에 배당은 이른새벽에 (외 1 편) .....	73
내 눈에는 눈물이 흐른다 .....	74
조국에 첫 인사 드리며 .....	75
내 통일의 그날에 상쇠를 잡겠노라 .....	76
따스한 봄날에 .....	77
들에서 만난 사람 .....	79

# 나의 조국

김상오

알지 못해라 언제부터  
나의 가슴에 깃들었는지  
아마도 그것은 나의 첫삶과 함께  
이미 조용히 자리잡은것이리

언제나 나의 심장에 가득차있어  
기쁨과 아픔  
그 모든 운명을 함께 사는것

조국이여!  
너는 무엇이기에  
가만히 네 이름 부르면  
가슴은 터질듯 궁지로 부풀고  
눈굽은 찢어터져 떨어뜨리는것이냐

어찌하여, 때로 이국의 거리를 거닐다가도  
문득 샷구치는 그리움에  
마음은 한달음에 달려와  
너를 안는것이냐

조국은  
고향마을 정든 집이라더라  
동구밖 오리나무숲  
그 정겨운 설레임  
새벽녘 들가에 피는  
너인들의 웃음소리  
송아지떼 풀을 뜯는 언덕을 넘어  
지줄대며 흐르는 여울물소리

조국은  
그리운 얼굴들이라더라

다심하신 고향 어머니  
모래불에 덩굴던 어릴적동무  
물결치는 이랑속에 벼단을 안고  
땀을 씻는 처녀의 그윽한 눈길

지난날 네 그리 가난하고 억눌려  
슬픔과 고통만을 줄 때에도  
너의 운명으로 내 가슴이 아팠고  
살길 찾아 너를 떠나면서도  
눈물속에 돌아보고 또 돌아보았거니

조국이여, 너는 무엇이기에  
저 눈덮인 이국의 광야  
비내리는 타향의 부두에 서면  
두고온 네 하늘이 그리도 푸르려  
살아서 너를 떠나간 이들  
죽어서도 돌아오길 소원했더냐

한번 너를 잃으면  
네게로 돌아가는 길 그리도 멀어  
피로써 눈보라 만리길을 헤쳐야 했고  
죽음과 함께 불바다를 건너야 했거니

조국이여, 진정 너는 무엇이기에  
너의 한치 땅을 위해  
애어린 청춘들 웃으며 꽃처럼 졌고  
쓰러지면서도 못잊어  
두팔가득 너를 그리안고 갔더냐

한줌 흙속에  
너를 싸안고 간 투사들도 있었더라

한떨기 진달래꽃향기에  
눈감고  
너의 모습 그려본 너대원도 있었더라  
아마도 조국은 어머니...

그렇다, 조국은  
더없이 신성하고 숭엄한 그 무엇  
위대하신 수령님 한생을 바치시는  
겨레의 삶이며 그 무궁한 미래  
죽어서도 안기여사는 영원한 품

그것은 그대를 바라보는 깊은 눈동자  
맑은 거울앞에처럼  
부끄러움 없이 그앞에 서기 쉽지 않으리  
오직 그의 영광속에 그대의 삶이 있고  
그를 저버림은 곧 그대의 죽음인  
조국이란 그러한것

뜨거운 심장 없이 안을수 없고  
진실한 사랑 없이 부를수 없는  
위대하고 신성한 이름...  
조국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라  
조국에 그대의 심장을 주기전에는

오, 조국이며 조국이며  
너는 손이 닳도록  
쓰다듬고싶은 우리의 땅  
바라보아도 바라보아도 더 바라보고싶은  
우리의 푸른 하늘

조국이며

그때문이 아니냐  
일을 해도 일을 해도 더하고싶어  
하루를 십년으로 살고싶은 이 갈망은  
지혜와 힘과 뜨거운 열정을  
있는껏 다 쏟아바치며  
바치는것이 기쁨인 이 아름다운 삶은

가는곳마다 들끓는 생활과  
끊임없이 탄생하는 환희의 노래  
강토를 굽이치는 철의 흐름우에  
소용돌이치는 열풍을 안고

조국이며, 너는  
세기의 하늘높이 나래쳐오르는  
세찬 퍼덕임  
그 아득한 높이의 빛발  
찬란한 우리의 미래

그 미래를 바라보며  
온갖 시름잇은 얼굴들이  
로동의 기쁨안고 돌아오는 락원의 거리  
무수한 배움의 창문을 비쳐드는 해살과  
보육원들이 지켜선 애기들의 고요한 숨결...

그렇다, 조국은  
수령님 찾아주신 우리의 삶  
수령님 안겨주신 우리의 긍지  
영원한 영원한 그이의 품

그 품이여라!  
조국이며 나의 조국이며

#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

박희구

우러르면  
백두령봉에 오른듯  
승엄한 정적이 흐르고  
귀기울이면  
불어오는 바람도  
기폭을 쓰다듬으며 숨죽인듯...

저 붉은 기폭에  
더운 입술 대이고  
충성을 맹세한 투사들의 숨결  
위대한 수령님 따라  
오직 수령님을 옹위하여 나아가는  
심장의 나팔소리, 퇴성치는 돌격의 함성  
무거운 정적을 깨치며 만리창공에 터진다

가는 앞길에 눈보라 천만리라도  
기어이 조국땅에 가닿으리라  
그처럼 그리던 품을 두고  
밀영의 하늘 향해  
피어나던 그 미소가  
해빛에 어려  
기폭의 주름주름 번뜩이며 여울친다

불길처럼 뜨겁게  
눈앞을 스치더니  
하늘가득 노을을 펼치며  
장엄히 나뭇기는 기발이여

수령님의 위업 누리에 떨치며  
투사들의 충성 하늘땅에 새기며  
광휘로이 휘날리는 기폭,  
저 세찬 날음소리에  
따라서는 천만심장들 하나로 뛰고  
나아가는 천만발걸음 하나로 울리어라

아, 붉은 기발 추켜든  
저 투사들의 선창에 이어

혁명가요 드높이 나아가는 조국이여

허리엔 총  
손엔 마치를 든  
저 투사의 얼굴에 이글거리는  
병기창의 화광이  
무성한 철탑의 숲우에  
쇠물빛 노을로 피어오르고

고난의 행군길에  
손에서 손으로  
뜨거이 옮겨지는  
한흙의 미시가루  
금나락의 물결우에  
만풍년의 노래로 흐르고

너전사의 배낭뒤에  
조국의 글을 써붙이고  
눈길 못떼는 저 어린대원의  
글 읽는 소리  
저렇듯 햇빛 밝은 창문들에  
량량한 글소리로 울려 퍼지나니

위대한 수령님 진두에 모시고  
붉은 기발 따라 나아가는  
주체조선의 장엄한 흐름이여  
그 어떤 폭풍도 뚫고나아갈  
거센 흐름우에 나래치는  
영광과 위훈의 70년대여

이렇게 흘러가고 또 이어져 흘러갈  
빛나는 모든 세대들의 그 앞장에 높이 솟은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  
혁명의 기치, 충성의 기치는  
30년대의 영원한 모습과 기상으로  
불타며 빛발치며 휘날리리라!

# 조국

김재윤

눈길 땔수 없구나-  
백두밀영  
사령부의 귀틀벽에 걸려있는  
한장 조국의 지도여

혈전의 포연에 보풀이 일고  
사령부의 등잔불빛이 어리던  
너를 어찌  
종이우의 지도라고만 바라보라  
수난의 날  
너는 장군님께서 안고 떠나신  
나의 조국!

땅은 빼앗겨  
침략의 피자옥은 강토를 짓이겨갔어도  
그 무엇으로써도 빼앗을수 없는  
너는 나의 조국

여기에-  
우리의 비길데 없이 아름다운  
조선의 하늘이 비껴있었고  
수려한 조선의 금강이 머리 들고있었다  
살진 강토를 적시며 흘러내리는  
이 땅의 맑고 청신한 강물이 굽이쳐흘러갔다

아침이면  
잠깁 마을마다에서  
장쾌히 새벽닭이 댕치며 울었고  
밤이면  
둥글어 꿈같은  
조선의 보름달이 솟아 지지 않았다

여기에 이천만 겨레  
우리모두의 운명이 있었고  
흘러온 반만년  
조선의 유구한 력사가 숨쉬고있었기에  
여기서 장군님께서 잠 못 이루시며  
밀림의 긴긴 밤을 지새우셨다

한가닥 불빛도 켜세라  
저 등잔불 높이 드시고  
어둠에 잠긴 강토를 비쳐가시였다  
조국해방의 련명을 펼쳐가셨다

가장 쓰린 모멸과 수난의  
피눈물이 흘러간 땅우에  
가장 존엄있고 빛나는  
인민의 락원을 안아일으키시기 위해  
불빛은 꺼질줄 몰랐다  
조국의 지도를 바라보시며 잠 못 이루시던  
그날의 장군님의 영상을 우러르니  
오, 절로 뜨거웁은 눈시울 적시여와라

백두밀영  
사령부귀틀벽에 걸려있는  
한장 조국의 지도여  
너는 수난의 날  
장군님 품에 안겨있었던  
나의 조국!  
나의 운명!  
우리모두의 삶!

그 빛발 누리를 비쳐가는  
위대한 조선의 오늘이었어라!

## 영원한 화불 외 1 편

림종근

잎푸른 황철나무도  
그날을 못잊어 설레이고  
가림천 맑은 물도  
그날을 노래하며 굽이치는가

뜨거워지는 생각속에  
군복자락 여미고서니  
그날의 그 화불  
하늘가에 솟구쳐오르누나

어둠이 녹아내리는  
밤하늘을 태우며  
위대한 장군님 높이 올리신  
보천보의 화불이어  
조선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온 세상에 선포한  
력사의 선언이어

백두산의 장군별이 비쳐오던 밤  
야학방의 추녀밑에 모여앉아  
장군님 이야기로 잠 못들던 사람들  
위대한 영상을 우러러  
두볼에 줄줄이 흘러내리던 감격의 눈물  
이 병사의 가슴에도 흘러 고이누나

아, 조국땅에 진군하신  
위대한 장군님  
저 하늘가에 높이 추켜드신  
혁명의 화불이어

쓰러졌던 인민들을  
일으켜세우고  
꺼져가던 민족의 숨결을 이어주며  
누리를 물들이던  
혁명의 화불이어

진정 살아있는

조선의 정신  
불굴의 그 신념이 어려있어  
세차게 타오르며  
꺼질줄 모르는 그 불길!

진정 해방의 노을이 타오르던  
그 화불엔  
행복의 봄빛넘치는 락원의 강산에  
위대한 장군님 천만년 높이 모시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갈  
조국과 민족의 희망이 비껴있었나니

아, 내려앉았던 조선의 하늘을  
높이높이 들어올리며  
밤하늘에 환히 타오르던 화불  
그것은 폭풍속에서도 꺼질줄 모르는  
조선의 영원한 정신!

그 빛발 따라  
비껴간  
백두의 하늘아래  
오늘은 주체조국이 솟아있어라

행복의 노래  
천리에 넘쳐  
그 화불이 더욱 찬란한  
해와 별 아름다운 조선이 솟았어라

## 귀틀집

집은 어디서나 보이지 않았다  
울창한 밀림속의 통나무귀틀집  
낮은 처마 작은 띄창  
백두의 넓은 광야를 트랙으로 펼친  
수수하고 평범한 사령부귀틀집

밀림속에 정다운  
위대한 장군님 계시는 혁명의 사령부  
송진내 향긋한 책상우엔  
산 넘어 구름 넘어 뻗어간 조국진군로  
벽에는 찾아야 할 삼천리-조국의 지도

눈덮인 포평나루가에서  
위대한 장군님 불러보신  
피구름에 잠겨 보이지 않던 조국

정녕 한해의 집으로 일어서고 일어섰다  
행군의 뒤 타오르는 우등불두리에  
격전의 뒤 만세소리 높은 숲속에

언제나 넓지 않은 방안에 차넘치던  
원췌를 쳐갈긴 승리의 소식  
삼천만의 힘이였고 기쁨이였다  
언제나 작은 띄창으로 흘러나오던 그 불빛  
조국해방의 아침노을로 피어났다

아, 비바람 눈보라 모진 폭풍속에서도  
긴긴 나날 변함없이 서있던 혁명의 집  
조선의 새봄이 시작된 사령부 귀틀집  
마침내는 온 세상에 환연히 빛나는  
사회주의조국으로 일어섰도다!



## 집

리일복

어느 일요일 아침, 중학교 다니는 큰애와 인민학교 다니는 둘째애가 동시에 내 앞에 불쑥 종이장을 하나씩 내놓는 것이었다. 미처 무엇인지 가려보기도 전에 서로 제것부터 봐달라고 승벽을 부리는 애들을 겨우 진정시키고 두장의 종이를 한꺼번에 들여다보았다.

큰애의것은 동요를 지은 것이었고 작은애의것은 그림을 그린 것이었다. 그런데 제목은 똑같이 《집》이었다. 들어보니 학교적으로 그 하나의 제목을 가지고 글짓기와 그림그리기 경연을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애들은 자기들의 《창작품》들을 제출하기 전에 먼저 아버지의 의견을 듣자는 것이었다.

나는 두 《창작품》을 차례차례로 꼼꼼히 따져가며 들여다보고 또 보았다. 큰애의 동요는 우리 집을 노래한 것이었고 작은애의 그림은 학생소년궁전을 그린 것이었다.

물론 내용과 형식은 달랐으나 우리의 행복한 생활을 담은 그 마음들은 같았다. 벌써 이 애들이 이처럼 놀라웁게 자랐는가 할 정도로 솜씨들이 괜찮았다.

이때 문득 두 오빠의것만 열심히 보아주는 아버지를 두고 시샘이 났는지 인민학교 2학년 다니는 딸애가 학습장을 펼쳐 내 눈앞에 들여밀었다.

《이것, 틀리지 않나요?》

하느수없이 나는 그 애의 학습장을 들여다보았다. 지정된 단어를 끼워넣고 짧은 문장을 만들데 대한 숙제였다.

《겨울이 돼도 귀틀집은 춥지 않대요.》

내가 잘됐다는식으로 고개를 끄떡이지자 딸애는 스스로 자랑에 겨워 바람벽에 높이 걸려있는 액틀속의 그림을 가리켰다.

《저런 집이 귀틀집이지?》

그러자 우리모두의 시선은 일제히 그가 가리킨 액틀로 향해졌다.

그렇다. 그것은 귀틀집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보통집이 아니었다.

아름드리원시림이 우거진 백두산밀림, 나무가지마다 부러질듯 안고 선 흰눈, 봄을 기다리는듯 눈속

에서 봉긋이 꽃눈을 내밀고 살랑대는 진달래가지들, 그 모든 자연을 한품에 거느린듯 의젓이 귀틀집이 서있다.

백두산밀영이다.

나는 숭엄한 마음으로 백두밀영을 우러러보며 애들에게 그 밀영에 깃든 이 나라의 위대한 역사를 들려주었다.

《세상에는 여러가지 집이 있다. 철우가 동요로 노래한것처럼 사람들이 사는 이런 아빠트들도 있고, 철영이가 그린것 같은 큰 집들도 있고 또 정인이가 글짓기 한것 같은 귀틀집도 있다.》

아버지 **김일성**원수님의 해빛아래 행복한 사회주의 우리 나라엔 정말 날마다 기쁨과 웃음이 꽃처럼 피어나는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집들이 많고많단다.

그런데 너희들은 꼭 알아야 한다. 우리의 이 모든 행복의 집, 행복의 락원이 어떻게 일어서게 되었으며 어떤 집으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나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아니 내 마음은 뜨거운 흥분을 안고 아이들의 마음과 함께 훨훨 내려쳐 준엄한 그 시절의 백두밀영으로 달려가고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혁명선렬들의 영웅적투쟁을 본받아야 하며 그들의 투쟁정신을 계승발전시켜야 합니다.》**

얼음판우에 떨어진 씨앗처럼 뿌리내릴곳 없고기를 펼수 없던 우리 민족, 피바다의 광풍이 사납게 회오리치고 노예의 쇠사슬이 바위처럼 무겁게 발목을 얹어매던 일제통치하의 그 준엄한 시절, 낡아놓고도 안아줄 품이 없어 수많은 아들딸들을 류량의 한숨속에 이역으로 떠나보내던 이 땅의 원한이 하늘땅에 사무쳤던 그 어둡던 시절-

오직 한점 민족의 운명을 안고 타오른 꺼질줄 모르는 불을 안고 숨신 집이 있었나니, 그것은 바로 위대한 혁명의 태양 **김일성**원수님을 모신 백두산밀영, 혁명의 사령부였다.

수수한 보통 귀틀집이었다. 백두산원시림을 찍어

서 벽이며 지붕을 마련한 크지 않은 집이었다. 그러나 이 지붕아래 굴하지 않은 민족의 넓이 숨쉬고있었고 기어이 되찾아야 할 조국의 기상이 맥박치고 있었다.

백색테로가 눈보라처럼 온 세상에 휘몰아치고 우리 민족뿐아니라 인류가 파초의 회오리바람속에 난 파선마냥 길을 잃고 헤맬 때, 여기 백두산밑 수수한 귀틀집에서 민족을 구원할 주체의 광휘로운 해살이 조국땅우에 빛발쳐갔다.

깊은 눈과 우거진 밀림속에서 밀영은 세상이 잘 모르는것 같았으나 하늘가에서 서기뿔는 백두산을 주추돌로 삼아 높이 솟아있는 백두밀영은 조선혁명을 제길로 이끄는 위대한 령도자를 모신 혁명의 집이었다.

밀림의 년륜과 함께 밀영의 년륜도 영광의 력사속에 새겨지고 새겨졌다. 얼마나 세찬 비바람이, 눈보라가 스쳐지났으랴.

여기서 미래의 조국이 싹텔고 자랐다. 여기서 민족의 행복이 시작되었고 무르익기 시작했다.

여기서 영원한 조선의 미래가 자랐다. 2월의 눈보라는 밀림에 세쳤으나 꽃피는 조선의 영원한 봄이 움텔나니 밀영은 우리 민족의 머리우에 따사론 봄별을 뿌려준 공산주의봄의 고향집이었다!

《나는 시간가는줄 모르고 아이들에게 백두밀영에 깃든 숭엄한 혁명의 사적을 이야기해주고 또 이야기해주었다.

《…구름이 창가에 걸린 학교에서 너희들이 행복을 누릴 때, 온수온돌, 텔레비존 등 불편한것 없고 모자라는것 없는 이런 훌륭한 집에서 무럭무럭 자랄 때 너희들은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한다.

너희들이 태어나기도 펴 전에 너희들의 오늘의 행복을 안아키운 그 혁명의 집을, 오늘의 이 모든 화려한 집들을 안아키운 백두산기슭의 그 귀틀집을...》

이 말은 아이들에게 한 말인 동시에 내자신에게 한 말이기도 했다.

화려한 건물들, 온갖 설비가 다 갖추어진 기관들과 주택들, 나날이 더욱 화려하게 더욱 웅장하게 이 땅에 솟고솟을 그 수많은 집들을 우리 어찌 무심히 바라볼수 있으랴!

우리의 집들이 좋아지고 높아질수록 우리는 더욱 백두밀영을 높이 우러러보며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충성을 바쳐야 할것이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다. 아직 날도 밝기전 어둑새벽인데 아이들이 내 침대에 덤벼들어 혼드는 바람에 잠을 깬다.

《아버지! 이거!》

세 아이가 한꺼번에 종이장을 내대는 바람에 나는 어리벉벉해서 일어나 앉았다. 누구것을 먼저 받고 누구것을 후에 받겠는가.

하는수없이 제일 어린 아이로부터 올려보기로 작정하고 먼저 정인이의 학습장을 받아보았다.

거기엔 이런 문장이 써여있었다.

《백두산밀영은 귀틀집입니다.》

그옆에 교원의 붉은연필이 10점을 매겨놓았었다. 나는 그 애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그다음 철영이의 그림을 들여다보았다.

거기엔 색칠까지 끝게 한 백두밀영이 그려져있었다. 물론 우리 집 바람벽 액틀속의 그 백두밀영을 보고 그린것 같았다. 그 그림 아래에도 10점이라고 새겨져있었다.

《잘 그렸다!》

다음으로 철우의 동요를 읽었다.

《...세상엔 집들이 많고많아도 백두산밀영이 제일 좋아요...》

물론 그 밑에도 10점이라는 빨간 글자가 새겨있었다.

《그렇듯하게 썼는데!》

나는 진실로 감격에 넘쳐 그들을 칭찬했다. 그 칭찬은 글을 정말로 잘 지었다던가 그림을 잘 그렸는가 아니었다.

아이들이 글을 쓰면 얼마나 잘 쓰고 그림을 그린다면 얼마나 잘 그렸겠는가.

문제는 잘 쓰고 잘 그린데 있는게 아니라 무엇을 썼으며 무엇을 그렸는가 하는 그 정신에 있는것이 다.

백두밀영의 사적을 대를 이어 심장에 새기고 길이 전하려는 어린 가슴들에 끓는 그 정신이야말로 진정 감동없이는 볼수 없는것이 아니겠는가!

때마침 창문으로 비쳐든 아침해빛은 벽에 걸린 액틀속의 백두밀영을 밝게 비쳐주고있었다.

백두밀영의 해돋이를 보는것 같은 숭엄한 생각에 잠겨 나는 아이들의 손목을 잡고 경건히 일어섰다.

#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뜨거운 흙모와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노래

-서정시 《나의 조국》에 대하여-

리수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애국심은 그 어떠한 추상적인 개념인것이 아니라 자기 조국의 강토와 력사와 문화에 대한 끝없는 사랑이며 그것은 또한 자기 고향과 고향사람들에 대한 애착심, 자기의 부모처자에 대한 애정에서도 표현되는것입니다. 애국심은 인간의 감정에서 구체적으로 살고있으며 구체적으로 그 표현을 보게 됩니다.》

서정시 《나의 조국》(김상오 씀)은 사회주의 우리 조국에 대한 숭고한 사랑을 노래하면서 사람들을 참신한 생활정서와 깊은 사색의 세계에 이끌어들여 커다란 감동을 주며 오래도록 생각하게 하고 두고두고 읽게 하는 좋은 작품이다.

이 한편의 시가 오늘 수많은 대중들의 심장을 울려잡고있는것은 무엇때문인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조국이란 무엇이며 조국을 위하여 참답게 산다는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우리 시대 사람들앞에 나선 중요하고 의의있는 문제를 내세우고 그것을 깊이있게 노래하면서 사회주의 우리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이 영광스러운 조국을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흙모와 충성의 열정을 뜨겁게 펼쳐주고있기때문이다.

시에는 이 땅에서 생을 누리는 공민이라면 언제이건 마주쳤을 조국에 대한 사색의 세계가 펼쳐져있다.

첫삶과 더불어 자리잡았으며 언제나 심장에 가득차있어 기쁨도 아픔도 함께 사는 조국에 대한 생각...

조국이여!  
너는 무엇이기에  
가만히 네 이름 부르면  
가슴은 터질듯 궁지로 부풀고  
눈굽은 찢어질 듯이 젖어드는것이냐

서정적주인공은 넘치는 자랑과 감격 없이는 외울수 없는 조국을 두고 자신의 온 삶을 기울여 해답을 찾아나간다.

조국이라 부를 때 서정적주인공의 눈앞에 먼저 다가서는것은 정든 고향 산천과 마을사람들의 모습이며 그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의 감정이다.

시인은 조국을 잃고 헤매이던 가슴아픈 지난날을 회고하면서 겨레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으로 하여 잊을래야 잊을길 없던 조국에 대하여 생각을 넓혀간다.

그러나 그리움과 애착의 이 혈연적인 감정, 어찌이것으로 조국에 대하여 다 표현할수 있으랴.

서정적주인공은 나아가 조국이란 겨레의 삶을 위하여 가장 소중한것, 인민의 운명과 하나로 잇닿은 귀중한 존재임을 생각한다.

잃어진 조국을 찾기 위하여 우리 인민이 바쳐야 했던 그 시련의 나날들은 그것을 너무나도 뚜렷이 말하여준다.

파연 조국이란 가장 정답고 그리움고 사랑스러우며 또한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가 아니겠는가.

하기에 시는 조국을 어머니와도 같이 겨레의 심장속 가장 깊은곳에 자리잡은 살뜰한것으로 느끼며 노래한다.

이 나라의 참된 아들딸들이 한줌의 흙, 한떨기의 꽃속에서 느끼며 다짐하던 그 숭고하고 아름다운 정신세계속에 바로 조국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흘러넘치고있지 않았던가.

그러면 파연 조국이란 무엇인가?

그렇다, 조국은  
더없이 신성하고 숭엄한 그 무엇  
위대하신 수령님 한생을 바치시는  
겨레의 삶이며 그 무궁한 미래  
죽어서도 안기여사는 영원한 품

그것은 그대를 바라보는 깊은 눈동자  
맑은 거울앞에처럼  
부끄러움 없이 그앞에 서기 쉽지 않으리  
오직 그의 영광속에 그대의 삶이 있고  
그를 저버림은 곧 그대의 죽음인  
조국이란 그러한것

뜨거운 심장 없이 안을수 없고  
진실한 사랑 없이 부를수 없는  
위대하고 신성한 이름...  
조국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라  
조국에 그대의 심장을 주기전에는!

엄숙하게 울리는 이 시구들은 생활을 통하여 얻

어느 조국에 대한 감정을 가장 본질적으로 일반화함으로써 천만금의 무게로 힘있게 울리고있다.

시가 노래하였듯이 참으로 우리의 조국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생을 바치시는 겨레의 삶이며 그 무궁한 미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찾아주시고 가꾸어 주시며 이끌어 나가시는 우리 인민의 생활, 그 모든 것을 두고 우리는 조국이라 자랑높이 말한다.

위대한 수령님을 떠나 어찌 우리의 조국을 말할 수 있으며 아버지수령님의 품에 안긴 우리 인민의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떠나 어찌 조국에 대하여 말할 수 있겠는가.

위대한 수령님 계시어 누리에 그 영광 떨치는 사회주의조국이 있고 자주와 창조의 기쁨 넘치는 인민들의 영원한 삶이 있다.

실로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마련하신 조국의 위대한 품은 그 품에 안긴 우리 인민이 대를 이어 행복하게 살며 죽음도 넘어 영생하는 가장 위대하고 영원한 품인것이다.

시는 나아가 이 위대한 조국을 사람들의 삶을 비쳐보이는 깊은 눈동자에, 밝은 거울에 비기면서 그 신성하고 숭엄함을 강조하고있다.

어찌 그렇지 않으랴.

조국의 모습에는 우리 인민모두를 참다운 자주적 인간으로 내세워주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뜻이 어리어있으며 그 뜻을 받들어 하나의 사상의 지로 뭉쳐나선 겨레의 장엄한 모습이 비쳐있기때문이다.

이 숭엄한 조국에 대한 사랑은 참으로 사람들의 사고와 실천을 규정짓고 평가하는 시금석이며 그들 모두의 운명을 확고히 담보하는 꽃을래야 꽃을수 없는 혈연적인 뉴대이다.

하기에 시는 조국에 심장을 주기전에는 조국을 사랑한다는 말을 서둘러 하지 말것을 존엄있게 강조한다.

여기에는 조국앞에서, 이 위대하고 신성한 이름 앞에서 취하여야 할 공민의 참다운 자세가 밝혀져 있다.

그가 이 땅에서 생을 받은 공민일진대 그는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사상과 정신, 행동과 실천, 그 모든것을 사회주의조국에 의탁하고 그것을 위해 깡그리 바쳐나서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그대의 삶을 개척하는 참된 길이며 이것이 또한 참다운 애국심의 가장 숭고한 표현인 것이다.

시는 이어 참다운 조국애의 감정을 사회주의조국의 번영을 위한 충성의 지향속에서 더욱 양양시켜 나간다.

조국에 대한 사랑, 그것은 조국을 위한 헌신적 투쟁속에서 나타나는 혁명적인 감정이다.

시는 사회주의조국의 무궁한 반영으로 내닫는 인민들의 끝없는 헌신적로동과 투쟁속에서 체험하는

보람과 기쁨을 노래하면서 이 충성의 열정속에 또한 조국에 대한 참다운 사랑이 있음을 열렬히 강조하고있으며 미래에로 내닫는 조국을 두고 조국의 표상을 더욱더 넓혀나간다.

그렇다, 조국은

수령님 찾아주신 우리의 삶

수령님 안겨주신 우리의 긍지

영원한 영원한 그이의 품

그품이여라!

조국이여 나의 조국이여

사랑차게, 열정적으로 울리는 시의 이 절구는 이미 노래에 담아온 그 모든것을 다시한번 되새기면서 더욱 높이 승화시킨다.

우리의 조국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하신 품이다!

우리의 조국이 온 세상에 부러움 없이 행복한 나라로, 자랑높은 나라로 된것은 그것이 바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세우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나라라는 거기에 있다.

서정적주인공의 심장은 이 사랑, 이 영광을 온 세상에 노래하며 세차게 불타오른다.

시는 이처럼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높은 정신세계를 안고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노래를 펼치면서 우리 시대의 인간들이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조국앞에 어떻게 몸바쳐야 하는가를 깨우쳐주며 격동시켜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사상과 현명한 령도와 고매한 덕성의 빛나는 구현속에서 조국을 느끼고 노래하였으며 자주적인 인간에 관한 문제, 인간의 자주성을 옹호하는 문제에 대한 깊은 해명속에서 조국에 대한 사랑의 정신을 노래한 바로 여기에 이 시의 사상의 길이와 힘, 커다란 의의가 있는것이다.

서정시 《나의 조국》이 사람들의 가슴에 파고드는 힘은 또한 조국을 노래하는데서 정치적표현을 많이 쓰면서 사상을 지내 로출시키던 결함을 극복하고 시의 형상속에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뜨거운 흠모와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정을 구체적인 생활감정을 통하여 정서적으로 흘러넘치게 한데 있다.

주체적문제리론이 밝혀준바와 같이 시가 감정이 메마르고 사상이 지내 로출되면 입을 맛이 없으며 시는 짝막해서 외우기 쉽게 되여야 하며 눈물이 나 오도록 깊은 감동을 주게 되여야 한다.

서정시 《나의 조국》은 조국에 대한 사랑을 사람마다 안고있는 생동한 정서적표상을 통하여 섬세하게 노래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인상을 주고있다.

이 시는 숭고한 애국심의 본질을 드러낼수 있는 가장 특징적인 생활의 계기들을 탐구하여 그것을

두드러지게 살림으로써 사상의 알맹이를 크나큰 정서적감동속에 안겨주고있으며 또한 조국에 대한 충성의 지향을 개념적인 구호로써가 아니라 약동하는 생활의 모습으로 노래함으로써 조국을 위한 투쟁으로 사람들을 일떠세우는 역센 힘을 지니게 되었다. 시의 전반부에서 조국을 두고 생각하는 그 정답고 그리운 감정의 시적표현들은 얼마나 섬세하고 선명한 것인가!

여기서는 동구박 오리나무숲의 정겨운 설레임도, 새벽녘 들가에 피는 너인들의 웃음소리도, 지어 송아지때 풀을 뜯는 언덕을 넘어 지줄대며 흐르는 여울물소리마저도 들려온다. 그리고 다심하신 고향 어머니와 모래불에서 함께 덩굴던 어릴적동무들의 모습이며 황금과도 물결치는 논벌에서 벼단을 안고 땀을 씻는 고향마을 처녀의 그윽한 눈길도 찾아볼 수 있다.

소리와 색깔, 그 섬세한 움직임까지도 포착된 이 생동하고 특징적인 시적세부들에는 서정적주인공의 구체적인 감정, 고향에 대한 무한한 애착과 그리움의 감정이 넘쳐흐르고있다.

시는 조국을 잃고 헤매이던 쓰라린 그 시절, 우리 인민이 체험하였던 조국에 대한 절절한 애착의 정을 심각히 드러내는 시적표상들을 주었으며 나아가 이 나라의 참된 아들딸들이 조국을 위해 피어린 투쟁의 길을 헤쳐나섰던 생활의 특징적인 모습들을 통하여 조국에 대한 숭엄한 혁명적정서를 세차게 굽이쳐흐르게 하였다.

류량의 길에 오른 겨례들이 눈물속에 돌아보고 또 돌아보던 조국, 비내리는 타향의 부두에서 죽어서도 돌아가길 소원하던 간절한 조국...

피눈물을 흘리던 겨례의 간절한 소원을 안고 투사들이 헤친 길은 그 얼마나 멀고먼 눈보라만리길이였으며 그 얼마나 간고한 투쟁의 불바다였던가.

조국의 한치땅을 위해 웃으며 목숨바쳤고 두팔가득 조국땅을 그러안고 간 애어린 청춘들을 우리는 기억한다.

한줌의 흙속에 조국을 싸안고 투쟁의 길을 떠나갔으며 한떨기 진달래꽃향기에 조국의 모습을 그려보며 심장의 맹세를 다지였던 항일혁명투사들의 그 숭고한 애국의 정신을 어찌 잊으랴.

시는 이처럼 절절한 느낌속에서 우리의 가슴속에 사무친 그 모든것을 한곳으로 모아 숭엄하게 승화시켜 시의 사상감정을 뚜렷이 매듭지어주고있다.

시의 후반부에는 조국의 번영을 위한 인민의 념원과 투쟁을 담은 역센 지향과 나래치는 랑만의 세계가 흐르고있다.

시는 일을 해도 일을 해도 더하고싶어 하루를 십년맛잡이로 살고싶은 사람들의 진실한 갈망과 지혜와 힘, 열정을 있는껏 다 쏟아바치는 거기에서 크나큰 기쁨을 찾는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삶을 선명하게 노래하면서 겨례의 한결같은 지향과 의지를 강렬한 느낌으로 나타내었다.

시에에는 전진하는 조국, 미래의 조국의 그윽한 화폭이 섬세하고도 힘있게 주어지고있다.

번영하는 조국의 미래를 바라보며 온갖 시름 다 잊고 로동의 기쁨만을 안고 탁원의 거리로 돌아오는 사람들의 희망찬 모습도 있고 미래의 조국의 상징이런듯 무수한 배움의 창문을 비쳐드는 찬란한 해살도 눈부시게 안겨오며 보육원들이 지켜선 요람가에서는 아기들의 고요한 숨결소리조차 들려온다.

시는 이러한 미래를 가슴에 안고 내닫는 사람들의 거센 흐름속에서 세기의 하늘높이 불새와도 같이 나래쳐올라 퍼덕이는 조국, 그 불새가 날아오르는 아득한 창공의 휘황한 빛발과도 같이 찬란한 조국을 상징적으로 노래한다.

이 상징속에 안겨지는 정서는 그대로 달리는 조국, 빛나는 조국의 기상과도 같다.

우리는 이 시에서 생활을 떠난 감정과 시인이 개성적인 느낌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그 어떤 정서도 찾을수 없다.

이 시에는 철저히 우리 조국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확신에 찬 래일에 튼튼히, 깊이 발을 붙인 생활적이고도 개성적인 감정만이 샘솟고있으며 산인간들의 생활감정으로써 조국을 한가슴에 안은 서정적주인공, 인민의 생활과 운명, 그들의 정신세계를 참신하고 깊이있는 느낌속에 안고사는 절절한 감정이 시행과 시련들에 차넘치고있다.

사람들의 생활감정을 섬세하게 파고들어 참신하게 느끼며 절절하게 노래한 바로 여기에 이 시의 정서적감화력의 원천이 있다.

서정시 《나의 조국》이 사람들에게 깊은 여운을 주며 잊을수 없는 커다란 충격을 주는 좋은 시로 된것은 또한 이 시가 사람들의 인상에 오래 남는 깊이를 가지고있기때문이다.

생활의 진리를 밝혀주는 정서의 깊이,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시를 다시금 읽게 하며 외우고싶고 생활의 길동무로 삼고싶게 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서정성의 미학적본질은 그것이 참신하고 풍만한 생활정서라는데만 있는것이 아니다. 서정성의 근원은 그 풍만한 정서의 바탕에 생활의 심오한 진리를 깨우치는 깊은 사상과 숭고한 정신이 숨쉬고있는데 있다.

참신한 생활정서가 숭고한 인간정신의 빛발우에서 더욱 뜨겁게 뿜어지는 바로 여기에 진정한 서정의 특질이 있다.

하기에 서정시를 사색과 정서의 정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서정시 《나의 조국》은 사색적인 깊이를 가지고 철학성있게 씌여진 작품이다.

이 시는 사람들에게 조국과 참된 삶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게 하는 웅심깊은 세계를 안고있다.

시는 첫면에서부터 진실하고 진지한 목소리로써 조국에 대한 생각을 파고들며 사람들을 서정적주인

공의 사색과 더불어 친근하게 이끌어들이는 힘을 지니고있다.

이 시의 깊이는 조국의 노래를 시인개인의 체험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겨레와 그의 참다운 아들인 주체형의 혁명가들의 그 모든 정신세계를 거쳐 폭넓게 일반화한데서 이루어지고있다.

한편의 시가 천만사람의 심장을 틀어쥐는 깊이를 가지려면 응당 거기에 시인, 개인의 목소리만이 아니라 수천만 인민대중의 운명을 대변한 시대의 목소리가 울려나와야 한다.

이 시에는 고향땅에 서있는 시인의 얼굴과 더불어 시인도 함께 살아온 곡절많은 겨레의 운명도 담겨있으며 조국의 운명을 두어깨에 지고 나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전사들의 숭고한 숨결도 배여있다.

또한 시가 지닌 깊은 사색의 세계는 시와 사상을 조국의 력사에 대한 폭넓은 파악속에서 파고든 것과도 관련되어있다.

조국이 겪어야 했던 망국의 비운과 영광에 찬 혁명의 행로며 또한 오늘의 약동하는 현실과 다가올 찬란한 미래를 한품에 걸어안고 시의 사상을 밝힌 여기에 웅심깊은 서정이 마련될 튼튼한 바탕이 있었다.

시는 산인간과 그 생활력사를 이처럼 폭넓게 일반화하고 심오하게 함축, 집약화함으로써 생활의 진리를 밝혀주는 뜻이 깊은 시형상을 창조하였다.

그러기에 이 시가 거둔 중요한 성과의 하나는 조국과 하나로 이어진 수많은 인간들의 운명, 그들의 기쁨과 슬픔, 투쟁과 보람, 그 모든것을 뜻이 깊게 함축한 시적표현들을 찾아내었으며 그것으로써 조국과 참다운 삶에 대한 시대의 물음에 시적인 해답을 준 거기에 있다.

시인의 독창적으로 찾아낸 뜻깊은 시구절앞에서 우리는 그 얼마나 깊은 생각에 잠기며 거듭 의우게 되는가.

한번 너를 잃으면

네게로 돌아가는 길 그리도 멀어

피로써 눈보라 만리길을 헤쳐야 했고

죽음과 함께 불바다를 건너야 했거니

이 시구절속에 그 얼마나 많은 뜻이 함축되어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주는가.

여기에는 도탄에 빠진 조국을 건지시려 눈보라만 리길, 투쟁의 불바다를 헤쳐오신 위대한신 수령님과 그이께 끝없이 충직한 항일혁명투사들의 피어린 로정이 깊이 아로새겨져있다.

뿐만아니라 이 시구절은 조국을 잃었을 때 인간이 치러야 할 그 값비싼 대가에 대하여 생활의 심각한 교훈을 울려주고있으며 조국이란 겨레와 운명,

개인의 삶과 하나로 이어진 그 얼마나 귀중한것인가를 가슴에 사무치도록 느끼게 하여준다. 참으로 이것은 심장에 육박하는 좋은 시구절이다.

시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우신 우리 조국을 공민들의 량심을 꿰뚫어보는 깊은 눈동자로, 그들 모두가 정신적모습을 비쳐보는 밝은 거울로 노래하였으며 심장과 사랑에 대한 철학적인 경구도 주고 있다.

이러한 집약된 시적표현들은 그 얼마나 깊은 철학을 가지고 조국이라는 크나큰 개념의 참다운 본질과 조국앞에 지닌 공민의 책임과 임무에 대한 깊은 생각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것인가.

이 모든것은 생경한 론리와 추상적인 호소로써가 아니라 생활의 특징적인 표상들로써 커다란 정서적 감흥을 가지고 사람들을 힘있게 끌어당기고있다.

시는 조국에 관한 문제를 인간의 운명을 개척하는 문제로써 풀어나가면서 자주적인 인간이야말로 조국을 끝없이 사랑하고 조국앞에 지닌 의무를 위해 한목숨 서슴없이 바칠줄 아는 인간이며 자주적인 인간의 참다운 삶은 오직 조국을 위해 모든것을 바치는 그 길에서만 영생의 길, 영광의 길을 찾을 수 있다는것을 소리높이 구가하고있다.

이것은 우리 시대의 참다운 자주적인간인 공산주의자들이야말로 가장 숭고한 애국자임을 온 세상에 자랑높이 선언하는것으로 된다.

이처럼 서정시 《나의 조국》은 구체적인 생활감정에 뿌리를 박고 넘쳐흐르는 정서와 깊이깊은 사색을 통하여 얻어낸 웅심깊은 사상이 하나로 어울려 사회주의 우리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불타는 충성의 열정을 불려일으키는 참다운 혁명적서정시로 되었다.

사람들의 심장마다에 숭고한 조국애의 불길을 지펴주고 삶의 참다운 행복과 기쁨을 안겨주는 시는 오직 시인-애국자의 불타는 심장에서만 태어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안겨 꽃피는 자신과 겨레의 운명을 두고 온 냇으로 노래부르지 않고서는 건딜수 없는 그 불타는 열정으로 쓴 시는 수천만의 심장을 능히 격동시킬수 있을것이다.

생활의 본질과 우리 시대 인간들의 아름다운 내면세계를 깊이있게 담은 시의 힘은 참으로 크다.

서정시 《나의 조국》을 크나큰 감동속에 읽고 또 읽으며 우리는 인민들의 운명과 조국의 미래를 위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길이 축원하며 어버이수령님께 억년토록 충성다할 결의를 더욱 굳게 다진다.

주체의 사회주의조국,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세우시고 이끄시는 우리 나라는 세기와 세기를 넘어 인민의 노래속에 영원한 빛을 뿌리리라!

# 혁명의 성산 백두산은 천하의 명승

-가사《백두산명승가》에 대하여-

최길상

만리창공에 흰 갈기를 날리는 말기에 백학이 너울거려 명승이 되었는데. 천지에 맑은 물 설레이고 백설을 머리에 얹은 백두령봉이 천리수해를 굽어보며 거연히 솟아 명승이 되었는데.

가사 《백두산명승가》는 백두산이 어찌하여 명승에서도 천하의 제일 명승으로 되었는데를 높은 시형상으로 힘있게 노래한 명가사이다.

## 1

백두산은 혁명의 성산이다. 여기에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 뿌리내렸고 우리 인민의 새 력사가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가사 《백두산명승가》는 백두산에 혁명전통이 깃들어 명승에서도 천하의 명승으로 되었다는것을 절절하게 노래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노래에서도 중요하것은 사상적내용입니다.**

**노래를 위한 노래는 아무 소용도 없으며 그저 자연만 찬미하는 노래도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지금 근로자들의 깊은 사랑을 받고있는 가사 《백두산명승가》는 우리 당의 혁명전통이 깃든 백두산을 사상성있게 참으로 잘 노래하고있다.

가사 《백두산명승가》는 바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 깃들어있는 백두산을 천하의 명승으로 예술적으로 힘있게 노래함으로써 주체의 혁명위업에 복무하는 로동계급의 혁명적가사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게 되었다.

가사 1절은 이렇게 노래하고있다.

밝은 태양 우러르며 장군봉 높이 솟고  
노을비낀 천지에 맑은 물 설레이네  
천고밀림 바람결에 사향가도 들리는듯  
백두산 백두산은 천하의 명승일세

보는바와 같이 밝은 태양 우러르며 높이 솟아있는 장군봉 그리고 그 밝은 태양의 빛을 받아 언제나 노을이 비껴 맑은 물 설레이는 천지에는 혁명의 뜻이 어려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의 태양으로 높이 솟아오르시여 여기 백두산에서 해방성전의 총성을 높이 울리시고 류레없이 간고한 조선혁명을 승리로 이끄신 영광스러운 자욱이 새겨져있는 백두산, 실로

백두산은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뿌리내려있는 희망과 신념의 상징이였고 등대였다.

암담한 일제통치의 근 반세기, 피흐르는 조국강산에서 살아서 숨쉴곳 없고 죽어서 누울곳이 없는 우리 겨레는 오직 하나의 신념만을 간직하고있었으니 그것은 백두산에 높이 솟은 장군봉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사는것이였다. 모든것을 빼앗기고 찢기우고 놀리워 살면서도 백두산을 생각하면 소생의 열망이 타끓고 삶의 봄노을이 피어나는것 같았으니 백두산을 우러러 살아가는것은 우리 인민의 민족적 감정이였다.

하여 우리 인민은 항일의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조국해방의 새아침을 마련하시기 위하여 강도일제를 쳐부시며 하늘땅을 쥐락펴락하시고 축지법을 쓰신다는 전설을 엮어가며 민족의 위대한 태양을 우러러 기를 펴고 투쟁으로 일떠섰던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장군봉은 민족의 위대한 태양을 우러르며 저렇듯 온 세상에 머리를 높이 들고 승엄히 솟아있고 해방의 아침노을이 비낀 천지의 맑은 물은 오늘도 변함없이 혁명의 뜻 길이 전하며 저렇듯 끊임없이 설레이는것이다.

어찌 그뿐이라, 장군봉을 우러러 설레이며 끝없이 펼쳐져있는 천고밀림의 갈피마다에도 성스러운 혁명의 뜻이 어려있고 천리수해를 누비는 바람결에도 혁명의 숨결이 뜨겁게 풍겨있으니 백두밀림은 《사향가》의 절절한 노래소리를 전하고있다.

항일혁명투쟁의 그날, 어버이장군님께서 대원들에게 몸소 불러주시고 배워주신 《사향가》, 투사들은 《사향가》를 따라부르며 조선의 태양이 높이 솟아오르신 만경대의 봄을 그렸다. 그리고 일제놈들에게 짓밟혀 신음하는 고향산천을 그려보며 해방의 새날을 기어이 앞당겨오리라는 애국의 큰 뜻을 더욱 굳게 다지였다.

하기에 백두산은 높이 솟은 장군봉과 맑은 물 설레이는 천지가 있어서만이 아니라 혁명전통이 깃들어 명승에서도 천하의 명승으로 되는것이다.

가사 2절은 이렇게 노래하고있다.

기슭에선 진달래가 봄빛 안고 웃더니  
상상봉엔 만병초가 눈속에서 반겨주네  
꽃을 봐도 눈물 봐도 혁명의 뜻 안겨오는  
백두산 백두산은 천하의 명승일세

실로 백두산기슭에 핀 진달래와 상상봉에 피여있

는 백두산의 만병초, 그것은 그대로 하나의 절승경이다. 그러나 백두산이 그렇듯 천하의 명승으로 되고있는것은 봄가을의 절경을 한품에 간직하고있어서만이 아니다.

기슭에 핀 진달래, 그것은 한떨기 꽃향기속에 조국을 느끼며 애국의 녀를 키운 투사들의 신념의 상징이었고 해방의 새봄을 안겨주는 조국의 모습이였다.

상상봉에 핀 만병초, 그것은 그 어떤 눈바람속에서도 변함없는 혁명투사들의 혁명에 대한 충실성의 상징이었고 모습이였다. 찬바람 눈속에서도 망울러져 피어있는 백두산의 만병초와도 같이 우리 혁명투사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부르시는 혁명의 길에서 일편단심 충성다하였으니 실로 백두산의 만병초는 투사들의 그 모습 그대로 흰눈속에서도 아름답고 역세게 피어있는것이다.

이렇듯 꽃을 봐도 눈을 봐도 그 어데라없이 혁명의 뜻이 어려 백두산은 또한 명승에서도 천하의 명승으로 되는것이다.

백두산! 실로 여기에서 주체조선의 아침노을이 피어났고 또한 여기에서 끝없이 룡성변영하는 조국이 뿌리내리고 근로하는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인으로 등장한 주체시대의 려명이 밝아왔던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일찌기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광휘로운 빛발로 우리혁명을 영광찬 승리에로 이끄시였고 온 세계를 주체의 새시대로 줄달음치게 하시였기에 백두산은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만대에 길이 전하며 천하의 제일명승으로 되고있다.

조선의 아침노을 여기서 피어나고  
주체시대 려명도 여기서 밝아왔네  
수령님의 혁명위업 만대에 길이 전할  
백두산 백두산은 천하의 명승일세  
아, 천하의 명승일세

만년설을 이고 승엄히 솟아있는 조종의 산 백두산은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 깃들어있음으로 하여 그것은 단순한 자연의 한 부분이 아니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억천만년을 두고 길이 빛내이는 혁명의 성산이다. 그것은 또한 주체의 해발아래 력사의 주인으로 된 온 세계 혁명하는 인민들에게 신념을 주고 힘을 주는 희망의 상징이며 마음의 등대이다.

하기에 백두산은 명승에서도 천하의 제일명승인것이다.

가사 《백두산명승가》는 이렇듯 혁명전통이 깃든 백두산이 천하의 명승이라는것을 깊이 있게 노래한것으로 하여 사상예술성이 높은 명가사로 될수 있었다.

## 2

우리 당의 주체적인 문예리론에 기초하여 창작된

가사 《백두산명승가》의 사상예술적성과는 또한 가사가 높은 시형상으로 되였다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가사는 시적이면서도 정치적내용이 풍부하여야 합니다.》**

주체적인 문예리론에서 밝혀주고있는바와 같이 아름답고 세련된 시형식에 사상적내용을 풍부히 담는것은 고상한 예술성과 높은 사상성이 결합된 가사를 창작하는데서 기본요구로 된다.

주체적문예리론이 밝히고있는바와 같이 가사의 생명은 의의있는 사상적내용을 세련된 시형상으로 밝혀내는데 있으며 어떤 사상적내용을 얼마나 높은 시형상으로 그려내는가에 따라서 가사의 질과 곡의 사상예술성이 좌우되는것이다.

가사가 높은 시형상으로 되기 위해서는 노래하려고 하는 사상의 핵을 잡아 그것을 사람들이 깊이 음미할수 있게끔 최대한으로 집약화하고 운물화하여야 한다.

가사 《백두산명승가》는 백두산은 자연의 아름다움으로써만이 아니라 혁명전통이 깃들어 천하의 명승이라는 사상의 핵을 바로잡고 구경을 정서를 통하여 흘러나오게 하였다. 가사는 의의있는 사상적내용을 로출시킨것이 아니라 백두산의 절승경을 가슴뜨겁게 느끼도록 하면서 노래하려고 하는 사상의 핵을 잡아 그것을 정서적으로 흘러넘치게 형상하였다.

이것은 시인이 생활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현실을 정서적으로 파악하였기때문이다. 작가는 하나의 작은 사물현상을 보아도 당정책적안목으로 보고 평가하여야 하며 그것을 작품에 형상할 때에는 거기에 거대한 사상을 담을줄 알아야 한다.

가사 《백두산명승가》에는 천고밀림에 스쳐지나가는 바람결과 꽃, 눈 등 작은 생활세부적인 대상들이 있다. 그러나 시인은 여기에 거대한 사상을 담을수 있게끔 가사의 시형상을 높였으며 이것을 혁명전통이 깃든 백두산이 천하의 명승이라는 사상의 핵을 노래하는데로 유기적으로 통일시켜나갔다.

그러므로 천고의 밀림에 붙어에는 바람결도 기슭의 진달래와 상상봉의 만병초도 혁명의 성산 백두산의 승엄하고 슬기로운 자태를 정서적으로 뜨겁게 느끼도록 하는것이다.

가사를 시적으로 만들기 위하여서는 가사형상에 시의 고유한 특성인 풍부한 서정성을 구현하여야 한다. 서정성은 생활을 정서적으로 깊이있게 체험하는것뿐만아니라 정서적으로 체험된 감정을 조화된 감정을 통하여 노래할 때 더욱 풍부해지게 된다.

가사 《백두산명승가》는 생활감정과 감정발전론리에 기초하여 감정조직을 함으로써 혁명의 성산 백두산이 천하의 명승이라는 사상을 높은 시형상으로 노래하고있다.

이 가사에서 높이 솟은 장군봉과 설레이는 천지



의 맑은 물, 기슭의 진달래와 상상봉의 만병초는 혁명의 뜻이 어린 사상감정과 한덩어리로 융합되어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만대에 길이 빛낼 백두산의 천하의 명승이라는 거대한 사상을 힘있게 안겨오게 하고있다.

가사에서 1절과 2절은 3절에서 노래되는 사상감정을 시적으로 발전시키며 폭넓고 장엄하며 무게있는 정서적감동을 불러일으키게 하고있다.

우리가 이 가사를 통하여 백두산에서 조선의 아침노을이 피어나고 주체시대 려명이 밝아와 《수령님의 혁명위업만대에 길이 전할》 백두산은 천하의 명승이라고 소리 높이 노래한 사상을 뜨거운 정서로 받아안을수 있는것은 1절과 2절에서 충분한 정서적설득력을 주고 시적으로 승화시켜 일반화하였기때문이다.

가사 《백두산명승가》는 1절과 2절에서 자연의 명승속에 혁명의 뜻이 깃들어있어 백두산은 천하의 명승으로 되였다는데 정서적고조점을 두고있다. 이와 같이 1절과 2절에서 설정된 정서적고조점은 이 가사의 절정을 이루고있는 3절에서 《수령님의 혁명위업 만대에 길이 전할》 백두산은 천하의 명승이라는 결구어로 점차 고조되면서 가사의 주제사상이 천명되는것이다.

가사 《백두산명승가》는 정치적표현을 쓰면서도 시형상을 높이는데서 모범을 창조하고있다.

주체적인 문예리론은 가사를 시적으로 쓴다고하여 정치적표현을 피하는 방향으로 나가서는 안된다고 밝혀주면서 이것은 시의 본질을 모르는데서 오는것이라고 가르치고있다.

주체적인 문예리론에서 밝혀준바와 같이 정치적표현을 써도 그속에 시인의 열정이 담겨져있고 형상이 시적으로 되었을 때에는 강한 정서적호소성과 설득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수 있는것이다.

가사 《백두산명승가》의 3절에는 반복되는 흐름구를 제외하면 3행밖에 안되는데 주체시대, 혁명위업 등의 정치적표현이 있다. 뿐만아니라 이 표현들이 기본을 이루고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표현들이 정치성을 생경하게 로출시키지 않고 강한 정서적호소성을 찾게 된것은 가사가 노래하려는 사상적내용을 정서적으로 잘 소화하였기때문이다.

가사 《백두산명승가》는 또한 가사를 간명하게 쓸데 대한 주체적문예리론의 요구를 훌륭하게 구현하고있다.

이 가사는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 깃든 백두산이 천하의 명승이라는 사상의 핵을 틀어쥐고 대를 똑바로 세워나가고있다. 이 가사에는 천

하명승 백두산을 노래할수 있는 정수적인것만 담아서 그것을 함축되고 간결하게 형상하고있다.

가사 1절에서 노래되고있는 장군봉과 백두산천지, 천고밀림 등은 백두산의 명승을 노래함에 있어서 사상감정의 정수를 담고있는 대상들이다. 또한 2절에서 기슭에 핀 진달래와 상상봉의 눈속에 피여있는 만병초는 혁명전통이 깃든 백두산이 천하의 명승이라는 정수를 담고있다.

그러므로 이 가사에서는 백두산의 명승과 관련된 세부적대상들이 제시되고있지만 이 모든것들이 똑바로 세워진 대에 하나의 유기적구성성분으로 통일되면서 노래하려는 사상의 핵을 시적으로 힘있게 천명하고있다.

가사 《백두산명승가》에서는 또한 음악적흐름에 맞는 시문장을 잘 짓고있다. 그러므로 음악형상을 훌륭하게 창조할수 있는 담보를 주고있다.

가사가 시적으로 되여야 한다는것은 문학적으로 되여야 할뿐아니라 음악적으로도 되여야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가사의 시문장은 운률적으로 되여야 한다. 가사에서 운률은 단순히 정서적색채를 돋구거나 음향적효과를 보장하는것이 아니라 시의 감정과 정서의 운동을 추동하여 시형상을 더욱 높여주는 필수적요소이다.

가사 《백두산명승가》의 운률은 우리 인민의 민족적감정에 맞게 유순하고 순하게 되어있으며 또한 백두산의 장엄하고 역세고 슬기로운 기상에 맞게 줄기차면서도 건전하게 되어있다. 따라서 호흡이 지내 빠르거나 처지지도 않으며 천지의 맑은물과 같이, 천고밀림의 설레임과도 같이 승엄하게 물결치는것 같다. 그러므로 백두산의 장엄하고 슬기로운 기상이 천하의 명승으로 깊이있게 사색적으로 안겨오는것이다.

가사 《백두산명승가》는 형상의 개성적인 비반복성과 독창성에 의하여 그의 예술적설득력이 더욱 강화되고있다.

이 가사는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의 뿌리가 내린 혁명의 성산 백두산을 새로운 측면에서 탐구하여 노래하고있으며 그것을 민족적감정에 맞게 《천하의 명승일세》와 같이 흥이 나고 호기에 찬 장한 기상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독창적으로 노래하고있다.

가사 《백두산명승가》는 주체적문예리론에서 밝혀주고있는 명가사창작의 제반요구들을 잘 구현한것으로써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이 빛나게 실현되고있는 오늘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의 위업수행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송가

장호건

열차는 손님들이 오르고내리는 역들에서 잠깐씩 숨을 돌리다가 계속 힘차게 달린다.

즐거움에 가슴 부푼 길손들의 행복한 웃음소리와 주고받는 흥겨운 말소리들을 흐뭇한 마음으로 들으면서 차창밖을 내다보고있는 나의 눈앞으로는 아담한 문화주택마을들과 푸른 하늘에 흰연기를 내뿜는 웅장한 공업지구들이 끝없이 흘러간다.

들끓는 현지를 찾아 여행길에 오를 때마다 언제나 느끼는 감정이지만 오늘도 변영하는 조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무어라 형언할길 없는 크나큰 행복과 긍지를 나는 가슴뿌듯이 느낀다.

조국,  
사랑하는 나의 조국!  
마음속으로 조용히 조국을 불러보느라니 그토록 인민의 사랑을 받는 서정시 《나의 조국》(김상오)의 시행이 떠오른다.

조국이여!  
너는 무엇이기여  
가만히 네 이름 부르면  
가슴은 터질듯 긍지로 부풀고  
눈굽은 찢어터져 젖어드는것이나...

외우면 외울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감회깊이 안겨오는 이 땅의 어제와 오늘을 두고 사람마다 깊은 생각에 잠기게 하는 서정시 《나의 조국》,

어머니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지난날 지구우에서 빛을 잃었던 조국을 오늘과 같은 주체의 조국으로 일떠세워주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우리인민의 뜨거운 흠모의 정을 구체적인 생활감정을 통하여 정서적으로 깊이있게 노래한 서정시 《나의 조국》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실생활을 생동하게, 심도있게 그려낸 사실주의적문예작품만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수 있습니다.》**

서정시 《나의 조국》이 지금 달리는 차창가에 앉아있는 나의 마음뿐아니라 만사람의 심금을 울리며 한번 읽고난 다음에도 다시 읽고싶은 충동을 느끼게 하는것은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과 실생활을 생동하게, 심도있게, 진실하게 노래하였기때문이다.

조국은  
고향마을 정든 집이라더라  
동구밖 오리나무숲  
그 정겨운 설레임  
새벽녘 들가에 피는  
너인들의 웃음소리  
송아지떼 풀을 뜯는 언덕을 넘어  
지줄대며 흐르는 여울물소리

조국은  
그리운 얼굴들이라더라  
다심하신 고향 어머니  
모래불에 덩굴던 어릴적 동무  
물결치는 이랑속에 벼단을 안고  
땀을 씻는 처녀의 그윽한 눈길...

이 얼마나 생동하고 진실하고 깨끗한 감정인가.

이처럼 뜨거이 생각되는 사랑하는 조국의 모습이기에 시인은 살아서 떠나간이들이 죽어서도 돌아오길 소원한 조국이며 한치 땅을 위해 애 어린 청춘들이 꽃처럼 지면서도 두팔 가득 그러안고 간 조국이라고 노래하면서 조국에 그대의 심장을 주기전에는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라고 웨치고있는것이다.

주체적문예리론은 작가들은 자신이 체험하고 느낀것을 세상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고서는 견딜수 없다는 그러한 불타는 정열과 충동에서 붓을 들어야 하며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글을 써야 진정으로 인민대중의 사랑을 받고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훌륭한 작품을 창작할수 있다고 가르치고있다.

주체적문예리론의 이 가르침대로 서정시 《나의 조국》을 창작한 시인은 바로 자신이 체험하고 느낀것을 세상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고서는 견딜수 없는 그러한 불타는 정열과 충동에서 붓을 들었으며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충만된 자신의 사상감정을 개성적으로 진실하게 노래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심금을 뜨겁게 두드리는 훌륭한 작품을 내놓을수 있는것이다.

그렇다, 조국은  
수령님 찾아주신 우리의 삶  
수령님 안겨주신 우리의 긍지  
영원한 영원한 그이의 품

그품이여라!  
조국이여 나의 조국이여

격조높이 웨치는 시인의 이 목소리는 바로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목소리이다.

이처럼 우리의 시문학은 시인만이 노래하는 《시》가 아니라 인민이 노래하고 싶어하는 시로 되어야 한다.

주체조국의 행복한 인민의 아들로, 인민의 가슴으로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 행복의 노래, 충성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 시인들처럼 복받은 시인이 이 세

상 그 어데 있으랴.

생각할수록 뜨거움이 치솟아 젖어드는 눈길로 달리는 차창밖을 내다보며 나는 마음속으로 부르짖는다.

-쓰리라!

이 가슴에 이글거리는 뜨거움에 붓을 찍어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인민의 행복을 쓰고 또 쓰리라!-

내 마음속의 이 부르짖음을 더하여주듯 열차는 산굽이를 돌아 질풍같이 내달리며 하늘가 저멀리로 우렁찬 기적을 울려보낸다.

## 충성의 노래, 심장의 노래

김병두

깊은 감동을 주는 좋은 시 한편을 읽었을 때는 마치 창문을 하나 더 단 것처럼 마음도 밝아지고 기쁨에 넘친다.

그러한 시가 형상한 하나의 세계는 머리속에서 지워버릴수 없는 깊은 인상으로 오래도록 남게 되며 읽고도 또 읽고싶은 강한 충동을 느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는 애국주의사상을 주제로 한 문학예술작품도 많이 창작하여 북반부인민들도 교양하고 남반부인민들에게도 혁명적영향을 주어야 합니다.》**

서정시 《나의 조국》(김상오)이 바로 이러한 기쁨을 주며 읽고 또 읽고싶은 충동을 준다.

조국을 노래한 이 시가 것처럼 깊은 감동을 주는 비결은 어데 있는가.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께 자신의 운명과 모든것을 의탁한 사람만이 느낄수 있는 심장으로 조국을 노래했기때문이다.

시인은 이 시에서 생활의 본질과 인간의 내면세계를 깊이 탐구함으로써 특색있는 높은 시의 경지를 펼쳐보였다.

이 시에는 많은 정치적표현도 없고 생경한 사상의 표현도 없지만 시인이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흠모의 정을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결부시켜 잘 노래하고있다.

이 시에서는 형상적표현이 예리하며 특색있는 언어구사로서 생활정서를 풍부화시키고있다.

이 시를 한편 읽고나면 조국에 심장을 준 시인의

얼굴이 보인다.

알지 못해라 언제부터  
나의 가슴에 깃들었는지  
아마도 그것은 나의 첫삶과 함께  
이미 조용히 자리잡은것이니

언제나 나의 심장에 가득차있어  
기쁨과 아픔  
그 모든 운명을 함께 사는것

이렇게 시작되는 첫 두련부터 벌써 구체적이면서도 일반화된 감정으로 조국에 대한 생각을 깊이있게 노래함으로써 시의 전반흐름에서 열렬한 사랑의 정서가 분출될수 있는 전제를 마련하였다.

이 시에서는 《조국이여, 너는 무엇이기에》를 반복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한결음 한결음 더 깊은 내면세계를 개방해보이며 조국이 무엇인가에 대한 시적해명을 독특한 사색으로 깊이있게 보여주고있다.

시인은 조국을 지나온 생활에서 가장 잊혀지지 않는 그리운것과 사랑스러운것에 비유하고있다. 조국을 고향마을의 정든 집과 동구밖 오리나무숲, 송아지떼 풀을 뜯는 언덕을 넘어 지줄대며 흐르는 여울물 소리라고 하였고 조국을 그리운 얼굴들이라고 하면서 다심한 고향의 어머니, 물결치는 이랑속에 벼단을 안고 땀을 씻는 처녀의 그윽한 눈길이라고 하였다.

그런가 하면 높은 지성으로 노래한 다음과 같은

시련도 있다.

그것은 그대를 바라보는 깊은 눈동자  
맑은 거울앞에처럼  
부끄러움 없이 그앞에 서기 쉽지 않으리  
오직 그의 영광속에 그대의 삶이 있고  
그를 저버림은 곧 그대의 죽음인  
조국이란 그러한것

얼마나 인상깊은 표현인가, 조국은 바로 그대를  
바라보는 깊은 눈동자이며 그 눈동자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기가 쉽지 않으며 조국의 영광속에 삶이 있  
고 조국을 저버림은 곧 그대의 죽음이라는 철학적  
인 사색으로 시의 사상을 승화시킨다.

뜨거운 심장없이 안을수 없고  
진실한 사람없이 부를수 없는  
위대하고 신성한 이름...  
조국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라  
조국에 그대의 심장을 주기전에는!

이 시련은 매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돌이켜  
보게 하는 얼마나 절절한 심장의 호소인가.

뜨거운 심장없이 안을수 없고 진실한 사랑없이  
부를수 없는 위대하고 신성한 조국에 심장을 주지  
않고는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라는 이 표현은 격언  
과 같이 마음속에 몇번이고 외워보게 한다.

이 시에서 노래한바와 같이 한번 조국을 잃으면  
그리로 돌아오는길이 그리도 멀어 피로써 눈보라  
만리길을 헤쳐야 했고 죽음과 함께 불바다를 건너  
야 했다.

때문에 조국에 심장을 맡기고 얼마나 많은 선렬  
들이 쓰러지면서도 못잊어 두팔 벌려 이 땅을 그리  
안고 갔던가.

시인은 손이 닳도록 조국땅을 쓰다듬어주고싶고  
조국의 하늘을 바라보고 바라보아도 더 바라보고싶  
어한다.

그렇다, 조국은  
수령님 찾아주신 우리의 삶  
수령님 안겨주신 우리의 긍지  
영원한 영원한 그이의 품

그품이여라!  
조국이여 나의 조국이여

시인이 다감한 정서로 노래하고 깊은 철학적호소  
로써 심장의 피를 끓이며 도달한 사상이 바로 우리  
의 삶을 찾아주신 수령님의 품이 곧 조국이라는것  
이다.

시적인 이 천명이 서정시의 생명력을 확고히 담  
보하게 하는것이다.

서정시 《나의 조국》은 또한 시어를 정서화시키  
는 측면에서도 독특한 표현력을 느끼게 한다.

한줌 흙속에  
너를 싸안고 간 투사들도 있었더라  
한떨기 진달래꽃향기에  
눈감고  
너의 모습 그려본 너대원도 있었더라  
아마도 조국은 어머니...

여기에서 볼수 있는것처럼 《아마도》라는 이 시  
어가 없이 그저 조국을 어머니라고만 표현했다면  
이 시련을 정서화시키는데서 얼마나 평범하게 하였  
겠는가. 《아마도 조국은 어머니》라고 함으로써  
시인의 사상정서적감정을 독특한 색깔로 형상하였  
다.

이런 식의 표현을 이 시에서 많이 찾아볼수 있다.

《이미 조용히 자리잡은것이리》에서 《조용히》,  
《가만히 네 이름 부르면》에서 《가만히》, 《고향  
마을 정든 집이라더라》에서 《집이라더라》 등 실  
례로 들자면 수없이 많다.

서정시 《나의 조국》을 읽으면서 조국을 뜨겁게  
체험하였다.

생경한 정치적표현이나 로출된 앙상한 사상으로  
가 아니라 생활의 본질로부터 올라나오는 진실한  
목소리로 노래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조국이란 참뜻을 심어주었다고 생각한다.

서정시 《나의 조국》은 우리 시인들에게 티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조국을 사랑할 때만이 수백  
만 사람들의 피를 끓여주는 노래를 낳을수 있다는  
철학적해답을 주고있다.

## 새 령마루

김길환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할 월말이 눈앞에 다가왔다.

이달 생산종결을 며칠 앞둔 온 탄광사람들은 분초를 다투가며 최후돌격전을 벌리고있었다. 지배인과 기사장을 비롯한 탄광일꾼들은 갱들을 하나씩 말아가지고 모두 현장으로 나가고 사무실에는 기요원이나 통계원들, 그리고 사용할 임자가 없는 전화기들만 남아있었다.

탄광초급당위원회 비서 허정훈은 활시위처럼 펄펄한 이런 시각에 현장에 가있어야 할 자기를 사무실에 붙잡아둔 내부분건들을 초조한 눈길로 내려다 보고있었다. 지금 그의 온 정신은 자기가 담당한 청년굴진갱의 주용철고속도굴진소대에 가있었다. 요즘 그 소대에서는 굴진속도에서 전국적으로 첫자리를 차지하고있는 안주탄광의 본보기굴진소대의 지난달 기록을 따라앞서기 위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있었는데 새형의 철동발이 들어오면서부터 동발 들이는 속도가 점차 빠지기 시작한것이였다. 생전처음 해보는 일이어서 여러번 반복시공을 하지 않으면 안된 그들의 안타까움을 어제도 직접 목격한 비서는 그것이 가슴에 맺혀 내려가지않았다.

종내 내부사업을 밤으로 미뤄버리기로 한 그는 문건들을 덮어버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10여년 남짓이 이 탄광의 당사업을 하면서 인젠 머리카락도 희끗희끗해오느터이지만 요즘처럼 이렇게 흥분해보기는 드물었다.

요긴한 사업포치만 간단히 하고난 허정훈은 주용철소대로 나가보려고 책상맡에서 장화를 꺼내신기 시작했다.

갑자기 손기척이 울리더니 미처 대답할새도 없이 뜻밖에 허우대가 큰 주용철소대장이 들어섰다. 착암대차도 혼자서 들어올릴것 같은 우람찬 몸집이며 술뚜껑같이 큰 손이며 꼬리가 들린 검은 눈썹은 일손이 보통 드센 청년이 아니라는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게 했다.

《또 밤을 새게 아니요?》

한쪽장화를 신다 만 비서는 그의 꺼칠해진 얼굴을 쳐다보며 근심스레 물었다.

《…………》

어쩐지 주용철은 기분이 상해있었다. 장갑을 벗어주고 의자에 앉은 그는 비서를 건너다보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비서동무, 우리 소대에 전차갱의 동발기능공 두

사람을 바꿔주기로 했습니까?》

《갱장동무가 어제저녁에 몹시 간청하길래 그렇게 했소. 왜 아직두 그 동무들이 가지 않았습데?》

장화를 마저 꿰여신은 허정훈은 허리를 펴며 의아한 눈길로 소대장을 바라보았다.

《온결 되돌려보냈습니다.》

《도로 보내다니? 그건 또 왜?》

무슨 영문인지 몰라 눈썹을 치뜬 허정훈은 기분없이 앉아있는 소대장에게서 눈길을 떼지 못했다.

《그럼 갱장동무가 동무네하구 토론이 없었소?》

《물론 갱장동무의 심정은 알만합니다만 저는 우리 소대원들을 그 누구로도 대신시킬수 없습니다.》

《음…》

허정훈은 말을 끊고 생각에 잠겼다. 알고보니 어제저녁에 갱장이 전화로 때를 쓰다싶이한것은 그 혼자만의 견해였다. 갱장은 새형의 철동발과 처음 맞다든 이 소대의 기능수준으로써는 이달에 안주속도를 따라잡지 못할것이 불보기보다 더 명백하다고 하면서 몹시 안타까와했었다. 그래서 비서 자신도 생각을 거듭하던끝에 그 의견을 풀어주었던것이다. 사실 주용철이네 소대문제는 심각하였던것이였다. 전혀 익숙치 못한 새 동발작업은 그들의 굴진속도 전반에 커다란 지장을 주고있었고 주용철이네도 이것으로 하여 결에서 보기 딱할 정도로 안타까와했다.

《용철동무, 동무네 소대의 위치는 지금 여간 중요한게 아니요. 동무넨 갱의 명예만 아니라 우리탄광에서 기발을 든 사람들이요. 이 모든걸 깊이 생각해봤소?》

《저도 알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소대의 굴진은 자체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있단말이지?》

《꼭 해내겠습니다, 비서동무.》

주용철은 장갑을 쥐고 일어섰다.

《좋소, 내 인츰 올라가보겠으니깐 동문 합숙에 가서 좀 쉬오.》

《알았습니다.》

소대장은 절도있게 거수경례를 하고는 가벼운 걸음으로 사무실에서 나갔다.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난 허정훈은 뒤집을 지고 방안을 거닐었다. 주용철의 자체의 힘으로 하겠다는 결심은 확고했으나 어쩐지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히 무거웠다.

사실 허정훈은 제대군인들만으로 조직된 이 소대에 커다란 기대를 걸고있었다. 하나같이 미덥고 힘과 정력에 충만한 소대원들도 그러했지만 특히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것은 소대장인 주용철이었다. 기골이 장대할뿐만아니라 일을 배심있게 내밀고 선봉에 설줄 아는 패기있는 청년이었다. 그래서 비서는 그들을 청년굴진경범위에서만이 아니라 탄광적인 본보기소대로 내세우려고 오랜기간 깊은 관심을 지지고 돌보아왔었다.

창가로 다가가 갠덕길을 내다보고있는 허정훈은 지금도 함박눈이 펄펄 쏟아지던 지난해 겨울 자기를 처음 찾아왔던 주용철청년의 모습을 잊을수가 없었다.

...퍼그나 깊은 밤이었다.

한결 조용해진 이런 때에 사업을 설계하며 사색하기를 즐기는 허정훈은 창밖에서 하염없이 내리는 눈송이를 바라보며 오래동안 서있었다.

문득 복도에서 눈을 탁탁 터는 소리가 나더니 난데없는 한 제대군인청년이 불쑥 들어섰다.

《저... 비서동무, 한가지 제기해도 좋습니까?》

《뭔데? 자 여기 와 앉아서 얘기하우.》

창가에서 돌아선 허정훈은 그에게 의자를 권하며 마주앉았다. 비서는 이 청년을 어디에선가 여러번 보았다는 인상을 느꼈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서였던지 선뜻 떠오르지는 않았다.

《저... 비서동무, 우리 탄광에는 어째서 기발을 든 소대가 없습니까. 본보기소대말입니다. 비서동무두 아시겠지만 군대에서는 언제나 고지로 돌격할 때 기발을 든 사람을 앞세우곤하지 않습니까? 모든 전사들이 그를 따라 달려나가게 말입니다.》

허정훈은 대뜸 눈에 기쁨을 담고 청년의 구리빛 얼굴을 마주보았다.

《저는 우리 제대군인들만 따로 소대를 무어가지구 한번 이 탄광의 기수가 될가 합니다.》

《그게 정말이요? 반갑소. 정말 고맙소!》

청년의 제의에 의자에서 벌떡 일어난 허정훈은 그의 어깨를 부어잡고 세차게 흔들었다.

그자신 이 문제때문에 오래전부터 고심해왔었다. 제2차7개년계획의 웅대한 석탄고지를 점령해야 할 무거운 과업이 제기된후부터는 더욱 그랬다.

그래서 위원들에게도 어느 소대를 어떻게 내세울 것인가 하는 연구분공을 주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신통한 방안이 나오지 않아 애를 먹고있었는데 이런 복덩이가 제발로 성큼 굴러들어오지 않았는가!

허정훈은 한량없이 기쁘고 주용철의 일이 고마웠다.

《우리 힘껏 도와줄테니 꼭 탄광의 앞장에 서주시오. 이젠 제2차7개년계획의 돌파구를 여는 매우 중요한 문제요.》

《비서동무. 우린 빠른 시일안에 안주탄광 고속도 굴진소대를 따라설 계획입니다.》

《안주소대를?... 그들의 굴진속도가 어떻다는걸 알고있소?》

《압니다.》

《중소. 합시다. 한번 우리 탄광에서두 그들의 기록을 돌파해봅시다.》

허정훈은 민음이 확 실리는 청년의 땀관같은 잔등을 철썩 갈겼다. 청년은 돌아섰다.

《가만 동무의 이름은!》

《주용철입니다. 공병대대 본대장이였습니다.》

《공병대대?... 중소!》

주용철이 돌아가자 탁상일력장에 그의 이름을 큼직하게 써놓은 허정훈은 그제야 그 청년을 어디서 보았던지 하나하나 생각났다. 그는 탄광의 여러곳에서 자주 그 청년을 보았었다.

승리갱에서 원격조종에 의한 최신식종합기계를 설치할 해 몸집이 류달리 큰 그를 얼핏 본적이 있었고 전차갱에서 단층이 내려앉았다는 전화를 받고 달려갔을 때에도 그곳에서 땀을 흘리는 그 청년을 보았다. 그리고 통일갱에서 핑장한 새 발과법을 시험할 때에도 그의 호기심어린 얼굴을 보았으며 모범전차운전공 은실이네 호실에서도 책을 펴놓고 착암기구조를 배우고있는 그를 보았었다.

(탄부된 굴지가 몹시 높은 청년이군.)

허정훈은 이렇게 감탄하며 종합지도원을 불렀다. 《집행위원동무들을 급히 내 방으로 불러주시오. 매우 긴급하구 중요한 문제가 생겼소.》

그때로부터 많은 나날이 흘러갔다. 함박눈이 펄펄 쏟아지던 갠덕길에 하얀 들국화가 피었다가 지고 이젠 단풍이 짙게 불타고있었다.

주용철은 그동안 소대를 이끌고 말할수 없이 간고한 길을 걸어왔다. 그들이 이겨낸 크고작은 모든 시련을 함께 체험해온 허정훈은 제대군인소대가 성장해온 과정을 하나하나 더듬느라니 자연히 눈곱이 후더워올랐다. 당의 부름을 받들고 전혀 생소한 새 초소에 와서 그들은 남들을 따라앞서기 위해 잠은 얼마나 적게 잤으며 휴식은 또 얼마나 뒤로 미루었는가. 그런 소대가 온 탄광사람들을 놀래울 기적을 창조하고있는 때에 새형의 동발로 해서 늦어지는 굴진속도는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벽에서 안전모를 벗어쓴 허정훈은 교환수에게 청년굴진갱으로 간다는것을 알리고는 사무실을 나섰다. 젊은시절이 소성한듯 왕성한 사업의욕과 충동이 온몸을 사로잡는것을 느끼며 그는 갠덕길을 씨엿씨엿 올리걸었다.

청년굴진갱에 올라선 비서는 인차를 타고 3편도에 자리잡은 주용철이네를 찾아들어갔다.

인차정류소에서 내려 소대후계실을 지나가려던 그는 그 안에서 주용철의 심각한 목소리가 흘러나

와 걸음을 멈추었다.

《…도대체 무엇때문에 우리 소대에 다른 갱의 기능공들을 보내달라고 갱장동무가 제기하게끔 했겠소? 우리가 어떻게 보였기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됐겠는가말이요. 우리 얼굴에서 확고한 신심이 보였더라면 과연 이런 일이 있었겠소? 우린 아직 본보기는커녕 탄부의 첫걸음도 떼지 못했다구 생각하오.》

주용철의 안타까운 부르짖음은 여기에서 끊어졌다. 얼마동안 휴게실에서는 조용한 침묵이 흘렀다.

《난 가슴이 미여지는것 같았소… 새 철동발이 들어오면서부터 은연중 우리의 행동에서는 신심과 강의한 의지대신에 제대군인답지 못한 그 무엇이 나타나기 시작한것 같소. 우선 소대장인 나자신부터…》

《소대장동무의 말이 옳습니다. 여기 앉은 우리들 중에서 군대생활을 할 때 당이 맡겨준 자기의 위치가 어렵다고 해서 그 누가 대신해줄것을 바랐던 사람은 없었을것입니다. 그러나 나자신부터 철동발이 들어오자 두려워하기 시작했지요.》

부소대장의 자책에 잠긴 목소리였다. 이어 또다른 동발공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동무들, 나를 비판해주시오. 난 자신을 훌륭한 탄부로 준비하려는 생각에 앞서 그 어떤 명예를 먼저 생각했겠습니까. 이것이 어제 반복시공을 하도록 한 기본요인입니다.》

주용철의 목소리가 울렸다.

《우리는 이번 일에서 심중한 교훈을 찾아야겠소. 당은 우리 제대군인들이 이 탄광에 와서도 기발을 들고 나갈것을 굳게 믿고 여기로 파견했소. 어떻게 하든지 새형의 철동발도 우리 힘으로 익혀내야 하오…》

허정훈은 불보다 뜨거운것을 삼키며 그 자리를 떴다. 그는 아침에 주용철이가 찾아왔을 때만 해도 이들의 이런 심정을 다는 몰랐었다. 자기 방에 와서는 주용철이가 간단히 말했지만 저희들끼리는 얼마나 뼈저린 자책에 잠겨 내부투쟁을 하고있는가. 저렇게 깊이 자각한 사람들에게 손쉽게 기능공들을 붙여 그 속도를 보장하려고 생각한 갱장의 처사는 얼마나 잘못된것이며 그의 의견을 듣고 동정에 사로잡혔던 자기 또한 얼마나 이들의 심정을 모르고 있는것인가.

허정훈은 주용철이네를 더 적극 도와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들에게는 그 어떤 로력방조나 값높은 동정이 아니라 진정한 보살핌이 필요했고 높은 당적고무가 필요했다. 오늘 교대가 끝나면 그들과 함께 토론해보리라 결심한 허정훈은 막장으로 들어가보았다.

하지만 그들이 세운 동발들을 보게 된 그의 마음은 차츰 무거워지기 시작했다. 아침부터 품었던 그

의 위구는 틀린것이 아니었다. 새벽에 들인듯싶은 동발이 또 각도가 잘 맞지 않고 규정의 요구대로 반듯이 되지 않아 반복시공을 하고있는것이였다. 분명 숙련치 못한 솜씨에 빠른 속도로 나가는 굴진을 따라가느라고 이렇게 된것 같았다. 그들이 애를 먹은 흔적인듯 땅바닥에 어지럽게 널려있는 마치며 나사들개며 동발기동들을 내려다보는 그의 가슴은 아팠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용철소대는 이달에 안주속도를 따라잡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소대가 과연 자체의 힘으로 이 난관을 극복해내겠는가? 지원로력을 붙여줄가. 아니었다. 그것은 원칙적으로 안된 일이고 저 청년자신들이 반대하는것이였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 나가겠는가?

허정훈은 동발작업장을 거닐며 여러가지로 생각해보았다.

그날밤 허정훈은 버리고버르던 그들과의 토론을 하지 못했다. 현장에서 청년굴진갱 일군들과의 협의회를 마치고 그들의 막장으로 온 비서는 주용철이가 한교대외의 전체 소대원들을 데리고 보수갱도로 갔다는것을 알게 된것이다.

보수갱도로 찾아가한 허정훈은 눈앞에 벌어진 뜻밖의 광경에 몹시 놀랐다. 그들은 새형의 철동발을 들이는 훈련을 맹렬하게 하고있는것이였다. 주용철의 지휘밑에 소대원들은 날랜 동작으로 동발을 조립하기에 여념이 없었고 그 곁에서 은실이가 손시계를 들여다보며 시간을 측정하고있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것은 아침에 왔다가 되돌아간 전차갱의 동발기능공이 와서 그들을 배워주고있는것이였다.

《끝!… 은실동무, 몇분이요?》

《아직두 시간을 초과해요.》

《자 이거 곡사포분해결합보다두 더 힘들군. 자 다시!》

주용철의 구령에 따라 그들은 재빨리 동발기동들을 세우고 보장을 조립하기 시작한다. 전차갱의 기능공은 각이한 암벽조건에서 매끈하고 빨리 들이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준다. 간데라불빛에 땀이 질러난 얼굴들이 하나같이 번들거렸다.

《조립!》

《해체!》

몹시 감동한 허정훈은 동발 하나를 들고 그들에게로 다가갔다. 그때에야 비서를 알아본 주용철은 점직한 미소를 지으며 이마의 땀을 씻었다.

《비서동무가 어떻게?》

《대단하구만. 그래 강평원동무한테서 <우>를 갖기 힘들지 않소?》

허정훈은 은실을 쫓아다니며 결눈질하며 한마디했다. 그바람에 소대원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허정훈은 그지없이 기뻐다. 아침에 반복시공을 하고있는 동발을 본후부터 내내 마음이 무겁고 근심스러웠던

는데 이들이 이렇게 풀어나가고있을줄은 생각못했던것이다. 이날밤 그는 주용철이네와 함께 오래동안 땀을 흘렸다.

며칠후였다. 긴장한 나날이 흘러 이달도 마지막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 굴진속도에서 안주소대의 전달기록을 거의 따라잡고있는 주용철소대는 결정적인 이 하루에 모든것이 달려있었다.

선전부에 혁신자들을 위한 축하모임을 굉장히 조직할데 대한 방향을 주고난 허정훈은 책상으로 다가가 송수화기를 집어들었다.

《청년굴진경에 대시오. ... 지령실이요? 지금 용철동무네가 어떻게? 마지막발파가 결정할거라구요?! 대단하구만, 대단해. 내 곧 올라가겠소.》

송수화기를 놓자 안전모를 벗겨쥐고 나온 허정훈은 마당에서 대기하고있던 《갱생》승용차에 올라앉았다.

《자 갑시다. 청년굴진경으로.》

승용차는 산허리를 구불구불 올라가는 언덕길로 대형화물자동차들을 비키며 쏜살같이 달렸다.

갱입구에 다달은 허정훈은 차를 돌려보내고 곧장 막장으로 들어갔다.

3편도를 성큼성큼 걸어가던 그는 소대휴계실앞에 서있는 주용철이를 발견하였다. 무슨 일인지 주용철은 호각을 길게 불어대며 달려나오는 승차공청년을 불러세운다.

《동무, 저 안에서 우리 소대원들이 휴식하고있소, 알겠소?》

몹시 감동한 승차공은 입에서 호각을 빼고 다시 달려갔다.

비서는 비스듬히 열려있는 출입문밖으로 책을 읽고있는 청년들을 보았다.

기술기능을 높이기 위해 소대장이 하도 극성스레 다긋는지라 대원들은 쉬는 시간마저 학습을 하는것이고 소대장은 그것을 소중히 지켜서있는셈이다.

조금후 종을 땡땡 울리며 전차가 질풍같이 달려나오고있었다. 전차는 주용철의 앞에 와서 속도를 죽이며 멈춰섰다. 운전칸에서 은실이가 보름달같이 환한 입술을 내밀었다.

《식사하셔요?》

《했소. 근데 이 앞을 지날 때면 제발 종을 때리지 말아주오. 우리 동무들이 학습하고있소.》

《알겠어요. 좀 쉬세요.》

《괜찮아.》

주용철은 휴계실문을 꼭 밀어닫고 돌아서더니 막장으로 걸어들어갔다.

허정훈은 가슴이 뭉클해올랐다.

자기 소대를 앞장세우겠다고 아글타글하며 변변히 쉬지도 못하고 막장에 붙어사는 주용철이었다. 더구나 새형의 철동발에 숙련하려고 밤마다 대원들을 이끌고 보수경도로 가서 하루도 아닌 며칠씩 힘

겨운 씨름을 한 그였다. 그리고 짬만 있으면 소대원들의 기능학습을 조직하는것이다. 그런 주용철이 누구보다도 피로하면만 대원들을 쉬게 해놓고 자신은 또다시 막장으로 들어가는것이다.

허정훈은 눈시울이 뜨거워 서있었다. 그는 불같은 저 청년을 더 힘껏 도와주지 못한것 같아 못내 가슴이 저렸다. 할수만 있다면 그의 고달픔을 대신해주고싶었고 살뜰한 애정으로 지친 그의 온몸을 감싸주고싶었다. 오래도록 뿌리내린듯 서있던 허정훈은 은실이에게로 다가갔다. 소대장의 뒤모습을 측은하게 지켜보고있던 은실은 비서를 알아보고 수집은 얼굴을 숙이며 당황해했다.

허정훈은 허리를 굽히고 운전칸을 들여다보았다. 그는 이 처녀가 전차를 잘 거두고있다는 말은 자주 들었지만 운전실을 이렇게 섬세하고 알뜰히 꾸린줄은 몰랐다.

《은실동무 숨씨가 여간 아니구만. 글썄 이런 재간이 있길래 저 억대우같은 소대장을 나꿔챘지.》

은실은 얼굴이 활짝 붉어져 운전대에 머리를 파묻었다.

《그래, 은실이, 저렇게 일밖에 모르는 사람한테 무엇이 맘이 끌려 사랑하게 됐나?》

《아이, 정말. 비서동지두... 전 몰라요!》

처녀는 운전실구석으로 돌아앉아 어찌할바를 몰라했다.

《허허...》

은실은 자그마한 입술에 거짓 노여움을 담고 탄차를 썩 내몰았다. 그는 일부터 지은 그 노여움이 전차수전기에서 발산되는 푸른 섬팡에 비친 자기의 얼굴을 얼마나 아름답게 해주었는지도 모르고 난장을 향해 긴 탄차를 끌고 사라져갔다.

허정훈은 가슴에서 끓어오르는 기쁨을 억제할수 없었다. 이런 기특하고 아름다운 젊은이들과 함께 탄광을 떠받들고 나가는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다. 그는 용철소대장과 은실이가 자기들의 생활에서 그렇듯 큰 사변으로 되는 결혼식도 안주탄광의 고속도굴진소대를 앞선 그날에 하자고 남몰래 뒤로 미루어오고있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해방전 굶주린 배를 안고 탄지계를 진채 가까스로 기여다니던 캄캄한 오소리굴속에 소년시절과 청춘시절을 속절없이 파묻어버리고말았던 허정훈은 행복한 이 청년들이 그지없이 부러워났다. 그럴수록 이 청년들이 자기가 누려보지 못한 청춘시절의 뭉까지 다 합쳐 더 보람있고 더 긍지높이 살도록 잘 이끌어주어야겠다고 속다짐하였다.

휴계실문을 재차 꼭 밀어닫은 허정훈은 막장으로 걸음을 옮겼다.

막장에서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있었다. 지심을 뒤흔드는 착암기소리며 적채기와 콘베아가 돌아가는 소리, 웃음소리, 게다가 개방전화기에서 울리



는 지령원의 흥분한 목소리까지 뒤섞여 정신을 차리지 못할 지경이었다.

허정훈은 주용철의 곁으로 다가가 근심스레 말을 건넸다.

《소대원들과 함께 좀 쉬걸 그랬소.》

주용철은 미소를 지으며 인차 변명을 했다.

《이제 안주를 따라선다음 실컷 자겠습니다.》

《그땐 내가 잠든 동무의 보조를 서줘야겠구만 허허...》

소대장도 마주 웃었다.

갑자기 개방전화기에서 지령원의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주용철소대 들으라. 발파시간이 멀었는가?》

주용철은 전화를 받았다.

《곧 시작하겠습니다.》

《용철동무. 더 바싹 다그치시오, 이달 마지막 교대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소.》

《알았습니다.》

송수화기를 놓은 주용철은 동발공들에게 걸어갔다.

《동무들, 다그쳐야겠소. 5분후엔 마지막 발파를 하겠으니깐.》

《중당크》라는 별명을 가진 어깨가 떡 버그러진 동발공이 자기 동무들을 향해 웨쳤다.

《자- 이날 마지막 발파가 다가오우. 빨리 빨리!》

주용철은 암벽으로 다가가 착암대차를 교대해주고 천공작업에 달라붙었다. 휴계실에서 자고있던 소대원들이 우르르 올라와 일감들을 찾아잡고 답사거렸다.

심부구멍을 거의나 뚫던 주용철은 뜻밖에 난데없는 석수가 뿜어나오는바람에 돌물을 들쭉다. 높은 압력을 가진 석수는 사정없이 정대를 내밀었다. 착암수들의 얼굴은 삽시에 흠뻑이 되었다. 그렇게도 가슴을 조이고있던 마지막 전공이 이런 돌발적인 난관과 부닥칠줄은 생각도 못했던것이다.

입술을 지그시 깨문 주용철은 압력을 맞받아 힘껏 착암기를 들이밀었다.

《이걸 어떻게 해요? 예? 우린 끝내 안주소대를 따라잡지 못하고 마는가요?》

갑자기 등뒤에서 흐느낌에 가까운 처녀의 비통한 목소리가 사람들의 가슴을 허뻛다. 주용철은 피곤했을 돌아보았다. 은실이였다.

《동문 뭐요? 누가 따라서지 못한다고 했소? 응? 누가?》

소대장의 목소리는 엄하고 날카로왔다. 고개를 푹 떨군 처녀는 황황히 전차쪽으로 달려갔다.

허정훈은 뒤로 밀리는 착암대차에 어깨를 들이밀고 결사적으로 밀어주었다. 석수와와 싸움은 간고했다. 돌물을 하얗게 뒤집어쓰면서도 그들은 물러

서지 않았다. 주용철은 소매로 얼굴에 묻은 돌물을 문질러내며 집요하게 심부구멍을 뚫었다. 땅바닥은 삽시에 물이 흘러내려 질척질척해졌다.

《용철동무.》

허정훈은 소대장을 불렀다. 이 순간 정말로 많은 말을 해주고싶은 비서였다. 이 마지막 발파에 얼마나 많은 사연이 얹혀있는가. 하지만 비서는 가슴이 짝 막혀 주용철에게 어서 구멍을 뚫으라고 눈짓을 했을뿐이었다.

주용철은 비서의 그 눈길에서 모든것을 알아채고 더 억세게 착암기를 틀어잡았다.

간고한 시련끝에 드디어 전공이 끝났다. 소대원들이 달려들어 진창우에서 착암대차를 들어 옮기고 작업도구들을 주어모았다.

허정훈은 발파공과 함께 장약작업을 하고있는 주용철의 일손을 거들어주었다.

이윽고 대피신호를 알리는 긴 호각소리가 막장안에 울려 퍼졌다. 소대원들은 휴계실로 뛰어갔다.

시간은 숨가쁘게 흘러갔다. 모든것을, 정말 모든것을 이 마지막 발파가 결정할것이었다. 어느때같은 근육이 불끈불끈한 팔로 젖은 옷들을 쥐어짜며 흐아흐아웃어댈 그들이었으나 지금은 모두가 가슴을 조이며 막장쪽에 귀를 기울이고있었다.

시간은 한초한초 긴장속에 흘러갔다.

순간 불의에 둔중한 폭발소리가 지심을 드렁드렁 흔들었다. 기다리던 발파가 시작된것이다.

얼마후 발파가스가 가세지자 주용철이와 소대원들이 용수철에서 튕겨나듯 일어나 막장으로 내달았다.

허정훈은 뒤에 처져서 그들을 따라 걸어갔다. 과연 석수가 흐르는 앞벽에서 발파가 성공했을까?

그는 은근히 가슴이 죄여들었다. 어쩐지 그들이 달려간 막장이 쥐죽은듯 조용하였다.

허정훈은 허물어진 버럭걸에 자를 든 용철이가 차거운 암벽을 그러안고 머리를 지그시 대고있는것을 보았다.

(실편가?)

《어떻게 됐소?》

그제야 주용철은 얼굴을 돌리었다. 그의 눈물이 글썽한 얼굴에서는 우는것인지 웃는것인지 분간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이 회오리치고있었다.

《비서동무... 우리도 했습...》

주용철은 끝내 목이 메여 말을 맺지 못했다.

《따라잡았던말이요?》

허정훈은 키 큰 굴진소대장을 와락 그러안았다.

《장하오! 정말 장해!》

북받치는 걱정을 참을길없는 비서는 이렇게 웨치며 소대장의 어깨를 다시 한번 흔들었다. 저쪽멀리 전차운전실에서 얼굴을 숙인 은실이도 기쁨에 겨워 혼자 조용히 어깨를 떨고있었다. 막장안에는 감격

의 환호성이 터졌다.

주용철굴진소대는 기어이 안주의 고속도굴진소대가 지난달에 세운 기록을 따라잡고야만것이다! ...

이곳 탄광이 생겨서 있어보지 못한 최고굴진속도를 창조한 주용철소대청년들은 교대를 마치고 정류소에 나와 인차를 대기하고있었다. 거기엔 다른 소대탄부들이 더 많았는데 그들은 주용철이네를 축하하며 법석 떠들었다.

인차가 왔다.

주용철이네 소대원들은 은실이를 비롯한 처녀운전공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인차에 올라탔다. 그들은 방금 간고한 전투를 치르고도 기운들이 뻗쳐서 괜히 서로 통질도 하고 시시덕거리면서 가만있지들 못했다.

《여 <중팡크>. 자네의 귀여운 동무는 언제 온데? 안주를 따라잡았으니 이젠 데려와야지?》

《재삼스레 그건 왜?》

《밤마다 헛소릴 치면서 부르는데 걱정안하게 됐나?》

늘 안전모를 뒤통수에 붙이고다녀 지적을 받군하는 익살이 심한 청년이 중간에 끼여들며 말참네를 했다.

《아따, 자넨 아직 전보온걸 모르나? 이 친구안해가 장모와 함께 래일 온다네.》

《그래? 자 이거 우리 소대장동무두 인차 거사를 치를텐데 야단 아닌가. 결혼식과 새집들이가 한데 되니말야.》

《별걱정을 다 한다. 새기록을 세운 소대가 져장, 두집 음식을 제끼는데서두 기록을 못낼가.》

《핫하...》

《호호...》

한껏 유쾌해진 소대원들은 만시름을 잊은 웃음을 터뜨리고 처녀들은 허리를 그려안고 눈물이 나도록 웃어댔다.

그들을 배려우고난 주용철은 비서를 돌아보며 입을 열었다.

《비서동무, 전 어쩐지 우리가 굴진해온 길을 더듬고싶습니다.》

《나두 방금 그 생각을 하댔소. 자 가시오.》

두사람은 갱도를 내걸기 시작했다. 그들은 부푼 가슴들을 안고 말없이 걸었다. 비서는 감회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주용철의 얼굴을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았다. 함박눈이 펄펄 쏟아지던 그날밤부터 아니 제대배낭을 메고 낫선 일터로 달려와 생활을 새로 시작한 그때로부터 오늘 탄광의 선봉에 서기까지 이들은 서로 일깨워주고 충고를 주고 이끌어주면서 얼마나 많은 피로움과 모태김과 시련을 이겨냈던가. 넘어졌다가는 다시 일어나고 주저앉았다가는 또다시 일어난 이들, 정말로 어떤 때에는 비서자

신도 눈시울이 뜨거워져 못본척한적이 많지 않았던가.

주용철은 마치도 갱도벽에 자기들이 걸어온 자취가 새겨져있는듯 곳곳을 잔잔히 살펴보고 천천히 걸고있었다. 이렇게 길다란 굴진갱도를 걸어나오는 주용철의 얼굴에는 밝이 가까와올수록 어쩐지 점점 그들이 덮이기 시작했다. 허정훈은 그것이 매우 이상스러웠다.

《용철동무, 왜 그러우?》

《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용철은 생각에서 깨어나며 당황해하였다.

어느덧 두사람은 나란히 갱도밖으로 나왔다.

《저... 비서동무, 전 다른 소대 막장을 좀 보구 가겠습니다.》

주용철이 갑자기 되돌아서며 비서에게 말했다.

《왜 그러우?》

《.....》

주용철은 아무 대꾸도 없이 다시 갱도를 걸어돌아갔다.

《저녁 여덟시부터 축하모임이 있는데 시간을 어기지 마우.》

허정훈은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으나 불일들이 많아 갱언덕으로 올라섰다. 갱언덕에 서서 탄광마을을 내려다보던 그는 또한번 놀랐다. 어느새 탄광아빠트마을은 영웅을 낳은 집안처럼 사람들이 하얗게 펼쳐나서 들췌덕했다.

갱들에서 축하모임에 참가할 탄부들이 문화회관을 향해 밀려내려오고 큰길에는 꽃뭉음을 든 가두너맹원들이 걸어가고있었다. 대렬앞에서는 아낙네들 몇이 어깨춤을 추며 팽과리를 쿵챙쿵챙 두드려댄다. 그 뒤로는 소고대와 취주악대를 앞세운 학생가창대 대렬이 씩씩하게 행진해가고 또 그 뒤에는 머리에 흰 수건을 쓴 할머니들, 조무래기들, 또 강아지들... 허정훈은 뿌듯해오는 가슴에 큰숨을 들이쉬며 언덕길을 내리기 시작했다. 온몸에 힘이 솟아오르고 바위같은 신심이 생겼다. 그는 이런 들끓는 생활이야말로 탄광앞에 나선 새 령마루도 문제없이 앞당겨 점령할수 있는 확신을 굳게 한다고 생각했다.

정력에 넘쳐 사무실로 돌아온 허정훈은 안전모를 벗어 벽에 걸고 돌물이 허영게 묻은 장화를 벗었다.

어느덧 저녁 여덟시가 가까와오고있었다.

밀렸던 사업을 처리하다가 회관으로 갈 차비를 서두르던 허정훈은 주용철소대장이 들어서는바람에 도로 의자에 앉았다. 어깨가 축 처져내린 주용철의 얼굴은 몹시 우울해있었다. 그는 말없이 의자를 끄당겨놓고 주저앉더니 머리를 떨구었다.

《아니, 왜 그러우?》

《.....》

오래동안 대답을 못하고 앉아있던 주용철은 그

어떤 아쉬움과 원망과 피로움이 뒤섞인 얼굴을 들었다.

《비서동무, 미안합니다. 유감스럽게두 우리가 창조한 굴진속도는… 무효로 되고말았습니다.》

《아니?! 그건 또 무슨 소리요?》

비서는 너무도 천만뜻밖이라 어정쩡해 서있었다. 아마 곁에서 벼락이 쳤어도 이처럼은 놀라지 않았을것이다.

말할수 없는 수치감과 부끄러움이 내비친 소대장의 얼굴은 중병을 앓고난 사람처럼 해쓷었다.

《비서동무, 전 아까 우리가 뿔고들여간 갱도를 나오면서 이상하게도 다른 소대막장보다 조건이 좋고 유리했다는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른 소대로 가보았지요. 그 동무들이 우리보다 굴진속도는 떨어졌지만 간고하기는 우리의 몇배였습니다. 그런 흔적앞에서 저는 얼굴을 들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측량기사한테로 달려갔습니다. 사실은 옳았습니다. 이미 지질조건이 매우 유리하다는걸 잘 알고있는 갱장동무가 우리를 본보기로 내세우려는 그 단순한 목적으로…》

주용철은 뒤말을 잊지 못했다. 방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소리없이 흘렀다. 그 어딘가 멀리에서 가다란 기적소리가 여운을 끌며 들려왔다.

《갱장동무 지어 다른 소대의 광차를 떼서 우리 소대에 보내주었구 새 적재기두 우리 소대에 선참으로 돌려줬습니다. 무엇때문에 글썄, 다른 소대두 아니구 본보기를 창조하려는 우리 소대에 이처럼… 인젠 우리의 기록을 그 어느 탄부도 따라와서려고 하지 않을겁니다.》

《음…》

허정훈은 새삼스러운 눈길로 주용철이를 바라보았다. 그는 가슴이 뜨거워울랐다. 주용철이가 이런 청년인줄은 다는 모르고있었다. 오래동안 간난신고를 겪으며 겨우 따라잡은 새기록을, 애오라지 개인의 모든것을 묵묵히 묻어두고 아득바득 애를 쓰며 쟁취한 오늘의 기쁨과 소대의 영예를 다만 그 한가지 리유로 서슴없이 포기해버리는 이런 훌륭한 청년이었던말인가.

비서인 자신도 지금 새기록을 포기한다는것이 그 지없이 아쉽고 분하고 기가 막혔다. 그런데 당자인 주용철이야 얼마나 가슴아픈 후회와 고민을 했을텐가.

허정훈은 잘 피우지 않는 담배를 꺼내 불을 붙여 물었다. 그는 어쩐지 주용철이와 눈길이 마주치기가 피로왔다. 그럴수록 그는 이 청년이 새기록만은

무효로 하지 말았으면 하는 동정심이 일었다. 당위원회에 스스로 찾아와 남다르게 차례진 영예를 사양하는것은 얼마나 고맙고 기쁜일인가.

《용철동무, 앞으로는 경계하기루 하구 이번만은 갱장동무의 심정을 리해해줍시다. 어쩔소?》

《아닙니다. 비서동무, 본보기로 사는 사람일수록 더 순결하구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기발을 든 기수가 남의 호의나 방조를 바라며 고지에 오른다면 어느 전사가 참호에서 그를 따라일어서겠습니까? … 비서동무, 우리 소대를 가장 어려운 새막장으로 옮겨주십시오. 래달엔 진짜로 꼭 앞장서겠습니다.》

허정훈은 그의 손을 꼭 움켜잡았다.

《좋소, 이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동무넨 래달에두 꼭 승리할수 있소!》

주용철은 홀룡하고 긍지높은 탄부였다. 비서는 오늘 그 자리에서 또 하나의 새롭고 매우 귀중한것을 발견하였다. 이들과 함께라면 이 세상에서 무서울것이 없었다.

전화종소리가 다급히 울렸다. 문화회관에서 선전부지도원이 걸어오는 전화였다.

《비서동무니까? 큰일났습니다. 방금 제대군인소대동무들이 달려와서 자기들의 세운 기록이 헛된것이라는겁니다.》

《아니요. 여기 내 방에 소대장동무가 와있소. 지도원동무, 더 굉장히 준비하십시오. 우리 탄광에 그들이 세운 기록보다 더 높고 귀중한 기록이 생겨났소! 큰 경사가 말이요.》

송수화기를 제자리에 놓은 허정훈은 주용철의 등을 떠밀었다.

《자, 어서 가자구. 사람들이 기다리구있소.》

주용철은 잠시 망설이였다. 그제야 비서는 그가 아직 작업복차림이라는것을 알아채고 난처해하였다. 그러다가 그는 당위원회 트랙에 새옷을 꽃보자기에 싸안고 소대장을 기다리며 서성거리고있는 은 실이를 발견하였다. 순간 허정훈의 눈은 안도감으로 빛났다.

《옷을 갈아입구 인츰 따라서우. 시간이 늦지 않게.》

청춘시절이 되돌아온듯 허정훈은 활개를 저으며 문화회관을 향해 걸었다. 그는 주용철이네를 어서 빨리 탄광사람들앞에 내세우고싶었다. 주용철소대장과 대원들의 마음은 벌써 앞으로 탄광이 쌓아올려야 할 그 높은 석탄산우에 올라서있는것이기에…

## 아름다운 모습

조일구

퇴근길에 오른 선반작업반장 채경림은 집으로 가던 발걸음을 돌려 바다가에 나와서서 하염없이 설레이는 물결을 바라보고있었다. 멀리서부터 이랑을 지으며 밀려온 파도가 모래불을 핏으며 기여올라왔다. 물결은 발목을 덮을듯이 기세를 올리었으나 경림이는 거기엔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고 수심이 깃든 아름다운 눈으로 설레는 바다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나직이 한숨을 쉬었다.

아득히 먼곳 하늘과 바다가 잇닿아있는 수평선 위에 한척의 배가 동실 떠돌았다. 그 배에 눈길을 주고있는 경림이의 생각은 줄곧 순녀에게로만 줄달음치고있었다.

(순녀언니 왜 그런 제기를 했을가? 미운 소재를 먹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고...)

무거워진 마음을 풀어보려고 바다가에 나온 경림이였지만 작업총화에서 의견을 제기하던 순녀의 얼굴이 자꾸 떠올라서 마음은 더욱 울적하여졌다.

순녀란 그의 작업반에서 일하는 아주머니였다. 주물직장의 주형5작업반에서는 순녀의 남편 성환이가 반자동주형기계를 만들었다. 아직 채 완성되지 못해 외형이 곱지 못한 소재를 내고있었는데 경림이는 그런 소재들을 술선 말아안았었다. 그리하여 경림이네 선반3작업반에서는 우물두들한 소재를 깎느라고 생산실적이 떨어지게 되었다. 어떤 선반공들은 《아유, 못나게는 생겼네. 어느 세월에 이걸 깎아.》 《그러나 반장동무 말 못들었어. 이것도 다 주형5작업반을 돕는게야.》 라고들 했다. 그때마다 순녀는 얼굴을 붉히곤하였고 오늘은 작업총화에서 그런 소재를 더는 먹지 말자고 모를 박아 정식으로 제기를 하였던것이다.

순녀의 제기를 받고 경림이는 깊이 생각하지 않을수 없게 되었다. 언제인가 순녀는 남편의 기술혁신에 대해 자랑삼아 이야기를 하였다.

그때 경림이는 무척 기뻐었다. 그것은 우연히 공장장의 판매지도원과 출장원과의 《다툼》질을 목격한 바로 그날에 들은것으로 하여 더해진 기쁨인지도 몰랐다. 북방의 화학기지건설장에서 온 출장원은 계획외의 발브를 더 요구하였다. 그래야 화학기지건설공사기일을 단축할수 있다는것이다. 그런데 지금 발브에 목이 메어 로동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안타까움을 터놓았다. 판매지도원은

난감해하였다. 주물직장에서 발브가 셈숫듯하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못하다보니 거기만 다줄수 없다고 하였다. 계약한대로만 가져가라는것이였다.

경림이는 그때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지켜보았던가. 경림이의 그 심정을 풀어주듯 순녀는 남편이 발브생산을 두배로 끌어올릴수 있게 발브촉소재생산을 반자동화한다고 약간 얼굴을 붉히면서 그에게 귀뜸을 했다.

그후 얼마 지나서부터 결면이 곱지 못하여 품이 많이 걸려야 할 소재들이 넘어오군했다.

하지만 경림은 첫시작은 그럴수 있다고 생각하며 발브생산량이 많아지는것으로 기쁜 마음을 가지고 군말없이 말아안았다. 시험생산을 계속할수 있었다. 그런데 그 소재때문에 순녀의 얼굴에 우울한 빛이 떠돌더니 그 소재를 더는 먹지 말자고 년땀 제기까지 한것이다.

오늘 그런 소재가 전보다 더 많이 넘어와서 선반공들은 어제보다 결의계획을 3%나 미달하였다.

경림이는 끝없이 설레이는 바다를 지켜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겹잡지 못하고있었다.

그런 소재를 먹지 않게 되면 작업반의 생산은 올라가겠지만 주물직장에서는 기계를 완성시키지 못할것이 아닌가.

《반장동무!》

경림이는 누군가의 목소리에 언뜻 고개를 돌리었다. 몸집이 실한 순녀가 원망이 어련듯한 눈길로 자기를 지켜보고있었다.

《아이 순녀 언니구만요.》

경림이는 자기를 따라오기까지 한 순녀로 하여 당황해났으나 굳이 내색을 하지 않고 정겹게 쳐다보았다.

《반장동무, 난 사실...》

순녀는 무슨 말인가 할듯하다가 눈을 내리깔고만다.

《어떻게 이렇게... 어서 말해줘요.》

경림이는 밀려올라오는 바다물을 피해 물러섰다. 주저하던 순녀가 어쭙게 웃으며 입을 열었다.

《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너무 안타까워서...》

순녀는 말을 채 끝맺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경림은 그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되었다. 그는 순녀의

두손을 따뜻이 감싸쥐었다.

《소재때문에 너무 마음을 쓰지 말아줘요.》

《참, 반장동문 마음을 안쓰게 됐어요. 작업반의 생산에 지장을 주고있는 사람이 바로... 난 요즘은 얼굴을 못들겠어요.》

《언니 왜 그렇게 쓸데 없는 생각을 하고있어요. 영희 아버지 이제 꼭 성공할거예요. 주인이 하는 일이라고 해서 그러지 않아요.》

경림이는 이렇게 말하고나서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눈앞에는 요즘 총화때마다 무거워지는 작업반원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동무들이 요즘 소재를 두고 불만을 터쳐놓을때마다 꼭 나를 들으라고 하는 말갈아서... 어쩐지 모두 나를 지켜보는것 같이만 생각되여요.》

순녀는 자기의 마음을 속속들이 알고있는것 같은 경림이의 부드러운 감정에 끌려들어 스스럼없이 속을 터놓았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껴고있는 외형이 끊지 못한 소재를 두고 아저씨를 탓하는 사람은 없어요. 시험생산이 성공될 때까지 거기서 나오는 소재를 먹는것이 도리상으로 봐도 옳은게 아니겠어요.》

《그래도 난 사람들 보기가 미안해요. 반장동무, 우리가 언제 결의한 목표를 못해본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순녀언니의 그 심정은 알만해요. 그러나 언니 너무 웅졸하게 생각하고있는것 같아요. 주형기계만 다 되면 그땐 얼마나 많은 발브가 생산되겠어요.》

언니는 누구보다도 영희아버지를 적극 도와주어야 할 사람이 아니예요. 그런데 언니자신이 소재때문에 자꾸 원심을 쓰면 시험생산을 하고있는 아저씨가 마음이 좋겠어요.》

순녀는 아무런 대꾸도 없이 묵묵히 발끝을 내려다보기만 하였다.

경림은 안타까운 어조로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지금 도처에서 발브를 더 많이 생산해줄것을 요구하고있어요.》

우리는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주어야 해요. 그래서 영희 아버지도 그렇게 수고하고있는게 아니겠어요.》

아까처럼 바다는 기승을 부리지 않았다.

저녁노을이 내려앉아서 출렁이는 물결은 아름답게 불타고있었고 멀리에 보이는 기선과 대조되여 연안으로는 돛을 단 쪽배가 살같이 달리고있었다. 경림이는 기선과 돛배에 시선을 주었다가 손을 들어 가리키면서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기 기선과 돛배를 보아요. 어쩐지 돛배가 더 빠른것같이 보이지 않아요?》

《돛배가 가까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이겠지뭐.》

순녀는 경림이의 말에 빙그레 웃음을 머금었다.

그러나 경림이는 심각한 표정을 하고있었다. 무엇인가 가슴을 파고든다. 돛배는 저렇게 빨리 가는것 같이 보이지만 기선보다는 어방없이 속도가 느리다. 짐을 잔뜩 싣고서도 속력을 내어 달리는 믿음이 가는 기선, 문명한 사회에서 태어난 현대적인 기계가 더 뜨게 보이고 자그마한 돛배가 빨라 보이는것은 무슨 까닭일까? 그것은 관찰하는 사람의 거리감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경림이에게는 어쩐지 돛배가 자신의 체면과 가정 그리고 작업반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는 순녀처럼 대조되여 마음이 아릇해졌다.

《순녀언니, 마음을 크게 먹고 영희 아버지를 힘껏 도와주자요.》

《글쎄 나도 뭐 남편의 일이 잘되길 바라지 않는건 아니예요.》

경림이는 끼룩끼룩 정다운 소리를 내면서 날아도는 갈매기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 울음소리는 경림이의 마음을 한결 부드럽게 만들기도 하였고 한편으로는 서글퍼지기도 하였다.

(순녀언니 왜 바다처럼 저렇게 넓게 생각을 못할까?...)

아무 말 없이 제각기의 생각에 잠겨 바다에 눈길을 주던 그들은 천천히 걸음을 옮겨놓았다. 물기어린 모래불우에는 두사람의 발자국이 어둠을 담으면 점점이 찍히기 시작하였다.

× ×

여러날이 지나갔다.

오늘은 하나같이 외형이 고운 좋은 소재만이여서 오전작업에서 벌써 하루작업량의 70프로를 수행하게 되었다.

경림이의 얼굴에서는 기쁨의 미소가 내비치고있었다. 주형기계를 완벽하게 만들어서 미끈한 소재만을 보내주고있는 성환이에 대한 고마움이 순녀에게로 쏠려 기대청소를 하고있는 그를 부드러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야, 순녀언니 얼마나 기뻐할까?)

웃음이 피어나는 경림이의 경림이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순녀는 머리를 다소곳이 숙이고 기대만 열심히 닦고있었다.

(벌써 다 알았을거야. 영희 아버지가 어련히 말안했을까. 입이 무거운 순녀니까 남편이 기술혁신에서 성공했다는 말을 비치지 않았을뿐이지. 엉큼하기도 하지.)

순녀에게 정어린 눈길을 이윽히 보내던 경림이는 생글생글 웃으며 그에게로 다가갔다.

《순녀언니, 축하해요.》

순녀의 크고 순진한 눈이 휘둥그래지면서 의아쩍

어하였다.

《언니 오늘은 고운 소재만 넘어오지 않았어요. 보세요. 우린 영희 아버지가 꼭 해내리라고 믿었어요.》

경림이의 뜨겁게 올리는 말에 순녀는 점직해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보드라운 솔로 작업대의 쇠밥을 털어내기만 하였다.

경림이는 순녀가 남편이 한 일을 자기가 칭찬받는다 고 수집어하는것 같아서 빙그레 웃음을 머금고는 기름절레로 감속기뚜껑을 닫기 시작하였다.

《아니 그만뒤요.》

순녀는 황급히 경림이가 든 절레를 빼앗으려고 하였다.

《일없어요 언니, 영희 아버지가 얼마나 수고가 많았겠어요. 어서 청소를 끝내고 기계를 가보지 않겠어요.》

《주형기계요-?!》

순녀는 얼굴을 붉히면서 대답인지 반문인지 모를 애매한 소리를 내고는 쇠밥을 바깥쪽에 담아서 들고나갔다.

수집은 웃음이라든 한번 웃어주리라고 믿었던 경림이는 그의 태도가 못내 섭섭하였다. 그렇지만 마음이 어진 순녀이기에 남편한테로 가기를 저어한다고 여기었다.

얼마 지나서야 순녀는 빈 바깥쪽을 들고 들어온다.

《언니, 이젠 나무랄데 없는것 같아요, 어서 가보지요.》

《아니, 난 싫어요.》

경림이를 흘끔 바라본 순녀는 당황해하면서 민망스러운 표정을 얼굴에 담는것이였다.

《언니 정말... 그럼 혼자서라도 가보겠어요.》

싱긋이 웃으며 경림이는 밖으로 나갔다. 해감내를 안은 바다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 그의 얼굴에 부딪쳐다가는 귀밀으로 빠져간다.

경림이는 주물직장으로 향하였다.

(얼마나 애를 썼을가? 밤잠도 못잠을거야. 주형기계를 주형기계를 붙들고 피로움을 이겨낸 날도 하루이틀이 아닐거야.)

경림이는 학교때 편속식발과법을 도입한 탄부들을 축하해주려고 순회공연을 떠나면서 그들을 어떻게 하든 더 즐겁게 해줄가 하고 머리를 썩이던 그때처럼 성환이에게 할 인사말을 골라보기도 하였다.

용선로에서는 시뻘건 쇠물이 쏟아져나오면서 무수한 꽃보라를 날리고있었다. 신비로운 세계에 끌려들듯이 경림이는 한결음두결음 주형작업장쪽으로 걸어갔다.

용선로앞을 지나가던 경림이는 선풍기앞에서 쇠

물바가지에 사품치며 흘러드는 용금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땀을 흘리고있는 박아바이를 만났다.

《아바이 안녕하세요?》

《반장동무로구만. 어떻게 왔나?》

그는 입귀에 주름살을 모아 웃으면서 경림이 반기였다.

《주형기계를 보려고 왔습니다.》

《기계? 허 참 조장동무가 오늘부터 기계를 잠재우고있대네.》

《예? 그럼 기계를 세웠습니까?》

《괜찮게 소재가 나오더랬는데... 어디 그 사람의 속내를 알겠더라구. 통 말이 없어놔서.》

아바이는 흠칫 놀라면서 얼굴에 그늘을 떠우는 경림이를 보고는 도리어 미안해하는것이였다.

경림이는 커다란 의문을 안고 주형기계쪽으로 걸어갔다.

기계앞에서는 성환이가 홀로 곱지 못한 소재무지우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있었다.

경림이는 주형기계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절보기에는 이상이 없는것 같았다. 주형틀로 쇠물이 흘러드는 수채에는 성환이가 늘 끼고있던 실장갑이 아무렇게나 놓여져있었다. 그런데 성환의 등뒤의 손수레에는 미운 소재들이 가득 담겨있었다.

《영희 아버지, 어떻게 된 일이에요?》

경림이의 조용한 목소리에 고개를 든 성환이는 어색해하는것이였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움이 어려있었다.

그전보다 수척해진듯싶은 성환이의 얼굴을 대하게 되자 경림이의 가슴은 이상하게 저려들었다.

《영희 아버지, 어찌된 일이에요?》

성환이는 몹시 당황해하며 미안쩍은 어조로 입을 열었다.

《반장동무 참 미안하게 됐소. 나때문에 술한 고생을 하고... 이제라도 좋은 소재만을 보내줄테니 뒤떨어진 작업반을 추켜세워주소.》

《아니?!...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우리 작업반을 위해서 시험을 중지하고 기계를 세웠단말이에요?》

너무나도 뜻밖의 말에 경림의 얼굴은 해죽해졌다.

천정기중기가 맞가지 않다는듯이 부르릉부르릉 몸을 떨면서 지나가고있었다.

경림은 금방 울음이 터져나올듯이 서글퍼지고 언짢아졌다.

《너무해요. 전 정말 영희 아버지가 이럴줄은 몰랐어요.》

경림이는 흐느끼듯 몸을 떨었다.

《영희 아버지 어찌든 그렇게도 동지들을 믿지 못해요. 근 한달동안 계획을 못하면서 곱지 못한 소

재를 깎아온 우리들의 마음을 왜 그렇게 몰라줘요. 주형기계의 반자동화를 실현하는게 어떻게 영희 아버지 한사람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세요.》

물기어린 두눈을 보이는것이 두려워서 고개를 돌린 경림이의 어깨는 마구 들먹거리기까지 하였다.

《내 잘못이 크오.》

성환이는 이렇게 웅얼거리며 쓴 약을 삼킨 때처럼 얼굴을 찡그리었다. 침울한 얼굴로 경림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화가 나는지 피우던 담배를 내동댕이쳤다.

그리고는 기계때문에 생산에 지장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하나 도와주기 위해 애쓰던 경림이의 가룩한 심정앞에서 부끄럽기 그지없었다. 이틀전에 성환이는 안해한테서 또 지청구를 받았다.

안해는 작업반원들 보기가 부끄럽다고 했고 더우기는 자기를 위로하려고드는 경림이 보기가 괴롭다고 하였다. 한두번만 받게 되는 꾸녀미 아니었지만 온순한 안해의 눈에서 이슬방울을 보았을 때 성환의 가슴은 터지는듯하였다. 그 작업반원들이 오죽 고생이 컸으면 저러랴.

그래서 기술적으로 더 추진시켜야 할 일이 남아있는 주형기계를 잠정적으로 세웠던것이다.

이런 성환이를 지켜보는 경림이의 마음은 그지없이 아팠다.

그가 무엇때문에 기계를 세웠는지는 아직 다는 알지 못하지만 그 고통만은 이만저만 크지 않는것 같았다.

(미운 소재를 두고 순녀언니가 영희 아버지에게 뭐라고 한것이나 아닐까?)

주형기계를 보러 오자고 할 때 당황해하던 순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남편의 기술혁신문제를 두고 대범하고 통이 크게 생각하지 못하고있는 순녀를 잘 이끌어주지 못했다는 뉘우침이 컸다. 자신의 사업에 빈구석이 있는것이다.

이런 자책에 잠기여 경림이는 미운 소재를 실은 손수레채를 잡았다. 작업반으로 가려는것이였다.

성환이가 황급히 그의 손을 잡았다.

《아니 그건 용선로에 넣으려고 했는데...》

《네-?!》

경림은 놀란 소리를 쳤다.

너무나 안타까와 눈에 눈물까지 핑그르 고인다.

그는 야속한 원망어린 눈길로 성환이를 쏘아보다가 채를 붙드는 성환이의 손을 아무 말 없이 밀어버리고는 가공직장쪽으로 손수레를 돌리었다.

그리고는 되돌아서 성환이를 보며 간곡히 말했다.

《영희 아버지, 우리 작업반에 대해서는 조금도 걱정하지 말아주세요.

주형기계를 꼭 해야 돼요.》

《알겠소. 난 그저...》

성환이의 두눈은 감동에 젖어있었다.

경림이는 성환이에게 눈인사를 보내고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놓았다. 경림이의 마음처럼 무거운 손달구지는 힘겨웁게 굴러가기 시작하였다.

그는 송골송골 내똥은 땀방울을 흠칠념도 없이 번거로운 생각에 빠져들었다.

(순녀언니 어쩔 수 없을가?)

성환이가 하는 일에 체동기를 건 순녀의 얼굴이 줄곧 떠올라서 경림이는 어떻게 자기가 구내길을 지나서 직장앞에까지 왔는지도 몰랐다.

손수레를 내려놓고 손수건으로 이마의 땀을 문지르는데 탁구채를 든 두 선반공처녀가 방금 탁구를 끝낸 모양 얼굴이 빨갛게 상기돼가지고 해죽해죽 웃으며 걸어왔다.

《반장언니, 오전작업에서 우리 작업반이 이겨지요?》

엄지손가락을 내보이며 우습강스럽게 빠기던 키가 좀 작은 처녀의 눈이 금시에 둥그래졌다.

손수레에 실린 미운 소재를 보고 놀라는것이였다.

《아니 이걸 뭐예요? 어데서 났어요?》

처녀들의 밝던 얼굴엔 금방 실망의 빛이 어린다.

《우리가 늘쌍 깎던거지요 뭐.》

《아이 반장언니도... 우린 또...》

롱담으로 받아넘기는 경림이의 말에 그 처녀는 얼굴을 붉히었다. 언짢은 눈길로 소재를 들여다보고있다.

《옴 참 기왕 깎으면서도... 빨리 세수나 하자꾸나.》

다른 처녀가 경림이의 얼굴을 살피다가 자기 동무를 탓하고는 손잡아 끌었다.

《그저 좀 그래봤지 뭐. 반장언니, 나빠하지 말아요. 호호.》

두 처녀는 깔깔 웃으면서 세면장으로 갔다.

그들의 뒤를 바라보며 빙그레 웃던 경림이는 놀람과 절망이 어린 순녀의 눈길과 부딪치었다. 순녀는 황황히 눈길을 돌리며 몸돌바를 몰라하다가 세면장으로 들어가는 두 처녀를 흘깃 쳐다보고는 머리를 떨어뜨리는것이였다. 그러면서 주저주저하다가 입술을 꼭 깨물며 다가온다.

《반장동무, 이걸 어찌자고 또...》

수심이 짙은 순녀의 얼굴을 보는것이 너무도 안타깝고 가슴이 저려여서 경림이는 굳어진채로 그를 뻗히 쳐다보았다. 옷자락만 매만지고있는 순녀가 한없이 측은해보이기까지 하였다.

《순녀언니, 이 소재는 꼭 깎아야 하겠어요. 이것이야...》

《반장동문 정말...》

경림이의 다음말을 가로챈 순너는 자기의 말마저 뱉지 못하고 눈을 아래로 내리깔았다. 그의 얼굴엔 그 누구를 원망하는 빛이 가득 어리고있었다. 반장 동문 왜 이렇게 나의 심정을 몰라줄까. 좋은 소재만 넘쳐와서 얼굴이 밝아졌던 사람들은 남편이 다시 보낸 보기 싫은 소재를 두고 또 묵묵히 나를 보겠지. 경림과 짜증이 어린듯한 작업반사람들의 눈길을 어떻게 견디어낸단말인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나를 굽지 않게 보고 외면한다면 그때 어떡한단 말인가. 순너는 몸부림이라도 치고싶었다.

《나를 차라리 다른 작업반에...》

순너는 흐느끼듯 이렇게 중얼거렸다.

너무나도 놀라운 이 말에 경림이는 눈을 치켜튼 채로 그를 뵈히 쳐다보았다.

순너는 몸가짐을 어색하게 하다가 쫓기는 사람처럼 허둥지둥 휴게실로 가버렸다.

세찬 타격에 억이 막힌 경림이는 후들거리는 다리를 겨우 지탱하였다. 그는 피가 나도록 입술을 꼭 깨물며 순너가 사라진쪽을 애라는 눈길로 바라보았다.

《참 순너언니 왜 저렇가?》

× ×

퇴근길에 오른 경림이는 깊은 상념속에 빠져들어 무거운 걸음을 옮겨놓았다. 그는 순너네 집으로 가고있었다. 작업총화를 끝내고 순너를 조용히 만나려고 했으나 어느틈에 그가 가버리어서 이렇게 그를 찾아가는길이었다. 다른 작업반에 보내달라고 한 순너의 말이 어지럽게 머리를 흔들여놓아서 그의 마음은 하냥 허전하기만 했다.

비가 쏟아지려는지 복산쪽으로 매지구름이 몰려간다. 숨이 막힐듯한 저기압은 경림이의 마음을 더욱 절박하게 만들었다.

순너가 사는 아파트에 이른 경림이는 힘겨우계 단을 밟아 두번째층을 지나서 3층으로 올라갔다.

《언니, 순너언니》

경림이가 문을 두드리자 부엌에서 나던 달가닥소리가 잠잠해졌다. 그리고는 좀 지나서야 복도문이 방향이 열렸다. 문사이로는 조그마한 단발머리가 살며시 나왔다.

《영희로구나, 어머니 안계시니?》

《아파서 그래요.》

《뭐?》

경림이는 처녀애가 들고있는 바가지를 내려다보며 흠칫 놀랐다.

《어디?》

《머리가 아프대.》

《그런데 넌 뭘하했니?》

《어머니가 물을...》

《이리 다구.》

경림이는 바가지에 물을 반쯤 떠가지고 집안으로 들어갔다.

경림이를 본 순너는 몹시 당황해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경림이의 눈치를 살피면서 서먹서 먹해하는것이였다.

이때 밖에서 영희포래의 아이들 목소리가 울려왔다.

《어머니 나... 학습반》

순너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인다.

경림이는 그냥 머뭇거리는 영희를 보며 나지막하게 입을 열었다.

《그래 가봐라. 내가 있잖니.》

경림이의 말에 영희는 안심이 된다는듯 생긋이 웃더니 가방을 들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경림이는 영희가 나간 문에서 눈길을 떼고는 섬세한 눈으로 옷장, 이불장, 책장 등 정가로운 가구들과 살림살이도구들을 훑어보았다. 어항속에서는 금붕어 한쌍이 통방울눈을 디굴거리며 《손님》을 바라보고있다. 집안의 모든것이 부러울만치 깨끗하게 정돈되어있었다.

《순너언니, 갑자기 어디가 아파서 그래요?》

송구한 몸가짐으로 경림이의 안색을 살피던 순너가 몇번 갑자르다가 입을 연다.

《내가 오늘 반장동무가 미운 소재를 끌고왔을 때 너무 지나치게 말을 한것 같아요. 그렇지만... 반장 동문 아직 모를수 있어요. 가정을 이루고있는 너로서 남편이 사람들의 말밖에 오를 때처럼 가슴아픈건 ...》

순너는 자기가 낮에 경림이에게 한 말이 가슴에 걸려 곱곰히 생각해보았던 모양인지 미안스러워하는 기색을 얼굴에 담고있었다.

경림이는 힘들게 입을 여는 순너의 말을 통하여 그가 진짜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마음이 아파서 이런다는것을 직감하였다.

《순너언니 영희아버지가 하는 일을 한갓 개인의 일로만 여기고있는것 같아요. 왜 그렇게 좁게만 생각하고있어요. 주형기계를 만드는 일이 어디 아저씨 혼자서만 할 일이나요. 그것은 우리 직장만이 아니라 온 공장을 위한 일이고 나아가서는 나라를 위한 일이 아니예요. 중요한 발브가 어서빨리 많이 나오도록끔 아저씨를 우리모두가 돕는것은 응당한 일이 아니겠어요.》

경림이는 말을 끊었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영희 아버지는 아마 자기 혼자를 위한 일이라면 입술이 타들도록 무리를 하진 않을거예요. 피곤하면 자리에 눕고 힘들면 휴식을 하고 뭐 지금처럼 애쓸 필요가 없을거예요.》



순너는 묵묵히 경림이의 얼굴을 쳐다보다가 고개를 숙이었다. 알른알른 윤기가 도는 장판에 손톱금만 국고있다.

《언니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우리모두가 다 위대한 수령님을 어버이로 모신 하나의 대가정속에서 살고 있지 않아요. 조국을 위한 길에서만이 매 사람은 빛나는것이고 또 관과 관을 련결하여주는 발브처럼 우리 개인들의 마음이 합쳐져서 조국의 숨결을 이루는게 아니겠어요... 언니, 마음을 좀 활 열어젖혀 봐요.》

가슴뜨겁게 울리는 경림이의 설득력있는 목소리에 순너는 얼굴을 들지 못했다. 새삼스럽게 자기를 돌이켜보게 만드는 경림이의 말에 그는 부끄러운 생각까지 들어 어찌했으면 좋을지 몰랐다.

(내 생각이 좁다는것은 옳은 말이야.)

불현듯 언젠가 있었던 일이 겹쳐 떠올라서 순너는 얼굴을 확 붉히었다. 희미하게 사라져버렸던 기억이 웬일인지 새록새록 영화의 화면처럼 안겨온다. 공장에 갓 들어온 경림이가 중발머리를 모춤처럼 동이고 선반을 익힐적에 자기가 도와주던 어느날이었다. 그날 아침에 경림이는 무슨 나팔주둥이같은 것을 들고와서 순너에게 내밀었다.

《언니, 공무직장에 있는 아저씨가 만들어줬어요.》

그러나 양철판으로 만든 《나팔주둥이》에는 망치자리가 우툴두툴하게 나있었다. 순너는 감쪽하게 숙이고있는 그를 귀엽게 바라보면서 빙그레 웃었다.

《뭐예요?》

《<포금분리기>!》

《분리기라니?!》

머리를 기웃거리며 《나팔주둥이》를 들여다보던 순너는 모든것을 알아챘다. 축구명을 뿜을 때 생기는 포금밥을 《나팔주둥이》로 안내하여 따로 받겠다는것이다. 귀한 포금밥이 여느 쇠밥과 섞이는 것이 싫었던 모양이다. 순너는 이상하게 마음이 찢르르해져서 말없이 경림이를 쳐다보기만 하였다. 기특한 생각을 하고 없는 재간에 밤을 밝히면서 《포금분리기》를 만들었을 그에게 실망을 안겨주자니 딱한 일이었다. 생각에 잠겼던 순너는 그를 데리고 주물직장을 찾아갔다. 여느 쇠밥과 포금밥이 분리되는 기계앞으로 무심하게 다가서던 경림이는 얼굴이 빨개지는것이였다. 순너는 그를 못본척하면서 분리기의 기대공과 인사를 나누었다. 직장에 다시 돌아온 순너는 경림이에게 주위를 넓게 보라고 웃사람답게 타이르는것을 잊지 않았었다...

그때 생각을 더듬는 순너의 얼굴에는 심한 괴로움과 가책의 빛이 흘러가고있었다. 순너는 가늘게 한숨을 내쉬면서 어항속의 금붕어를 물끄러미 쳐다

보았다. 주위를 넓게 보지 못한다고 중발머리 정림이를 타이려주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그런 타이름을 받지 않는가.

(반장동문 자신의 체면과 작업반의 울타리속에서만 맴돌고있는 나를 옹졸한 녀자라고 치부했을거야.)

이런 생각에 젖어든 순너는 어항속의 금붕어를 보는것이 언짢아져서 슬그머니 고개를 돌리었다.

돌사이에 한동안 말이 없었다. 벽시계의 초침소리만이 침묵을 깨뜨려버릴듯이 단조롭게 울려온다.

문이 방식이 열리더니 딸애가 들어왔다. 그는 심각해진 방안의 기분에 이상한 느낌을 받았던지 오도카니 서서 경림이와 순너의 기색을 번갈아 살핀다. 그러다가 그는 근심이 어린 얼굴로 입을 열었다.

《어머니, 비가 와.》

《비?...》

경림이와 순너는 동시에 창문을 쳐다보았다. 굵은 비방울이 창문에 점점이 떨어져서는 길다랗게 흘러내리고있었다.

《비가 오는걸 몰랐구나. 학습반은 벌써 끝났니?》

경림이는 밝은 웃음을 지어보이며 영희의 손목을 잡아당겨서는 불을 끄다듬어주었다.

《아니.》

영희가 시무룩해져서 대답한다.

《그럼 왜 왔니?》

경림이가 물었으나 영희는 근심에 잠긴 빛으로 어머니만 쳐다보는것이였다.

《아버지 저녁밥은 어떻게 내가나?》

영희의 말에 순너는 얼굴을 붉히면서 밉지 않은 눈매로 그를 쳐다보았다.

공장식당이 있지만 식사를 만들어 남편에게 즐겨 내가군하던 순너였으나 작업반의 생산을 떨구고 있는 주형기계를 시답지 않게 여기게 되면서부터 곧잘 딸애를 시켰었는데 오늘도 역시 남편의 저녁밥을 영희에게 내보내려고 하였었다. 그런데 그것을 반장이 있는데서 철없이 말하는 딸애가 민망스러워졌던것이다.

《아직도 시간이 있는데 학습반을 끝내지 않으면 되니?》

두말을 못하게 하느라고 이렇게 던지는 어머니의 꾸중엔 영희는 무안을 타며 창밖만 내다본다.

《영희는 비가 오니까 걱정이 생겨서 집에 왔겠지요. 영희, 그렇지?》

경림이가 고개를 갸웃하고 묻자 그렇다는 뜻으로 영희는 머리를 까딱했다.

《영희, 걱정하지 말아, 어머니가 있잖니. 아무려

면 비가 오는데 네가 아버지 밥을 내가야 하겠니.》

경림이는 영희의 자그마하고 통통한 손을 어루만져주었다. 영희는 자기를 두둔해주고 귀여워해주는 경림이를 뻔히 쳐다보다가 창밖으로 눈길을 돌리고는 걱정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지미, 비가 많이 오면 우리 집에서 자고 가.》

《오후까지 비를 난 무서워하지 않아.》 경림이는 빙그레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언니, 이제 가 봐야겠어요.》

《저런, 이 비에 어떻게 간다고 그래요. 저녁이랑 지어먹구 비가 멎은 후에 천천히 가지.》

《아지미, 가지 마.》

영희가 경림이의 옷자락을 잡고 놓지 않았다.

《영희야, 내 이답에 또 오마. 공부를 잘해라.》

경림이는 영희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는 방에서 나왔다.

《에그 무슨 고집이...》

순녀는 진정으로 서운해하며 이렇게 중얼거리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던지 얼른 창고문을 열었다.

《자, 이 우산을 쓰고가요.》

《고마와요. 언니!》

경림이가 복도로 나서자 순녀의 마음은 별로 허전해지었다.

저녁식사를 함께 나누자고 굳이 붙잡지 않고 내보낸 것이 마음에 걸리어서 창문으로 다가가 포장길을 내다보았다. 비는 멎지 않고 그냥 한대중으로 내리퍼부었다. 경림이가 쓴 우산에서는 비물이 팔팔 흘러내리며 불빛에 번들거렸다. 경림은 얼마쯤 걷다가 돌아서더니 순녀네 집을 바라보고는 다시 걷는 것이었다. 이 순간 순녀의 마음은 이상한 감정에 젖어들었다.

《속이 깊은 너자야...》

《어머니, 아지미 참 좋은 사람이지?》

결에서 딸애가 힐끔 올려다보며 물었지만 순녀는 아무런 대답도 없이 경림이의 뒤모습을 바라보았다. 그가 시야에서 사라졌어도 그는 창문에서 물려설 줄을 몰랐다.

자기를 일깨워주던 경림이의 말이 못건디도록 가슴을 파고든다.

(주형기계를 만드는 일이 어디 아저씨 혼자에게만 한한 일인줄 알아요. 우리 직장을 위한 일이고 공장을 위한 일이고 나라를 위한 일이에요.)

작업반장인 그는 작업반의 생산이 떨어지는데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몇 곱절이나 더 가슴이 아팠겠지만 자기를 타일러주고 일깨워주며 그냥 미운 소재를 먹지 않는가.

어느새 국어책을 펼쳐두고 복습을 하는지 딸애의 글썽하는 소리가 랑랑하게 울려온다. 딸애의 공부에

지장을 주면서까지 남편의 식사를 내보낼번한 자기가 떠오르자 얼굴은 화로를 들쭉날쭉 화끈거렸다. 남편이 하고있는 시험생산때문에 작업반이 망치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과 반장을 보기가 괴롭다고 자격지심에 빠져있던 자기는 종당에는 딸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량심마저 저버린 녀자가 되고말았다.

(아,나는 정말 속된 녀자였어.)

순녀는 몸을 떨었다.

× ×

따스한 김이 모록모록 피어오르는 남편의 밥보자기를 든 순녀는 밖으로 나갔다. 극성을 부리던 비가 멎고 구름은 서서히 걷히기 시작하였다.

공장으로 향하는 그의 걸음은 가벼웠다.

신선하고 축축한 대기가 그의 가벼운 마음을 더욱 상쾌하게 만든다.

어느덧 그는 남편이 일하고있는 작업장에 도착하였다. 주형기계앞에서는 몇사람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쭈그리고 앉아서 도면을 들여다보고있었다. 주형기계의 주형틀로 흘러드는 시뵐건 쇠물의 화광이 그들을 벌겍게 비쳐대고있었다. 순녀쪽으로 등을 돌려대고 앉아있는 사람이 성환이었다.

순녀는 그들의 일에 방해가 될가보아서 남편에게로 선뜻 다가가지 못하고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얼마 지나서야 그들은 의견이 합치된 모양 흐뭇한 웃음들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선다.

도면을 말고있는 남편이 머리를 돌려주었으면 하고 바라면서 순녀는 그냥 망설이기만 하였다. 웬일인지 이곳에서 남편을 대하기가 부끄러웠던것이다.

도면을 다 말고 주형공에게 무엇인가를 지시하던 남편이 순녀를 알아보고는 싱글벙글 웃으면서 걸어왔다.

《당신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저녁식사를 가져왔어요.》

《난 또 영희가 울줄 알았지. 래일은 해가 서쪽에서 뜨려는가부지. 허허...》

성환이는 룡말을 던지면서 순녀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드는 호탕한 웃음을 꺾꺾 웃었다.

《참 당신도...》

순녀는 귀밀을 빨갱게 물들이며 곱게 눈을 흘기었다. 그 눈동자에는 상대방의 마음을 유쾌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그 무엇이 깃들어있었다. 오래간만에 보게 되는 그 빛에 성환이는 마음이 즐거워졌는지 싱글벙글 웃음을 거두지 않았다.

《내 벌써 당신이 나온다는걸 다 알았소.》

《어마나, 어떻게요?》

순녀는 처녀때처럼 수줍음을 타며 남편을 빠금히 올려다본다.

《반장동무가 우리 일을 돕겠다고 소나기가 쏟아

지는데도 찾아왔더군. 새로 개조하는 피스톤 안내실을 짚어야 한다는걸 알고는 자기가 짚겠다면서 공무직장으로 갔다오.》

《반장동무가요?!》

순너는 가슴이 몽클해지면서 눈곱이 시큰해왔다. 밥보자기를 든 손이 가늘게 떨리었다. 자기를 일깨워준 그가 집으로 가지 않고 곧장 이리로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자 저도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지다. 슬그머니 머리를 떨군 순너는 주형기계를 빨리 끝내달라는 말만은 차마 입밖에 내지 못하고 잣아드는 소리로 밥 재촉을 하였다.

《어서 식사를 하세요.》

남편이 식사를 끝내자 순너는 빈그릇들을 싸들고 천천히 걸음을 옮겨놓았다.

집으로 발길을 돌리던 순너는 공무직장쪽으로 뻗은 갈림길에서 망설이였다. 경림이가 일하고있을 그곳으로 가볼 마음이 있었으나 부끄러운감이 앞서 주저되였다.

(어떻게 할가?)

중발머리때부터 정이 든 공장이건만 기계의 동음소리도 공장의 밤풍경도 웬일인지 서먹서먹하게 안겨왔다. 외토리로 떨어져있는것 같은감이 든다. 쓸쓸해지는 마음으로 하여 속에서는 왈칵 울음이 터져나올것만 같았다. 서글픈 심정에 싸여 발길이 가는대로 터벅터벅 걸어가던 순너는 고르롭게 울리는 기계소리에 언뜻 정신이 들어서 걸음을 멈추웠다. 어데를 왔는가 하고 주위를 돌아보던 순너는 자기도모르게 흠칫 놀래였다. 공무직장출입문앞에 와섰던것이다.

불빛은 창문으로는 긴장해서 대형선반을 돌리고있는 공무직장사람들이 들여다보였다. 저속에 경림이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은근히 사람들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경림이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웬일인지 마음이 서운해진다.

(분명 이리로 왔다고 영희 아버지가 말했는데...)

순너는 창문으로 가까이 다가서서 목을 기웃거리다가 흠칫 몸을 움츠렸다. 경림이는 창문턱밑에 자

리잡고있는 바로 코앞에서 대형선반을 돌리고있었던것이다. 대형선반에서는 둥그런 원통형의 피스톤 안내실이 면판에 짹 물리여서 물레바퀴처럼 빙글빙글 돌아가고있었다.

못박힌듯 서서 경림이의 모습을 오래동안 지켜보던 순너는 눈을 둥그렇게 떴다.

《아니?! 저 동무들이?...》

작업반의 《탁구선수》들인 몸매 날씬한 두 처녀가 땅바닥에 멍석을 펴놓고는 경림이가 깎아놓은 피스톤안내실을 연마지로 열심히 닦고있었다. 그들은 서로 마주보며 생긋이 웃고는 경쟁이나 하는듯 걸싸게 손 놀린다. 주물직장의 오랜 용선로공인 박아바이도 보였다. 그는 담배물부리를 비스듬히 물고 빙글썩 웃으면서 《탁구선수》들이 닦아놓은 피스톤안내실을 불빛에 비쳐보고있었다.

순너의 눈에는 온 작업반이 다 모여온것처럼 보였다.

남편이 저런 사람들에게 떠받들려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눈곱이 뜨거워올랐다. 창문으로 쏟아져나오는 불빛은 순너의 눈에 뻗힌 이슬방울을 구슬처럼 빛내주고있다. 뜨거운 걱정이 북받쳐오르는 그의 가슴속으로는 경림이가 해준 말, 매 개인의 마음은 조국의 숨결과 잇닿아져있어야 한다고 한 그 목소리가 뜨겁게 흘러들고있었다.

커다란 내경파스에 눈금을 맞추고 고개를 들던 경림이는 창문밖에 서있는 순너를 발견하였다.

《아이 순너언니!》

경림이는 그의 두눈에서 아름답게 반짝이고있는 물기를 바라보며 가벼운 미소를 짓다가 밖으로 뛰어나갔다.

《언니, 왜 이렇게 서만있어요.》

《정말 반장동무 불빛이 없어요.》

《언니 뭐, 어서 들어가자요.》

하는 경림이의 말이 구령이라도 된듯 정문앞의 역전쪽에서는 기관차의 세찬 기적소리가 울려왔다. 아마 북방으로 향한 짐차인 모양이였다.

## 설봉의 이야기

김원복

랑림산줄기를 따라 남쪽으로 해발 1,200미터도 훨씬 넘게 아슬하니 솟은 설봉산!

멋없이 피었던 꽃도 멋없이 스러지고 물소리도 철늦게야 얼마간 들려오는 구름우에 솟은 설봉!

설봉산의 이름없는 한 지점에서는 어느때부터인지 지질탐사대원들의 랑만에 찬 생활이 진행되고있었다.

호랑이도 발붙이기를 저어하는 험준한 산발, 아침부터 오르던 안개까지도 힘겨워선지 중턱에서 스러지는 그 산봉우리에서 공업의 척후병들인 지질탐사대원들이 주체적인 탐사법을 도입하여 새로운 광석줄기를 찾아냈다.

그들의 놀라운 투쟁과 그속에서 꽃피난 아름다운 이야기들은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해재기골의 차거운 물소리와 이름모를 산새들의 우짖음만 들려오는 산상봉에서 한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닌 기나긴 나날을 오직 새로운 유색금속광석줄기를 찾고저 모든것을 바쳐가는 탐사대원들의 노력투쟁은 참으로 놀랄만한것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 새로 찾은 광석줄기의 매장량을 계산했다는 보고를 올리기전에는 설봉이 내려앉아 바다밑이 되데도 그곳을 떠나지 않겠다고 결심한 그들이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채취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지질탐사 사업을 앞세워야 합니다.》**

설봉의 지질탐사대원들은 채취공업의 최후병이라는 긍지를 안고 온갖 어려움과 고생도 이겨내면서 억세게 싸워간다.

× ×

그 언제나 눈속에 묻혀있는것 같다고 하여 설봉, 바라보면 불수록 낮설다고 하여 설봉, 설봉은 참으로 높다.

그러나 높은 설봉에도 제철이 제철이라 겨우내 고삭아버린 풀그루밑에서는 봄의 온기를 마신 풀들이 파르끼레한 새순을 내밀었다. 양지바른 룡선과 벼랑에도 진달래가 떨기떨기 피어났다.

소담하게 피어난 진달래꽃나무사이로 두 청년이 성큼성큼 걸었다. 지질망치를 한손에 들고 지질도를 들여다보는 청년은 지질기사 김정원이다. 그는

경중한 키에 두어깨가 암벽도 밀어낼듯이 넓고 단단해보았다. 그의 둥글한 얼굴이며 번듯한 이마는 철색으로 번들거렸고 탐구심이 짙은 두눈은 밝은 정기로 빛났다. 그의 뒤를 따르는 배낭을 멘 청년은 시료채취원 박동무이다.

《박동무, 파쇄층의 시료를 따시오.》

김정원이 고개도 돌리지 않고 소리치자 시료를 따는 박동무의 망치질소리가 딱딱 하고 들렸다.

《어허허-어!》

이때 린접을 조사하는 동무들이 위치를 알리는 고함소리가 울렸다. 그 목소리는 우악스럽게 짜부러든 절벽을 따라 깊은 골짜기로 산울림이 되어 길게 울리다가 부드러운 대기속에 찾아버렸다.

《어허허-어!》

박동무가 두손을 말아서 입에 대고 마주 소리쳤다.

《차한배동무지요?》

《웁소. 그들도 파쇄층을 따르는것 같소.》

《그러니까 이 파쇄층의 연장선을 따라야...》

박동무가 김정원의 곁으로 다가와 말했다.

《웁소. 광석줄기의 연장선이 파쇄층에 있는만큼 아무래도 시추기를 여기로 옮겨와야겠소.》

《아니 여기야 설봉꼭대기의 벼랑이 아님니까?》

《그렇소.》

《여기다 시추기를 어떻게...》

《문제는 그걸 연구해내야 하는거요.》

김정원은 놀랍게 바라보는 박동무에게 이렇게 말하며 지질도를 접었다.

그들은 파쇄층을 따라 내려가기 시작했다....

김정원은 여러해동안 설봉에서 탐사사업을 하던 끝에 이제는 더 이상 탐사할 아무런 가치도 없다고 결론이 내려질무렵, 새로운 유색금속로두를 발견하였다.

이것은 탐사중대원들에게 새로운 신심을 안겨주었다.

탐사대에서는 이 로두가 어떤 전망성을 가졌는가를 확정하였고 곧 매장량계산을 위해 이미 해발 800미터높이에 탐광갱도를 뚫기 시작하였다. 이 탐광갱도에서는 그 어느 지점에서든지 광석줄기와 맞닿으면 1,200미터의 설봉에 나타난 로두와 련결시켜볼수 있을것이었다.

그런데 지금 조사결과를 분석해보면 광석줄기가 그 어느 지점에서 찍지발처럼 갈라지겠는데 그 지점을 알수 없는것이였다. 김정원은 이것을 땅끓김 구조로서 론증했다. 그러나 일부 기술일꾼들은 지금 땅끓김구조처럼 보이는것은 거짓충이라고 반증하였다. 여기에 현실적인 자료를 가지고 반증의 부당성을 증명하지 못한 안타까움이 그를 괴롭혔다.

(땅속을 환히 들여다보는 그런 눈을 가질수 없단 말인가...)

이런 고민속에 모대길 때 일부 일꾼들은 모임에서 앞으로의 탐사전망은 열어놓았으니만큼 지방탐사대에 넘겨주는것이 어떻겠는가고 의견을 제기하였다.

김정원은 주먹을 부르쥐고 웨쳤다.

《모대체 어쩌자는겁니까? 쉬운것은 내가 하고 힘들고 시간이 걸릴것은 남에게 넘겨주고...》

김정원은 억이 막혀 말이 나가지 않았다. 당적량심을 가지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단말인가... 탐사일을 그저 직업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안될것이였다. 그 누구도 보지 않는 산속에서 깨끗한 량심을 가지고 충성의 고인돌을 쌓아 조국을 받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탐사대원들이 아닌가.

탐사대원들은 그 누구의 평가를 바라서 일하지 않는다. 남들이 보는데서 평가를 바라고 발휘하는 열성은 충성심에서 나오는것이 아니다.

김정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우리가 그런 량심을 가지고 일해왔다면 오늘의 기회를 통해서 자기자신의 일생의 총화도 랭혹히 지어보아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의 말은 탐사대원들에게 강한 충격을 주었다.  
...

김정원은 기어코 이 문제를 풀려고 오늘도 이렇게 설봉에 올랐던것이다...

그들은 해재기팔에 들어섰다. 탐사대천막이 뻗히 바라보였다. 그런데 마당에는 무슨 경사가 났는지 동무들과 보지 않던 사람들이 모여서서 웅성거리고 있었다.

《무슨 일 일까요?》

박동무가 놀라운 눈으로 두리번거리며 물었다. 정원이라도 알수 없었다.

이때 차한배가 정원과 박동무를 향해 빨리 오라고 손질하며 달려왔다.

《무슨 일인가?》

김정원은 차한배를 뻗히 쳐다보았다.

《동무들은 무슨 자유주의가 그리 많은가? 동무들을 얼마나 기다리는지 알아?》

《왜?!》

《왜가 뭐가, 우리 가족들이 축하단을 무어가지고

왔단말일세!》

《뭐?!-》

정원과 박동무는 어안이 병병했다. 그들은 중대부쪽으로 달려갔다. 거기에는 가족들이 모여서서 웃고 떠들었다.

《아니 여보?》

김정원은 자기 안해를 보았다. 참말로 감격적인 상봉이였다. 저저마다 축하와 인사를 받으며 돌아갔다. 반갑고 기쁘고 즐거웠다.

(이 설봉에서 가족들과 만나다니...)

뜻밖이였다. 알고보니 새로운 로두를 발견하고 그 매장량을 계산하고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족들이 축하단을 조직해왔던것이다.

김정원은 가슴이 울렁거렸다. 아직은 축하를 받을 만한 일을 못하였는데 무슨 면목으로 나서겠는가. 오히려 얼굴이 뜨끈뜨끈해왔다.

이윽해서야 그는 안해에게로 다가갔다. 그의 안해 리춘실은 처녀시절의 그때처럼 얼굴이 홍당무빛이 되어 방실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축하해요!》

《수고는 뭘, 부끄럽소.》

설봉은 설레였다. 산새들도 춤추며 노래부르는듯 천막우로 날아며 지종땀다. 설봉의 온갖 짐승들도 어느 바위등결이나 숲속에서 희한한 이 광경을 넋없이 바라보리라...

그날 가족들은 현장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자기들이 준비해온 예술소조공연도 하였다.

김정원은 안해와 나란히 앉아 조용히 속삭이고 있었다.

《매장량을 빨리 계산하자면 시추기를 설봉으로 끌어올려야 하오.》

《그 높은데로 어떻게...》

《방법이 있겠지.》

《당신이?!》

춘실은 남편이 그런 큰 심장을 가지고있는줄은 아직 몰랐었다. 설봉에서 로두를 발견한 남편의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이 떡방아처럼 쿵쿵 찢어 건딜수 없었다. 그래서 가족축하단이 묶어질 때 제일 먼저 나섰다. 이렇게 와보니 남편은 또다시 놀라운것을 생각하고있지 않는가. 춘실은 자기도 무엇을 해서라도 돕고싶었다.

《꼭 성공하리라 믿어요.》

춘실은 더 다른 말을 찾을수 없었다.

가족들은 그날 늦어서야 설봉을 떠났다.

달빛이 밝게 흐르는 밤이였다. 천막의 피창으로 류달리 밝은 달빛이 고요히 흘러들었다. 세상만물이 고요속에 잠드는 이 시각, 탄광갱도에 보내는 압축기의 동음이 해재기팔을 은은하게 흔들었다. 굴

뿔기중대천막에서는 하모니카반주에 맞추어 누군가 노래를 부르고있었다. 어느덧 노래는 중창으로부터 합창으로 변해갔다.

부엉이 울음소리만이 들리던 산속에서 벼랑을 오르며 어려운 전투를 벌려온 탐사대원들이지만 한자리에 모여있으면 오락회도 벌리고 경기도 곧잘 하곤하였다. 이것이 탐사대원들의 생활이며 랑만이다.

정원은 노래소리에 이끌리듯 자리에서 일어나있었다.

그들의 노래는 새로운 로두를 발견하려고 험난한 길을 걸어온 자기들의 긍지를 소리소리 웨치는것처럼 들렸다. 그러나 그들도 자만하지 않았다. 새로운 광체에 대한 매장량을 계산하기 위하여 방도들을 모색하였으며 기술자인 자기를 믿고 얼굴을 쳐다보는것이다.

(동무들은 나를 지켜본다. 나는 무엇을 하고있단 말인가. 하루하루 이렇게 보내면 언제... 아!)

얼굴에 웃음발이 가실줄 몰라 인상좋은 사람으로 알려진 김정원을 지금 누가 본다면 아마 펄쩍 놀랄것이다. 그의 얼굴은 일그러져있었다.

《오늘은 자지 않겠나?》

옆자리에 누운 차한배가 물었다. 덤덤히 앉아 담배를 꺼내물던 김정원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자기 일을 못다한 우리가 가족들의 축하를 받구, 얼굴이 뜨겁네.》

《콩밭에 가서 두부를 찻누만.》

《차동무! 맘편히 있을 때가 됐나? 그래서 나는 시추기를 끌어올리자는거네.》

《어떻게?!》

차한배도 일어나 앉으며 반문했다.

《결론은 명백한데 그게 문제네...》

《권양기라도 있으면 우에서 끝수 있겠는데...》

《삭도를 놓자고 박동무도 말하더군.》

《그러면 더욱 훌륭하지.》

《그런줄 누가 모르나, 권양기는 어데 있으며 삭도설비는 어데서 당장 구한단말인가. 그것이 해결되기를 기다리자면 언제까지나...》

《그럼 둘러메고 올라가겠나?》

《그게 가장 빠른 길 같네.》

《.....》

김정원은 담배를 깊숙이 빨아서는 폐부속으로 연기를 몰아넣었다가 입과 코로 시원스럽게 쭉 내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광량계산을 물어주신다고 생각해보라구. 조건이 마련되지 않아 아직 못했습니다 하고 보고드리겠나?》

...심장이 편다면 할수 있다고 보네.》

차한배는 여전히 말아 없었다. 자기가 하는 일을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시고계신다고 생각할 때 참말로 무슨 면목으로 보고를 드리겠는가... 자기일을 그런 높은 경지에까지 생각하고있는 김정원이 돈오 보였다. 그렇지 못한 자신을 정원이앞에서 차라리 자비판을 해야 마음이 개운할것 같아서 머뭇거리는데 밖에서 발자국소리가 들려왔다. 곧 천막안에 들어서는 사람이 있었다.

두사람은 일시에 얼굴을 돌렸다.

《저...》

《무슨 일이요?》

《한메터가량의 폭으로 파쇄층이 나타났다가 없어졌습니다.》

김정원은 가슴이 철렁했다. 차한배도 놀라운 눈으로 정원을 바라보았다.

파쇄층이 벌써 나오다니? 그런데 그것이 또 없어지다니? 탄광갱도는 이제 300메터밖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렇다면 지질조사를 잘못했단말인가? 혹시 광체를 품은 파쇄층의 밑뿌리가 드러난것인가... 김정원은 옷을 걷어입고 탐광갱으로 달려갔다. 작업하던 동무들이 갱밖에서 담배들을 피워물고있었다.

김정원은 파쇄면을 유심히 살펴나갔다. 파쇄층에서 석수가 끊임없이 쏟아졌다. 간데라불을 비치여 나가면서 지질도면과 맞추어보았다. 불빛에 그림자를 던진 그의 손은 가늘게 떨리고있었다. 차한배는 지질구조의 린점을 확인하고있다.

김정원은 드디어 허리를 펴며 동무들을 둘러보았다.

《이미 조사한 지질구조는 틀림없소. 이 파쇄층은 거짓이요. 파쇄맥에서 가지가 뻗은 지맥이요. 기본층이 아직 나오지 않았소.》

탐사대원들은 정원을 지켜보고있었다. 그들의 눈동자마다에는 불안과 근심의 빛이 흐르고있었다.

《탐광굴진을 계속합시다.》

이 말이 떨어지자 당비서가 착암기를 불안고 석수가 쏟아지는 마구리에 다가서는것이였다.

나이보다 더 늙어보이는 길쭉한 얼굴이며 탄력있는 팔뚝, 리해와 인정이 깊은 눈매, 말보다 실천으로 앞장서고 동무들을 이끌어가는 당비서였다.

김정원은 당비서의 손을 덥석 잡았다.

《기사동무, 근심마오.》

(고맙습니다.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는 길에서는 한결음도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김정원은 당비서의 뜨거운 마음앞에서 굳은 맹세를 다지였다. 그는 착암기를 잡았다.

《압축기를 돌리시오!》

갱안은 다시 설레이기 시작하였다. 광차들이 쉼

새없이 나들었고 착암기는 남포구멍을 더 깊숙이 뚫었다. 전투는 매우 치열하였다...

...그로부터 또 며칠이 지났다. 탐사중대기술협의회에서는 김정원의 발기대로 시추기를 설봉으로 끌어올릴것을 결정하였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추기를 세로막으로 분해하여놓고 그 하나하나를 45도의 경사지로 대담하게 끌어올리기 위한 구체적인 작전을 짰다.

이 소식을 들은 지방당 정권기관 일군들과 탐사단 행정일군들이 설봉에 나타났다. 그들속에는 녀성들도 있었다. 거기에는 김정원의 안해 리춘실이와 차한배의 어머니가 끼여있었다.

《아니 어머니가 어떻게?...》

차한배의 어머니 오향숙이가 자기 아들과 정원의 손을 잡고 반갑게 흔들며 말했다.

《왜 내가 못올데를 왔나? 그런데 이사람 그럴법이 어디 있나?》

《무슨 말씀인지...》

오향숙은 정원의 안해 리춘실이가 자기를 알리지도 않고 지난번에 여기를 왔다간데 대하여 나무랐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내 이번에 60뽕생일상을 차리던걸 모두 걷어가지고 돌격대원으로 왔네.》

《아니?! 뭐라구요?》

두사람은 눈이 켜해졌다.

《중대장어른한테 다 승인받았다니...》

《어머니! 정말 잘 생각하셨습니다.》

차한배는 눈곱이 뜨거워 고개를 돌렸다. 김정원도 가슴에 뜨거운것이 맺혀 아무말도 못하였다.

《우리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자네들이 매장량을 계산하면 큰 광산을 세우시려고 원대한 구상을 하고계신다는 말을 들었네. 그런데 내가 늙었다고 가만히 있어야 옳겠나. 내야 자네들의 어머니가 아닌가...》

김정원은 오향숙의 말을 듣고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우리의 충성심이 이렇진대 무엇인들 못하겠는가. ...

작업은 시작되었다. 시추기의 토막된것들을 앞에서는 끌고 뒤에서는 어깨로 밀어서 올리기 시작했다. 가족돌격대원들은 관들과 활자 그리고 보조부속들을 날랐다...

이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었다. 산상해도 상상봉, 그 무엇도 깃들일수 없고 그 누구도 오를수 없다던 구름만이 섭도는 설봉꼭대기로 시추기를 끌어올린 것이다.

그들은 설봉에서 여섯개의 시추구멍을 정하고 작업을 할수 있게 하였다. 이제 그것이 탐광경도와 맞다면 광석줄기의 연장을 따라 매장량을 계산하게 될것이였다...

위훈으로 빛나는 날들은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수놓으며 즐기치게 흘렀다.

드디어 설봉에서 내리 뚫는 시추기가 탐광경도와 맞다들 시각이 왔다.

방금 채취한 시료에서 광석줄기와 맞다들었다는 소식이 날아들 때 탐광경도에서는 요란한 발파소리가 설봉의 밑뿌리를 흔들었다놓았다.

탐사대원들은 앞을 다투어 갭안으로 달려들어갔다. 갭천정에서 물이 쏟아져내린다.

《시추구멍이다!》

누군가가 웨쳤다. 그들은 돌가루물이 온몸에 들썩워져도 좋았다. 저저마다 시추구멍을 만져보고는 환성을 질렀다.

《만-세!》

만세의 환호소리가 막장으로부터 방에까지 흘러나왔는데 그 속에서 사람들의 목마에 떠받들리운 김정원기사가 당황하여 어쩔바를 몰라하고있었다.

이렇게 설봉은 오래고 오랜 잠에서 드디어 깨어났다.

× ×

새로운 광석줄기에 대한 매장량을 계산했다는 보고를 받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 동무들이 산에서 고생도 많이 하고 수고도 많았다고 하시면서 친히 인사를 전하여달라는 부탁을 보내주시였다.

탐사대원들과 그 가족들은 뜨거운 감격의 파도속에서 새날의 맹세를 다지고 또 다지였다.

그들이 개척한 설봉에 새로운 광산이 들어앉을 날도 멀지 않았다. 그날의 광산마을사람들은 이곳 탐사대원들과 그 가족들의 충성의 열도를 다는 모를것이였다.

그래도 그들은 좋았다. 그들의 무한한 충성의 깊이는 천길 땅속에 비길바가 못되며 그 열도는 용암에 대비도 안된다. 그들은 화려한 꽃다발도, 명예도 바라지 않는다.

오직 어버이수령님께서 바라시는대로 천길 땅속의 보화를 한눈으로 들여다보고 찾아내면 그만이다.

그들이 수없이 걸어가는 길우에는 끝없는 영광이 빛나고 거기서 우리 나라의 새로운 채취공업기지가 숲처럼 생겨나는것이다.

설봉이여! 아름다운 래일에 수천수만년의 긴긴 잠에서 깨워준 탐사대원들의 오늘의 이야기를 길이 간직하라!

## 봄은 한껏 질어가고

백의선

산촌도 한껏 봄단장하였는가  
새도 꽃도 한창인 연풍호기슭을  
수령님께서 걸으시네  
산너머 농장의 한 로인과,

마을의 일군, 로인의 미더운 모습을  
수령님께선 다정히 바라보시고  
이 좋은 봄, 이 좋은 날  
수령님께 휴식을 드리고싶은  
간절한 소망에 불타는 로인  
경건히 발걸음을 옮기고

가없는 호수우엔 신기한 물새소리  
파아란 풀숲에는 청신한 봄꽃향기...  
오로지 그이께 기쁨을 드리련듯  
산촌도 고요히 설레이는데  
로인의 어깨우에 두손을 얹으시며  
수령님께선 말씀하시네

당이 내놓은 지하수혁명방침을  
다들 와서 배워가도록  
우물 하나 파야겠다고  
와새골 발머리가 좋을것 같은데  
래일 함께 나가보자고

한없는 영광에 설레이는 로인의 가슴  
부드러운 봄바람이 휘저으며 흔드는가  
그 무슨 딱한 일 생긴듯  
조심히 올리는 로인의 대담

-수령님, 래일은 쉬자고 합니다  
농장에서 다들...

아버이수령님 바라심이라면  
산이라도 옮겨놓을 그 로인  
어인 일인가

수령님의 크나큰 말씀앞에...

놀란듯 새들은 내려치며 날으고  
묻는듯 꽃들은 다소곳이 머리숙이고  
깊은 물속에 묵묵히 가지를 드리운  
오랜 버드나무 생각에 잠겼네

문득 기슭을 흔드는  
수령님의 호탕한 웃음소리 웃음소리...  
-그렇게 하오, 쉬도록 하라구  
나도 래일은 여기서 쉬겠소

산새들 물새들 다투어 우짖네  
꽃숲은 설레며 질은 향기 풍기네  
로인의 주름 덮인 얼굴에  
아이처럼 천진한 웃음이 함뿍  
그제야 가버워진 로인의 마음

연풍호의 푸르른 언덕  
아버이수령님께선  
농장의 로인과 천천히 거니시고  
봄은 한껏 질어가고...

새날이 밝자  
흥겨이 샅 한자루 둘러메고  
들로 나온 그 로인  
문득 놀라 바라보았네  
아침노을 비낀 와새골 발머리에  
먼저 나와 계시는 아버지수령님

-아 수령님께서...!!

발머리 샘물가로  
로인은 허둥지둥 달려오고  
두렁길 뚫으시며  
아버이수령님 마주 오시고



-어쩐 일이요

오늘은 쉬라고 하지 않았소

-수령님!

오늘이야...!-

로인의 두볼에는 뜨거운 눈물이

수령님의 어깨우엔 찬 이슬이

소리없이 흐르는 이 아침

단 하루라도

수령님께 휴식을 드리고싶던

로인의 마음 수령님 어찌 모르시었으랴

첫새벽 푸른 들길이

세상에 더없이 즐거운 길이신듯

이 봄의 아름다움 거기서 다 보시는듯

환히 웃으시는 어버이수령님.

샘물속에 고요히 해빛이 어리고

그이의 크나큰 웃음이 비껴

봄은 한껏 아름답게 질어가고...

아, 그날은 누리에 해빛도 눈부신

4월 15일이었네

## 들에도 수를 놓아간다오

윤명숙

봄을 신고왔나

봄노래를 신고왔나

한껏 푸르려가는 벌도

함뼉 웃음에 취한듯

처녀들의 봄노래에

꽃구름 피어나는 땅

아득한 벌우에

방직공 나는 모를 낸다오

정방차에 앉아서

은실금실 무지개를 늘이듯

모내는 꽃수레를 몰아간다오

한바퀴 기대를 도는 사이

비단꽃이 피어나듯

또 한배미 모내는 꽃수레를 몰아가면

춤추는 벼포기들 수놓아져

푸른 주단 끝없이 펼쳐진다오

황금물결 비단우에 수놓던

비단짜던 그 마음 그대로 안고와서

이랑이랑 천리벌에 수놓으니

나를 반겨 봄꽃들이 다투어 피고

풍년새도 정답게 날아든다오

그 어디에 시작을 두었나

그 어디에 끝을 두었나

나의 일터는

비단공장 농장벌 하나로 잇닿아

가도가도 끝이 없는 행복의 물결

아득한 지평선에 봄무지개 폈다오

아, 조국땅 넓고 넓은 일터

어데 가도 좋아

수령님 해빛아래 꽃피는 행복

들에도 비단에도 수놓아가오

꽃수레를 타고서 모를 낸다오

어버이수령님 공장에 오시면

언제나 비단꽃을 피워서

꽃비단을 수놓아드리던 마음

농장에 오시는 수령님께

황금바다 펼쳐드리고싶어

꽃수레를 몰아가는 내 마음속에

황금가을이 무르익어간다오

풍년파도가 출렁인다오

# 온 마을의 이름으로!

김룡길

-잘 싸워라, 원진아!  
-꼭 이기고 돌아오너라!

한사람의 이름이었다  
부모와 이웃들의 당부를 안고  
정다운 사내가 징검돌을 건너  
밭목에 감겨들단 앞장서는 누렁이를 쫓아보내며  
산촌에서 자란 청년  
전선으로 떠날 때에는

지주집 황소고삐 대신  
배움에 굶주렸던 손에 연필이 쥐여졌을 때  
장군님 은혜에 목메어올며  
그때로부터  
키보다 큰 새 지게 대신  
어깨우에 메워진 책가방의 무게에서도  
조국이 귀중함을 가슴깊이 간직하였기에  
두살이나 나이 불귀 기어이 총을 메고 떠날 때에는

한사람의 이름이었다  
불뼉은 얼굴에 애티가 피어나도  
원쑤에 대한 증오는 하늘에 닿던 병사  
고리 뽑은 수류탄으로 량손에 포승지워  
키다리 미군놈을 몰고왔을 때  
원진이가 전보대를 《모셔》왔다고  
화선에 웃음피던 그 저녁에도...

아, 노도처럼 내닫던 진격로를 열어  
총창이 휘도록 원쑤를 쓸어눕히고도  
조국이 준엄했던 순간  
온몸이 황황 타는 불덩어리되어 미제를 친  
영웅이여!

## 《원진리》

온 마을의 이름이었다  
부모와 이웃들의 당부를 안고  
조국을 지켜, 고향을 지켜  
마지막 피한방울까지 다 바쳐 싸워 이긴 영웅  
살아있는 이름으로 고향에 돌아올수 있었던 때에는

어린시절 눈에 익은 구룡진 언덕마다  
붉게 익은 과일에 그의 미소 비끼고  
웃음속에 밝아보던 산과 들  
휘늘어진 이삭들이 그의 숨결로 끝없이 설레는  
승리한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는

온 마을의 이름이었다  
한목숨 서슴없이 바쳐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을 다하였기에  
한생 불리울 이름이  
세월과 더불어 영광속에 길이 빛날  
조국땅의 이름이었다!

##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결성 20 뚝에 즈음하여

오늘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전체 근로자들과 함께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 결성 20뚝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지금으로부터 20년전인 1959년 6월에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을 지침으로 하여 문예동이 결성된것은 총련의 애국사업발전과 재일조선문학예술인들의 생활에서 획기적전환의 길을 열어놓은 역사적사변이었다. 문예동은 지난 20년간 총련의 지도밑에 주체적이며 애국적인 문예활동을 벌리어 각계각층 재일동포들을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고 사회주의조국에 끝없이 충직하도록 교양함으로써 빛나는 업적을 쌓아올렸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총련은 원수들의 파괴암해책동이 걸음마다 뒤따르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조국과 민족앞에 지닌 숭고한 애국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참으로 많은 일을 하였으며 조국의 통일독립과 인민의 자유해방을 위한 우리 민족의 영광스러운 투쟁력사에 길이 빛날 고귀한 업적을 쌓아 올렸습니다.》**

총련이 조국과 인민앞에 쌓아올린 빛나는 업적 가운데는 문예동이 기여한바도 적지 않다. 문예동은 위대한 주체적문예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문예활동을 벌려 조국의 문학예술력사를 더욱 풍부히 하는데도 이바지하였다.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지난 20년간 문예동이 온갖 썩어빠진 반동적문예사조들이 타류처럼 밀려드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추호의 동요도 없이 총련의 제반애국과업수행과 조국의 문학예술의 보물고를 빛내이는데 크게 이바지한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그들에게 뜨거운 동포애적인사를 보낸다.

잡지 《조선문학》편집부는 문예동 결성 20뚝에 즈음하여 사회주의조국을 방문했던 재일본조선문학예술일군대표단 작가들의 작품을 편집한다.

이 몇편의 작품을 통해서도 우리들은 재일동포들의 가슴속에 불타고있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뜨거운 경모의 정과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옹호하며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그들의 보람찬 투쟁모습을 생동하게 엿볼수 있다.

문예동작가들의 이러한 애국적인 창작활동은 조국의 문학예술력사에 길이 빛날것이다.

우리는 문예동이 앞으로도 온갖 민족허무주의와 사대풍조를 건결히 배격하고 주체적문예사상을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총련의 애국과업실현과 우리 나라 문학예술의 풍부한 화원을 더욱 다채롭게 장식하는데 크게 이바지하리라는것을 믿어마지않으며 그들의 창작활동에서 보람찬 성과가 이룩되기를 바란다.

**-편집부-**

# 아, 《만경봉》 호

## 서 목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란간에 불을 비비었더냐  
저 배전을 어루만지며 목메었더냐  
아, 《만경봉》 호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배여

《만경봉》 호  
아, 어버이사랑의 품이어  
이 품에 안기여 넘고넘은 파도는 얼마였으며  
이 품에 안기여 크나큰 조국의 영예에 울며  
부모형제와 민족상봉의 뜨거운 눈물로  
가슴적신 나날은 또 얼마였더냐

이 사랑의 배길을 열려고  
그날에 원쑤와 맞서 싸우며  
뼈라뿌리는 어머니 등에 업혀  
불벌속에서 눈석임속에서 울던 어린것들이  
이역만리에서도  
위대한 수령님의 해빛속에 자라  
오늘은 무용수가 되고 음악가로 되어  
조국으로 간다

끝없는 투쟁의 낮과 밤  
서명과 시위로 걷고 걷고 걸은 길과 길  
해진 신발은 또 얼마였더냐  
말을 고르고 붓끝을 버리며 싸우던  
그날의 간고한 투쟁을 가슴에 새기는가  
안겨준 크나큰 영예에 목메이는가  
푸르른 조국의 바다를 지켜보는  
작가와 미술가들...

우리 어찌 잠을 자라

설레이는 가슴 누를길 없어  
뜬눈으로 우리  
감관에서 밤을 샌다

덮었던 구름 말끔히 가서지고  
부는 바람마저 훈훈한 이 아침  
보름새벽달은 아직 하늘에 남아  
잔잔한 물결우에 흔들리는데  
아, 배가 솟는다  
조선의 아침 해가...

하늘과 바다우에  
둥근 해와 달이  
서로 불안고  
축복을 주는가!

이역의 찬이슬과 눈서리 밟으며  
싸우고 싸워온 그 모든 보람이  
이 순간을 위하여 있는것인가  
세찬바람 억센 파도 헤쳐온  
그 모든 싸움의 승리가  
이 순간 이 기쁨으로 펼쳐진것인가

조국이어  
그대의 가장 큰 기쁨으로  
우리의 심장 뛴다  
조국이어  
우리는 가장 큰 행복을 안은  
그대의 품에 안긴다  
아, 《만경봉》 호 사랑의 배전에 불을 비비며  
우리는 달려왔노라  
조국이어, 조국이어

## 가장 귀중한것

소영호

## 1

아침밥을 먹은 조봉우는 입을 다시면서 현관으로 나왔다.

그는 현관옆에 있는 응접실에 들어가서 폭신한 의자에 올방자를 틀고앉았다. 그리고는 윤기가 아른거리는 알루미늄창문틀이며 갓 도배질한것 같은 합성수지의 무늬벽이며 일본의 이름있는 한 산마루에 아침해가 돋는 풍경화를 흐뭇한 눈길로 둘러보았다.

《이만하면 응접실도 괜찮아.》

이렇게 혼자소리로 중얼거리는 그의 등그스름한 얼굴에는 자족의 웃음이 떠올랐다.

그런데 탁자우에 있어야 할 아침신문이 보이지 않았다. 그는 일터에 나가기전에 신문을 보는것이 습관으로 되고있었다.

《여보 뭘하고있어?》

조봉우는 엄청나게 큰소리로 안방에서 설것이를 하고있는 안해를 부르고는 올방자를 틀었던 다리를 앞으로 뻗치고 바로앉았다. 보통보다 키가 좀 작은 편인 그는 의자등에 기대려면 다리가 들리기 마련이었다.

안해가 물묻은 손을 앞치마에 문대며 급히 들어왔다.

《아이참 오늘은 별나게 큰소리로...》

조봉우는 탁자우에 두손바닥을 펼쳐보이면서 《신문》 하고 오늘은 어찌된 일이냐는듯이 안해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아이, 내 정신 좀 봐.》

안해는 깜빡 잊었다고 부산을 떨면서 잦은 걸음으로 달려가 현관밖에 걸려있는 우편함에서 신문을 빼여다가 《자요》 하며 탁자우에 놓았다.

조봉우는 경제란을 펼쳐들고 훑어보다가

《중소기업회사들이 또 무리로 도산했군.》 하고 상고머리를 굽적거리더니 안해더러 들으라는듯이 자랑처럼 말을 이었다.

《그렇지만 우리 일은 괜찮아, 우리가 거래하는 건축회사는 이 불경기속에서도 일감이 많으니까. 그 회사와 거래를 맺은것이 천만다행이야. 이번에 맡은 전기공사를 하게 되면 한몫 단단히 벌게 될게고 지난날 공사비도 좀 늦어지긴 했지만 래일받기로 했거던...》

얼굴에 기쁜 웃음을 가득히 띠운 조봉우는 금시

코노래라도 흥얼거릴것 같은 유쾌한 기분이였다. 그럴만도 한 일이었다. 근년에 불경기가 계속되는 바람에 사방에서 아우성이 일어났으나 운수가 좋아서인지 아니면 그가 머리를 잘 쓴 탓이었는지 아무튼 조봉우의 청부업은 그자신도 이상하게 여겨지리만큼 순풍에 돛을 단것처럼 잘 되어나갔다. 그리하여 해마다 생활이 편이여 지난해에는 이곳에 이층짜리 기와집까지 짓고 이사를 온것이였다.

귀신에게 떡소리를 한다고 그렇지 않아도 집안치장, 옷치장에 부쩍 열을 올리고있는 안해는 남편의 자랑에 귀가 솔깃하여 조봉우옆에 다가서며 응석을 부리듯 말했다.

《여보, 이번 공사비를 받으면 전번에 말씀드린걸 사도 괜찮지요?》

《당신한테 돈소리를 하기가 무섭구만.》

조봉우는 불부은 소리를 하며 안해를 흘려보았다.

《아이참, 남들은 다 철을 앞질러 양복을 맞춰입잖아요. 나도 새 양복을 맞춰야겠어요.》

《돈이 생겼다고 망탕 쓰면 되오? 아끼구 또 아껴써야지.》

조봉우의 《훈시》에 안해는 금시 뽀로통해지며 고시랑거리였다.

《당신은 정말... 내가 뭐 나만을 위해 옷치장을 하자는줄 알아요? 당신의 체면을 세우자구 그러는게지.》

《됐소, 됐소, 당신 마음대루 하구려.》

조봉우는 성가시다는듯이 한손을 내저으며 자리에서 움쭉 일어났다.

《호호호... 당신두 참.》

남편을 항복시킨 안해의 해사한 얼굴에는 기쁜 웃음이 남실거리였다.

《계십니까?》

별안간 현관문밖에서 주인을 찾는 소리가 들려왔다.

순간 안해의 얼굴에 피었던 웃음이 걷히고 조봉우도 자리에 도로 주저앉아버렸다.

《계십니까?》

다시 밖에서 찾는 소리가 나자 안해는 얼굴을 찡그리더니 조봉우에게 낮은 목소리로 소곤거리였다.

《또 왔어요. 총련분회장말이에요.》

《아 그 김창수라는 사람? 없다고 그래 없다고.》

《당신이 나가서 다시는 오지 말라고 해요.》

조봉우는 짐짓 눈을 부라리고 안해를 쏘아보며 먼도자리가 새파란 아래턱을 찡긋거리었다.

《제십니까?》

또 밖에서 찾는 소리가 났다.

《참 시끄러워 죽겠네.》

조봉우의 눈총에 할수없이 찌뿌둥해서 현관으로 나간 안해는 현관문에 난 콩알만한 구멍으로 찾아온 사람을 내다보았다. 틀림없는 그 사람-김창수라는 분회장이었다. 오늘도 수수한 노동자의 옷차림이었다. 해월에 탄 검실검실한 얼굴에서는 사려깊은 눈이 현관문을 이윽히 지켜보고있었다. 안의 대답을 기다리고 서있는 그의 표정에는 조금도 언짢아하는 기색이 없었다. 보매 침착하고 마음씨도 무뎠던 사람같았다.

조봉우의 안해는 찾아올 때마다 그에게 문도 열어주지 않고 박절하게 쫓아보낸 일이 어쩐지 마음에 걸렸으나 이번에도 그렇게 할수밖에 없었다.

《주인은 나갔습시다.》

《내가 만나고싶다는 말은 했습니까?》

안해는 어떻게 꾸며냈으면 좋을지 몰라 입을 다물고 잠자코 있었다.

《저녁엔 몇시나 돌아옵니까?》

《모릅니다.》

《집에 들어오는건 틀림없지요?》

《.....》

안에서 대답이 없자 김창수는 잠시 무슨 생각에 잠겼다가 현관문에 대고

《그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하고는 돌아서서 성큼성큼 걸어나갔다.

안해는 호 안도의 숨을 내쉬고 응접실에 되돌아와 신문을 뒤적거리고있는 조봉우에게 지청구를 댔다.

《제발 좀 날 내세우지 말고 당신이 직접 만나시구려.》

《만나선 뭘해? 만나서 리득불건 쥐뿔도 없어.》

《그래도 당신이 만나서 다시 찾아오지 못하도록 단단히 오금을 박아놔야지 이러다가 우리가 조선사람이란것이 이웃에 퍼지면 어찌해요.》

《당신이 딱 잡아떼면 화가 나서라도 오지 않을게 아닌가. 그래 집에 있으면서 그만한 일도 감당을 못해.》

조봉우가 역정스레 하는 말에 안해는 억울하다는 듯이 새초롬해서 발명을 했다.

《내가 뭐 집에서 놀고있는줄 알아요? 설것이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시장에 가고 어디 짬이 있는줄 알아요?》

조봉우는 들을만하고있었다.

안해는 아파트의 코딱지만한 단칸방에서 살다가 살림이 퍼이게 되어 아담한 새집에서 살게 되었으

니 생활에 대한 불만은 없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몹시 고독하였다. 일본사람행세를 하며 살자니 이곳에 온 뒤로 조선사람이 집에 찾아온것은 김창수가 처음이었다.

조봉우는 걸음마를 배우던 때에 아버지를 여의었다. 그의 아버지는 이 지방에 있는 아탄탄광갱도에서 숨을 거두었다. 어머니는 봉우와 다섯살우인 그의 누이를 데리고 품팔이를 하여 근근히 입에 풀칠을 했다.

봉우는 겨우 일본중학교를 나오자 건축청부업을 전문으로 하는 고바야시라는 일본인상사에 들어가 그 집에서 기숙을 하며 전기공사일을 배웠다. 상사주인은 몇해동안이나 그를 공짜로 부려먹고나서야 비로소 임금을 주기 시작했으나 그것도 같이 그 집에서 기숙하며 일하는 일본인직공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 10여년동안 소갈데 말갈데 다 다니면서 뼈 빠지게 일했으나 그동안 먹고입고 한것을 제하고나니 남은것은 한푼도 없었다. 봉우의 머리속에는 날이 갈수록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여의고 가난에 쪼들리고 수모를 받는것도, 같은 로동을 하면서도 임금이 적은것도 모두다 다 자기가 조선사람이기때문이라는 의식이 깊이 새겨졌다. 그런 그는 이 사회에서 돈을 벌어 잘살자면 아예 조선사람의 티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굳게 속다짐을 하였다.

봉우는 일본인상사에서 나와 제나름으로 일감을 찾아 억척같이 일했다. 그리하여 밀천이 좀 생기자 소소한 청부를 말아가지고 차츰 돈을 불려나갔다. 결혼한 뒤로는 메리야스공장을 하는 장인을 구슬려 돈을 빌려가지고 일판을 크게 벌리어 지금처럼 생활이 퍼이게 된것이었다.

이 부근에서는 지금껏 누구도 그들이 조선사람이라는것을 알지 못하고있었다. 그것이 드러날가봐 조봉우는 촌에 있는 누이네 집에서 사는 어머니를 데려오고싶어도 그러지 못하고있었다. 그러한 그들에게 있어서 김창수의 난데없는 출현은 불안과 공포를 자아내는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이고 《위협》이 아닐수 없었다.

찾아오는 잡도리로 보아 김창수는 순순히 물러설것 같지가 않았다.

조봉우는 불안감에 마음이 뒤숭숭했다.

김창수로 하여 자기들이 조선사람이라는것이 드러날 때에는 정말 야단이였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가 조선사람인줄 어떻게 알았을까?)

조봉우는 아무리 생각해도 짐작이 가지 않았다.

《아이구, 전번에 있는 일 생각하면 지금도 얼굴이 화끈거리요.》

안해는 화풀이나 하듯 먼치털개로 아무데나 탁탁 털며 종알거리었다.

《닷새전 일이에요. 내가 빨래를 처마밑에 널고 뒤울로 돌아간 사이에 그 사람이 찾아와서 당신을 부르지 않겠어요. 나는 집모퉁이에 숨어서 숨을 죽이고있었어요. 몇번 찾다가 없으면 가겠지 하고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돌아가기는커녕 담배를 붙여물고 녹장을 부리는게 아니겠어요. 나는 기다리다못해 할수없이 뒤울쪽으로 돌아가 길에 나서면서 <그집에선 모두 일하러 나가고 사람이 없습시다.>하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아 그렇습니까?>하더니 고개를 기웃거리며 열려있는 현관문과 물방울이 떨어지는 빨래를 눈여겨보지 않겠어요. 나는 <아차>하는 생각과 함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그 사람은 아무 말없이 돌아가긴 했지만 나는 가슴이 활랑거리려 견딜수 없었어요. 다시 되돌아오면 어쩌나 하구...》

조봉우는 팔목시계를 들여다보며

《어이쿠 시간이 땀군.》

하고 안해의 말이 채 끝나기전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얼마후에 그는 집을 나섰다. 김창수가 혹시 어데 숨어서 자기를 기다리고있지나 앓을가 하여 저절로 눈이 살피졌다.

그는 걸음을 다그치면서 혼자소리로 투덜거리었다.

《이거 정말 찰거마리한테 걸렸군 허참.》

## 2

김창수네 집은 상점거리에서 좀 떨어진곳에 자리잡고있었다. 함석지붕을 인 그 집은 얼핏 보기에는 낡은 헛간같았다.

길에서 들어오는 첫머리에 칸을 막아 분회사무소로 쓰고 그 옆에는 파철을 쟁여놓고 선별작업을 하는 창고로 되어있었다.

분회사무소라고 해도 세멘트바닥에 책상이 하나그리고 의자가 몇개 있을뿐이었다.

이 사무소가 현관으로 되어 그 안쪽으로 부엌이 있고 살림방이 있었다.

토목도동을 다니는 김창수는 안해와 함께 부업으로 파철장사를 하여 구차한 살림에 보태고있었다.

김창수의 안해는 오늘도 작업장(창고)에서 기름 묻은 옷에 장갑을 끼고 해종일 무쇠불이에 붙어있는 강철못을 빼내고 구리줄과 낫쇠불이, 알루미늄 등속의 비금속을 뜯어내는 일을 하고있었다.

기계기름이 얼송덜송 묻고 뽕얇게 먼지가 오른 그의 이마에 송골송골 돋은 땀방울이 불을 타고 흘러내리었다. 류월의 뜨거운 해별이 함석지붕을 달구어놓아 작업장안은 한증속같이 찜뭉쿠었다.

《어머니!》

《학교에 다녀왔습니다.》

초급부에 다니는 딸애가 치마저고리를 팔랑거리

며 들어서고 이어 두살 우인 아들녀석이 책가방을 덜렁거리며 달려들어왔다.

창수의 안해는 딸애를 안아주고싶었으나 기름 묻은 장갑을 낀 손으로는 어쩔수 없었다. 하여 그는 사랑에 찬 목소리로

《내 곧 들어갈게 상우에 차려놓은걸 나눠먹어라. 아버지 오시면 저녁을 먹자 응.》

하고 아이들을 방으로 들여보내었다.

그로부터 얼마 안있어 김창수가 마른 기침을 하며 돌아왔다. 그는 사무소로 들어가기전에 창고에 먼저 들렀다.

《지금 오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안해는 일하던 손을 멈추고 반색을 하며 남편을 맞이했다.

《나야 뭐... 당신이 무더운데서 수고들 했소. 그 코등의 기름이나 닦으라우.》

김창수는 땀이 즐편한 안해의 피곤이 어린 얼굴을 보니 어쩐지 가슴이 아릿했다.

안해는 얼굴을 문지르고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대야에 세수물을 떠가지고 나왔다.

《어서 세수하고 저녁 자시세요. 애들도 기다리고 있어요.》

《나는 도구를 치우고 들어갈테니 당신이 먼저 세수를 하고 들어가요.》

《그건 제가 해요. 먼저 하세요.》

안해는 창수가 세수를 하는동안 수건을 들고 그의 곁에 지켜서서 측은한 눈매로 그를 보았다. 난장에서 일하느라고 목덜미까지 검붉게 탄 남편이 오죽이나 시장하고 피곤할가 하는 생각에 저절로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창수가 수건을 받아가지고 방으로 들어간 다음 안해는 여기저기 널려있는 작업도구들을 주섬주섬 거두기 시작하였다. 그러는데 방으로 들어갔던 창수가 옷을 갈아입고 다시 나왔다.

《아니 또 어델...?》

안해는 저으기 놀란 눈으로 그를 보며 물었다.

《조봉우란 사람네 집에 다녀오겠소.》

《또 그 집엘 가요? 매번 그렇게 수모를 당하시면서...》

안해의 목소리에서는 불만이 풍기었다.

《수모를 당하는거야 뭤라오. 이왕 내친 걸음인데 끝장을 봐야지.》

《당신이 암만 애를 쓰셔도 그 사람만은 안될것 같아요. 다른 분회위원장들도 다 그러는걸요. 소귀에 경 읽기라구. 정말 그 집은 너무해요.》

《소귀에는 경을 읽어두 못알아듣지만 사람이야 왜 못알아듣겠소. 아직 내 성의가 부족하고 일을 잘 못하니 그런거지 이제 두고보오. 내 그 사람을 꼭 돌려세울테니.》

김창수는 안해에게 빙그레 웃어보이였다.  
《가도 저녁이나 자시고 가세요 시장하실텐데.》  
《일없소. 나를 기다리지 말고 애들하고 먼저 저녁을 먹소.》

안해에게 이렇게 이르고 집을 나선 김창수는 조봉우네 집을 향해 부지런히 걸음을 옮기였다.

어느덧 거리에는 땅거미가 내리고있었다.

종일 힘겨운 로동을 해서 몸이 지친데다가 허기증까지 겹쳐 김창수는 아래도리가 휘청거리었다.

느닷없이 그의 머리에는 찾아갈 때마다 조봉우당자는 한번 만나지도 못하고 그의 안해에게 수모만 당하고 돌아온 일들이 되살아오며

(분회위원들의 말처럼 내가 정말 헛수고나 하고 말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슬며시 머리를 쳐들었다.

그 순간 김창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을 깨닫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아니 내가 무슨 나약한 생각을 하는가... 그대들이 일본사람이 돼버려도 종단말인가?)

그는 강하게 머리를 저었다.

(아니다. 그럴수 없다. 수모를 당하는것은 참을수 있지만 멀쩡한 조선사람이 일본사람으로 되어가는 거야 어찌 참을수 있는가.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이런 현상에 대하여 가슴아파하시며 모든 채일동포들이 다같이 조선사람으로 뿔뿔이 머리를 쳐들고 살도록 해야 한다고 그토록 간곡히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수령님의 심려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리자고 스스로 마음다지고나선 내가 그만한 곤난에 못견디여 그런 나약한 생각을 하다니... 나는 정말 아직 멀었어...)

김창수는 잠시나마 그런 나약한 생각에 빠져들어난 자신이 그지없이 부끄럽고 죄스러웠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들이 꼭 조선사람의 긍지를 가지고 참담게 살도록 일깨워주어야 한다.)

김창수는 이렇게 속다짐을 하며 흘러내리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힘을 내어 걸음을 다그치였다.

그가 조봉우네 집 현관앞에 막 들어설 때였다.

마침 현관문이 열리더니 안에서 상고머리에 몸집이 뚱뚱한 사람이 나왔다. 그는 창수를 보자 섬쩍 놀라는 기색이더니 외면을 하고 그대로 가버리려 했다.

김창수는 그가 바로 조봉우임을 직감적으로 느끼었다.

《당신이 조봉우씨지요?》

창수는 그를 똑바로 마주보며 이렇게 찰려 물었다.

순간 조봉우의 혈색좋은 불깃불깃한 얼굴에 저이기 당황해하는 빛이 떠올랐다. 그러나 그것은 한순간에 지나지 않았다. 조봉우는 짐짓 태연한 티를 짓

고 도리어 무슨 소리냐는듯이

《뭐요? 저 문패가 보이지 않소?》

하고 현관문 한쪽 기둥에 붙어있는 문패를 눈으로 힐끔 가리켜보이고는 가버리려 하였다.

문패에는 《青木茂》(아오끼 시게루)라는 일본사람의 이름이 써여있었다.

그러나 김창수는 그의 앞을 막아섰다.

《봉우씨, 그런 어리석은 연극은 그만두시오. 당신은 나를 모르지만 여기 동포들은 당신의 부친이 아탄탄광에서 어떻게 세상을 떠났다는것까지 다 알고있소.》

김창수의 뜻밖의 말에 조봉우는 단박에 얼굴이 시커멓게 질려 주위를 두리번거리었다. 김창수의 말을 누가 듣지나 않는가 해서였다. 현관문을 방실히 열고 그들을 내다보고있는 안해의 모습이 언뜻 눈에 띄이자 조봉우는 부아가 돋았다. 그는 눈을 부릅뜨고 김창수를 쏘아보며 큰소리를 쳤다.

《여보시오, 당신이 도대체 뭐길래 남의 일에 참견을 하오. 사람마다 다 자기 생각이 있단말이요. 괜히 난데없이 나타나서 바쁜 사람을 붙잡고... 허참.》

김창수는 저도모르게 뺨구비가 울퉁 치밀었으나 꺾 참았다.

(참아야 한다. 단술에 배부를수야 없지 않는가. 그래서 사람들을 깨우쳐주는 일이 제일 힘들다지 않는가. 참아야 한다.)

그는 이렇게 자기 마음을 달래며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봉우씨, 그렇게 성을 내지 말고 잘 생각해보오. 조선사람이야 어디까지나 조선사람이지 일본사람으로는 될수 없는거요. 당신이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나는 당신네 집에 백번이고 천번이고 찾아올거요. 오늘은 당신이 바쁘다니 후에 다시 만나 이야기합시다.》

김창수는 이렇게 말하고 돌아섰다.

조봉우는 돌처럼 굳어져서 그 자리에 못박힌듯 서있었다.

아까부터 현관문안에서 가슴을 조이며 그들의 말다툼에 귀를 강구고있던 안해가 허둥지둥 달려나와 울상이 되어 종알거리었다.

《아니 여보, 저 사람이 소문을 퍼뜨리면 어쩔려고 그냥 보내요?》

안해의 말에 멀어져가는 김창수의 뒤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있던 조봉우는 겁이 더러웠다.

(정말 그대로 보내서는 안되겠다. 야끼도리집에라도 데리고가서 단단히 삶아놓아야지.)

조봉우는 저도모르게 급히 김창수를 뒤따랐다. 그러나 얼마를 못가서 그는 무릎 발을 멈추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돈이나 술로 살을수 있는 사람같



지 않았다.

그가 멈춰선채 있는것을 보고 뒤따라온 안해가 또 우는 소리를 했다.

《왜 이렇게 서있기만 하세요? 정말 저 사람이...》

《좀 우는 소리 그만해.》

조봉우는 버럭 역정을 냈으나 그도 마음이 천근같이 무거워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그러는 사이에 김창수는 벌써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져버리었다.

거리에는 급기야 밤어둠이 나래를 펴기 시작하였다.

### 3

다음날 해질녘이었다.

길가에 자리잡은 자그마한 아동유원지는 사뭇 조용하였다. 미끄럼대와 그네를 타고 놀던 아이들도 다 돌아간 뒤였다.

그런데 한쪽 나무그늘밑에 있는 의자에 머리를 싸쥐고 고통스럽게 앉아있는 한 사나이가 있었다. 그는 숨박꼭질을 할 때처럼 두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리웠다가 사정없이 상고머리를 쥐어뜯기도 하는 것이었다. 그는 조봉우였다. 그에게는 오늘 하루동안에 불시에 일어난 일들이 그저 악몽같이만 여겨졌다. 생각할수록 숨이 막혀 가슴이 더질것만 같았다.

아침에 조봉우는 그가 거래하고있는 건축회사가 공사를 시작한 현장으로 나갔었다.

이번 공사는 건설규모가 대단히 큰것이였다. 그래서 조봉우가 청부를 맡아하게 된 전기공사만 하여도 전공 여러문명을 고용해가지고 서너달은 실패 걸려야 할 일이었다.

전기자재회사에서는 벌써 조봉우가 주문한 전기자재들을 현장에 실어다가 산더미같이 쌓아놓고있었다. 그것을 보자 조봉우는 저으기 마음이 흡족하였다. 그는 며칠후부터 전기공사에 착수하겠다는것을 알리자고 현장감독을 찾았다. 현장감독은 그를 보자 본사에 가서 구로다영업부장을 만나달라고 하였다.

조봉우는 지난달 공사비도 받을수 있고하여 마침 잘되었다고 바쁜 걸음으로 본사에 달려갔다.

구로다는 마침 자기 자리에 있었다. 그는 자리를 권하고나서 검실검실한 아래턱을 문지르며 조봉우의 얼굴을 흘금흘금 살피더니 무겁게 입을 열었다.

《지난달 공사비는 래일 지불하기로 되었소. 그런데 당신한테는 좀 안된 일이지만 우리 회사의 사정으로 해서 이번 건축공사의 전기공사는 고바야식전기상사에 일을 맡기기로 했소.》

조봉우는 불에 덴 사람처럼 펄쩍 놀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다.

《아니 철석같이 약속을 해놓고 이제 와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전기공사자재까지 다 현장에 실어다왔는데...》

조봉우의 목소리는 떨리였다.

《글쎄 동정은 가오만 우에서 결정한 일이고보니 나로서는 어쩔수 없소.》

《아무리 그래도 이런 법이 어데 있습니까? 그럼 나는 망해도 종단말입니까? 영업부장님, 사정을 좀 봐주십시오. 이진 너무 하지 않습니다.》

조봉우는 체면도 다 잊어버리고 구로다의 옷자락을 붙잡고 매여달렸다.

《당신은 본래 고바야식상사에서 일을 했지?》

구로다가 묻는 말이였다.

《그렇습니다.》

《알고보니 당신은 조선사람인데 우리를 감쪽같이 속였더구만. 당신은 정직하지 못하오. 현장에 갖다놓은 전기자재는 당신이 마음대로 가져다놓은것이니 우리 회사에는 책임이 없소. 그럼 래일 오후에 전달 공사비나 받아가요.》

구로다는 이렇게 뇌까리고는 어데론가 헛하니 달아나버리고말았다.

조봉우가 잘되는것이 배가 아파서 고바야식 그놈이 구로다와 짜가지고 한짓이 틀림없었다.

(그놈이 나를 망하게 했구나. 그놈이 내가 조선사람이라는것을 교자질했구나.)

조봉우는 갑자기 하늘이라도 무너진것처럼 눈앞이 캄캄했다.

현장에 실어다놓은 자재대금만 하여도 막대한 금액이었다. 이제는 되돌리려 해도 자재회사에서 받아주지 않을것은 뻔하였다. 손해배상을 다 물려면 집을 팔아도 모자랄것이였다. 그렇다고 어데다 대고 송사할데도 없었다.

안해가 이 일을 안다면 당장 기절해넘어질것이였다.

이렇게 되여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유원지의자에 머리를 싸쥐고 앉아있는 조봉우였다.

아무리 생각해도 떨어진 함정에서 벗어날길이 없었다. 그 함정에서 벗어나자면 새로 일감을 맡아야 하겠는데 동업자끼리 서로 피투성이가 되여 물어뜯고있는 불경기속에서 그런 일감을 떼맡는다는것은 하늘의 별따기와도 같은 일이었다.

조봉우는 술한 퇴물을 받아먹고도 고바야식와 함께 자기를 파산의 구렁텅이에 차넣을 구로다에 대해서 이가 갈리였다.

(털보 이놈의 새끼, 어디 두고보자.)

그러나 그놈을 죽이기전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볼수할길이 없는것이였다.

파산이였다! 그것을 이제는 면할수가 없었다. 그의 머리속에는 돈을 모으느라고 별의별 고생과 수

모를 다 겪어온 지난 일들이 가슴을 치며 되살아왔다.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조선사람이란것도 숨겼다. 그것때문에 나는 어머니도 집에 모시지 못하지 않았는가. 그래 이제는 모든것이 끝장이란말인가.)

그는 갑자기 먼 섬에 홀로 버림을 받은것 같은 고독감이 전신에 휩쓰는것을 느끼었다.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찾아가서 속 시원히 마음을 터놓고 의논이라도 하고싶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람들과 담을 쌓고 살다싶이한 그에게는 그럴만한 사람들도 없었다.

(아, 어떻게 하면 좋단말인가?)

조봉우는 가슴이 터질것 같은 울분과 절망감을 못이겨 또다시 머리를 두손으로 싸쥐고 몸부림을 쳤다.

마침 그때였다.

《조봉우씨 아십니까?》

하는 물음소리가 등뒤에서 났다.

조봉우는 펄쩍 놀래여 뒤를 돌아보았다.

뜻밖에도 김창수가 의아쩍은 얼굴을 하고 그를 지켜보고있는것이였다.

조봉우는 어제저녁에 있었던 일이 머리에 떠올라 어떤지 그를 마주볼수가 없어 슬며시 얼굴을 돌리었다.

(제길, 원쑤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더니 하필이면 이런때에...)

조봉우는 입안이 소래같이 쓰거웠다.

그런데 김창수는

《여기 있는줄 모르고 나는 또 집에 찾아갔다 오는길입니다.》

하면서 녀살중계 봉우의 곁에 앉더니 이어 묻는 것이였다.

《그런데 왜 여기 앉아있습니까? 어디 몸이라도 편찮은가요?》

《난 아무렇지도 않소.》

조봉우는 얼굴을 숙인채 통명스레 대답했다.

《그래도 얼굴색이 몹시 좋지 않은것 같소.》

《나에겐 상관 말아주오.》

조봉우는 련치없이 남의 일에 참견하려드는 김창수가 역정스러웠으나 사람이 그림던참이라 그를 뿌리치고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은 못하였다.

그런데 김창수는 조봉우의 말투에는 조금도 개의치 않고 다시 입을 열었다.

《봉우씨, 아무래도 당신에게 무슨 심상치 않은 일이 생긴것 같은데 혹시 내가 도울수 있는 일이라면 도와드리겠소.》

《당신이? 흥! 당신이 도울수 있는 일이 못되오.》

이렇게 비양조로 말한 조봉우는 다음순간 자기도

모르게 가장 피로운 말을 쏟아놓았다.

《나는 파산을 당하게 됐소.》

한숨섞인 그의 목소리는 마치 땃에 걸려 몸부림을 치며 모대기는 짐승의 울음소리와도 같았다.

《아니 파산을 당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요?》

김창수는 놀란 눈으로 조봉우를 지켜보았다.

그러나 조봉우는 다른 사람도 아닌 그에게 함정에 빠져 죽게 된 자기의 내막을 다 털어놓을수가 없었다. 그것을 안다면 창수는 일본사람행세를 하며 잘 살아보려다가 이런 꼴을 당했다고 비웃을것이 아닌가. 조봉우는 입을 꼭 다문채 머리를 푹 떨구고 잠자코 앉아있었다.

그러자 김창수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봉우씨가 말한대로 나는 큰 힘이 없는 사람ियो. 하지만 봉우씨는 지금 몹시 마음이 피로운것 같은데 그런때는 속시원히 서로 이야기라도 나누면 피로움이 좀 덜리지 않겠소. 무슨 일인지 좀 들려주시오. 우리는 같은 동포끼린데 못할 말이 무엇이 있겠소. 이국땅에 살면서 같은 동포들끼리 서로 담을 쌓고 지낼 필요야 없지 않소?》

김창수의 친절한 말에 조봉우는 어떤지 가슴이 뭉클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잡는 그러한 심정이랄가 봉우는 생각과는 달리 창수에게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는 못배길 심정이였다.

얼마후 봉우의 이야기를 다 듣고난 김창수의 얼굴에는 참을수없는 모욕이나 당한 사람처럼 노기가 서리였다.

《나쁜놈들 같으니...》

그는 이를 부득부득 갈았다.

《나는 이젠 망했소.》

조봉우는 울먹이는 소리로 부르짖으며 상고머리를 싸쥐었다.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무슨 생각에 골똘하고있던 김창수가 입을 열었다.

《봉우씨, 너무 상심마시오. 기왕 당한 일이니 이제는 그것을 풀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실망에 빠져 주저앉아서는 안되지요.》

《그러니 무슨 수로 그놈들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데 우리 같이 방법을 생각해봅시다. 내 힘자라는대로 봉우씨를 도와주겠소. 래일아침에 우리 집에 들리시오.》

김창수는 봉우에게 자기 집 주소를 대주고는 급히 가볼데가 있다면서 자리를 일었다.

그가 자기를 도와줄수 있으리라고 조봉우는 처음부터 믿지 않았다. 그러나 그런 동정이라도 표시해준것이 그에게는 그지없이 고마웠고 그럴수록 지금까지 창수에게 모욕을 준 일이 죄스럽게 생각되었

다.

창수가 가버린 뒤에도 조봉우는 오래도록 그 자리에 앉아 절망감에 모태기다가 날이 어두워져서야 집을 향해 천근같이 무거운 걸음을 옮기었다.

그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안해가 종종걸음을 치며 급히 달려나왔다.

《왜 이렇게 늦었어요? 난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가셨던 일은 다 잘됐지요? 그리고...》

참새처럼 혼자 종알거리던 안해는 여느때 없이 컴컴하게 빛이 죽은 봉우의 얼굴을 보자 문득 말을 그치고 의아쩍은 눈길로 그를 지켜보았다.

조봉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옷옷을 벗어 옷걸이에 걸어놓고 방바닥에 힘없이 털썩 주저앉았다.

뒤따라 들어온 안해는 한참동안 불안한 얼굴로 그를 살피다가 앞에 다가가서 무릎을 꿇고 앉으며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요?》

조봉우는 차마 안해에게 사연을 털어놓을수가 없어서

《아니요, 아무 일도 없었소. 그저 몸이 좀 불편해서...》

하고 어물어물 대답했다.

《또 허리병이 도진게 아니에요?》

봉우는 고바야시네 상사에서 일할 때 자동차에 무거운 물건을 싣다가 허리를 다쳐 몹시 앓은적이 있었다. 그후에도 그것이 자주 도져서 고생을 했었는데 생활이 퍼인 다음부터 약을 많이 써서 이즘에는 도지는 일이 거의 없어졌다.

《글쎄 모르겠소...》

《그럼 의사를 불러올까요?》

《그만두오. 이제 낫겠지. 난 좀 누워야겠소.》

안해는 서둘러 자리를 깔았다.

이날밤 조봉우는 앞길이 막막한 절망속에 빠져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뜬눈으로 밤을 새웠다.

#### 4

아침이 되었으나 봉우는 김창수를 찾아가지 않았다. 그의 말을 믿지 않은데도 이유가 있었지만 또한 지금의 처지에서 자기들이 그토록 수모를 한 사람을 찾아가기가 면구스러워서였다. 그래서 의사를 불러오겠다고 거듭 성화를 대는 안해를 말리며 수건으로 이마를 동이고 자리에 누운채 꿈속 속도 않고 있었다. 그러는데 현관문밖에서

《제십니까?》

하고 부르는 김창수의 목소리가 났다.

부엌에서 그릇소리를 달그락거리며 설것이를 하고있던 안해가 급히 달려들어오며

《여보, 그 친드기같은 사람이 또 왔어요.》

하며 성가시어 죽겠다는듯이 얼굴을 찌프리고 울

상을 지었다.

그러나 조봉우는 자기도모르게 자리를 차고 벌떡 일어나 바지를 주어입고 현관으로 달려나갔다.

현관문을 여니 나들이옷차림을 한 김창수가 우선 우선했던 얼굴로 서있었다.

《기다려도 오지 않기에 찾아왔습니다.》

하는 그의 말에 조봉우는 주눅든 목소리로

《미안합니다. 몸이 좀 불편해서 자 어서 들어오십시오.》

하며 그를 방으로 청하였다.

《시간이 없는데 들어가선 뭘 하겠습니까. 봉우씨, 나하고 총련상공회에 좀 갑시다.》

《총련상공회요?》

조봉우는 눈이 둥그래지며 물었다.

《네, 상공회에 봉우씨의 사정을 말했더니 오늘 아침에 만나자구 하더군요.》

《글쎄 만나도 좋지만 거기선들...》

《같이 가봅시다. 무슨 좋은 수가 나지겠는지 압니까? 어서 옷을 입고 나오시오.》

조봉우는 어쩔가 하고 잠시 망설이다가 이젠 조선사람이라는것이 다 드러난판에 밀쳐야 본전이라고 생각되어 방에 들어가 나갈 차비를 하였다.

《아니 총련상공회에는 뭇하러 가요? 그러다가...》

아무 영문도 모르는 안해는 참 이상하다는듯이 고개를 기웃거리며 불안한 눈으로 조봉우를 지켜보았다.

《좀 그럴 일이 있소. 당신은 기만 있소.》

《정말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조선사람들 하고는 그렇게 담을 쌓고 살아온 당신이...》

조봉우는 더 말을 앓고 집을 나서서 김창수를 따라갔다.

그들은 거의 한시간이나 걸려 정거장앞 변화한 거리에 서있는 한 켄딩현관앞에 다달았다.

《봉우씨, 들어갑시다. 여기가 우리 상공회입니다.》

김창수의 말에 조봉우는 깜짝 놀라며

《이 켄딩말입니까?》

하고 어리둥절한 얼굴로 어마어마하게 솟은 켄딩을 쳐다보았다. 그도 이 건물을 보는것이 처음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렇듯 굉장한 켄딩이 총련의 상공회인줄은 지금껏 꿈에도 몰랐었다.

《어서 들어갑시다.》

조봉우는 창수를 따라 현관으로 들어가 승강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다.

그들이 승강기에서 내리자 복도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김창수의 손을 붙잡고

《분회장동지, 수고하십니다.》

《분회장님, 요즘 우리 집엔 왜 오시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여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분회장네 덕에선 다 무고합니까?》

이런 말들을 하며 반가와들 했다.

조봉우에게는 그들이 서로 따뜻한 정을 나누며 주고받는 조선말이 귀에 설면서도 가슴이 찜찜한 향수를 느끼게 하는 것이었다.

(여기는 조선사람들의 세상이로구나...)

조봉우는 창수를 따라 《부리사장실》이라는 폐쪽이 붙어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책상에 마주앉아 무슨 사무를 보고있던 중년의 사나이가 의자에서 일어나 김창수와 반갑게 악수를 나누었다.

《어제 말씀드린 조봉우씨입니다.》

김창수가 부리사장에게 봉우를 소개했다.

《아, 그렇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부리사장은 반가운 웃음을 짓고 봉우의 손을 다정히 잡았다.

조봉우는 송구스러운 생각에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어쩔수 없었다.

그는 방주인이 권하는대로 자리에 앉았다.

방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조선옷차림의 젊은 녀자가 차판을 들고 들어와서 공손히 인사를 하고 탁자 위에 차간들을 놓고 나갔다.

《어서 차를 드십시오.》

부리사장이 권하는 바람에 조봉우는 할수없이 차잔을 들기는 했으나 어쩐지 손이 가늘게 떨리었다.

《분회장동지한테서 대강은 들었습니다만 더 자세히 알고싶어 오시라고 했습니다.》

부리사장이 하는 말에 조봉우는

《네. 죄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떠들거리며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했다.

부리사장은 심중한 낯색을 짓고 그의 이야기를 다 듣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만한 일입니다. 이건 봉우씨가 조선사람이라는 것을 미끼로 삼아가지고 고바야시와 구로다가 꾸민 작간입니다. 아마 구로다가 고바야시의 퇴물께나 먹은 모양입니다.》

《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봉우씨도 구로다에게 퇴물을 먹인적이 있습니까?》

《네.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그놈이 퇴물을 받아먹지 않구서야 저에게 일감을 주겠습니까? 그놈은 퇴물밖에 모르는놈입니다.》

《우리 상공회에서 그자에 대해서 좀 알고있습니다. 그래 그 회사 사장은 만나지 못했습니까?》

《사장이요? 우리같은거야 어디 사장이 만나주나요.》

부리사장은 잠시 무엇인가 혼자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아무튼 이렇게 찾아와주어서 고맙습니다.》

조봉우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무슨 말씀을... 도리어 제가...》

《봉우씨 너무 걱정마십시오. 그 회사 사장은 우리와도 거래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상공회에서 그 사람을 만나 진상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와의 거래상 모른다고는 못할겁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김창수분회장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돌아가 기다리십시오.》

《걱정을 끼쳐서 안됐습니다.》

조봉우는 일어나 절이라도 하고싶은 심정이었다.

《그런 말씀은 마십시오. 동포들의 권리를 지키는 건 우리들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조봉우는 그 자리에서 울음이 터져나오는것을 가까스로 참고 김창수와 같이 부리사장실을 나왔다.

집으로 돌아오자 봉우는 안해에게 모든 사연을 털어놓았다.

안해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몸을 떨더니

《이제는 어쩌면 좋아요?》

하고는 얼굴을 싸쥐고 울쩍거리었다.

봉우가 총련상공회 부리사장이 한 말을 몇번이고 되풀이하면서 타일러도 안해는 그것을 믿으려하지 않았다.

## 5

다음날부터 조봉우내외는 창수가 찾아오기만을 가슴을 조이며 기다리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고 이들이 지나도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봉우네 집안에는 초상난 집처럼 가슴을 짓누르는 싸늘한 령기가 끼쳐돌았다.

사흘째 되는 날도 아무 기별이 없어 저물어갔다.

《여보, 이렇게 기다리지만 말구 당신이 찾아가봐요.》

울어서 눈이 통통 부은 안해가 안타까움을 이기지 못해하는 말이였다.

《안된 일이 내가 찾아간다고 되겠소. 또 무슨 령치로 그 사람을 찾아간단말이요. 족제비도 낮짜이 있다는데...》

조봉우는 버럭버럭 역정만 나갔다.

《그러면 어떡해요? 도산을 당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안해는 또 얼굴을 싸쥐고 울쩍거리었다.

《듣기 싫소!》

조봉우는 버럭 소리를 기르고 응접실로 나왔다. 그리고는 의자에 맥을 놓고 앉아 애꿎은 담배만 연거퍼 갈아댔다.

창문으로는 저녁어스름이 슬금슬금 기여들었다.

안방에서는 안해가 아직도 울고있는지 아무 기척이 없었다.

(상공회에서 어쩔수 없는 모양이지, 그럼 이렇게 망하고만다는말인가?)

조봉우는 가슴이 터지는것 같아 더는 그 자리에 앉아있을수 없었다. 불같이 술생각이 났다. 술에 취해 일시라도 가슴을 발기발기 찢는 고통에서 벗어나고싶었다. 그는 안방으로 들어갔다. 안해는 아직도 어두운 방구석에 돌아앉아 울고있었다.

조봉우는 아무 말도 없이 아무 옷이나 갈아입고 집을 나섰다. 그의 발길은 가까이 있는 선술집으로 향했다.

《봉우씨.》

앞쪽에서 별안간 부름소리가 났다. 조봉우는 숙였던 고개를 번쩍 쳐들었다.

김창수가 급히 마주 걸어오고있었다.

봉우는 지옥에서 부처나 만난것처럼 반가웠다.

《창수씨!》

그는 반가운 목소리로 부르며 마주 달려갔다.

그들은 서로 손을 마주잡았다.

《몹시 기다렸했습니다.》

창수가 우선우선한 얼굴로 말했다.

《네.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봉우는 저도모르게 눈물이 콧 치밀었다.

《그런줄 알면서도 늦게 찾아와 안했습니다. 사실은 그 회사 사장이 어데 여행을 갔다가 어제야 돌아왔습니다.》

하고 김창수는 봉우의 손을 쥐고 말을 이었다.

《봉우씨, 기뻐하시오. 우리 부리사장이 사장을 만나 진상을 이야기하고 상공회의 이름으로 항의를 들이었는데 봉우씨가 그 공사를 그냥 하기로 약속이 됐답니다.》

《아니 그게 정말입니까?》

조봉우는 너무나 뜻밖이어서 창수의 말이 선뜻 믿어지지 않았다. 그저 무슨 꿈을 꾸는것만 같았다.

《네. 방금 부리사장을 만나고 오는길입니다. 사장과 담판하는 그 자리에 구로다도 불려왔습니다. 우리의 추측대로 구로다와 고바야시의 작간이었습니다.》

(이젠 살았구나!)

조봉우는 전신을 휩쓰는 허탈감과 함께 눈물이 콧 솟았다. 창수에게 무슨 말로 감사를 표시했으면 좋을지 몰랐다.

《창수씨, 정말 고맙습니다...》

그는 울먹이는 소리로 말하면 두손으로 창수의 술뚜껑같은 손을 움켜잡았다.

《무슨 말씀을... 아무튼 잘했습니다.》

김창수는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빙글거리었다.

조봉우는 무슨 대접이라도 하자고 그의 손목을 잡고 자기 집으로 가자고 끌었다. 그러나 김창수는 후에 한번 들리겠다면서 굳이 사양을 하고 돌아가

버리었다.

조봉우는 섭섭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서 창수를 바래우다가 급히 집으로 되돌아갔다.

그는 현관문밖에서부터 《여보-》 하고 안해를 부르며 집안으로 달려들어갔다. 그리고는 안방에서 달려나오는 안해에게

《이젠 살았소. 이젠 살았소.》 하고 들뜬 사람같이 뇌이었다.

안해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그를 지켜보았다.

《왜 그렇게 멍청해 서있소? 이젠 우리가 살아났단말이요. 우리가 그 공사를 그대로 맡아하게 됐단말이요.》

안해는 그 말이 잘 믿어지지 않는듯 눈을 깜박거리며 물었다.

《그게 정말이에요?》

《정말이요. 분회장이, 총련상공회가 우리를 살려주었소.》

하는 조봉우의 말에 안해는 울먹울먹하더니 돌아서서 또 쿨쩍거리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다.

조봉우는 서둘러 다른 옷을 갈아입고는 집을 나서서 건축회사 사무소로 줄달음을 놓았다.

김창수의 말을 믿지 못하는것은 아니었지만 직접 자기 자신이 구로다를 만나 그것을 확인하고싶었다.

자기 방에 들어선 조봉우를 보자 구로다는 얼굴을 찌프리고 먼저 물었다.

《공사때문에 왔소?》

《그렇소.》

《당신이 총련상공회에다 말했소?》

《그렇소. 내가 말했소.》

《당신도 총련계였구만.》

《그렇소, 인차 공사에 착수해도 좋겠소?》

《사장의 분부니까... 그대신 공사를 잘해야겠소.》

《그건 넘려마오.》

얼마후에 구로다의 방을 나선 조봉우는 그놈의 앞에서도 조금도 주눅이 들지 않고 떳떳하게 처신한 자신이 저으기 놀랍게 생각되었다. 그것은 단순히 구로다가 작간을 논데 대한 복수심이나 적의에서 생길 용기가 아니었다. 그 용기는 자기에게도 돌봐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배심에서 생긴것이였다. 그의 머리에는 새삼스러이 김창수와 같이 총련상공회에 찾아갔던 때의 일이 되살아왔다.

집에 돌아온 조봉우는 창수에게 무슨 사례라도 하지 않고는 못배길 심정이였다. 하여 안해와 의논한끝에 사례금을 넣은 봉투를 안주머니에 찌르고 그 집으로 찾아갔다.

그 집앞에 다달은 그는 어쩐지 선뜻 들어갈수가 없었다. 얼마전까지만 하여도 자기가 사례금을 주머니에 찌르고 이 집에 찾아오리라고는 꿈에도 생

각을 못한 그였다.

봉우는 짐둘레를 한바퀴 돌아보았다. 낡아빠진 함석지붕에 도료를 칠한 집모양만으로도 창수네 살림살이가 넉넉치 못함을 짐작할수 있었다.

(사례금을 너무 적게 가져온거나 아닌가?)

자기로서는 큰마음을 먹고 두둑히 가져오느라고 했으나 어쩐지 적은것 같은 감이 들었다. 그렇다고 이제 되돌아가서 더 가져올수도 없었다.

현관쪽으로 다시 돌아온 봉우는 창문으로 분회사 무실로 쓰는 현관안을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비어 있었다. 그런데 현관과 잇닿아있는 창고안에서 《쟁강. 쟁강》하고 무슨 쇠붙이들이 부딪치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는 불빛이 새어나오는 반쯤 열린 창고문으로 안을 기웃이 들여다보았다.

희미한 전등불빛속에서 김창수가 안해와 같이 파철을 선별하고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봉우는 문을 열고 창고안에 들어섰다.

《수고하십니다.》

그의 말소리에 김창수내외는 일손을 멈추고 이쪽을 바라보았다.

조봉우를 알아본 김창수는 반색을 하며 달려와 손부터 움켜잡았다. 그리고는 안해를 돌아보고 일렀다.

《여보, 조봉우씨요. 어서 인사를 하오.》

김창수의 안해는

《처음 뵈겠습니다. 말씀은 들었지만 이렇게 만나 뵈니 반갑습니다.》

하고 머리를 숙여 깎듯이 인사를 했다.

조봉우는 그들내외의 꾸밈없는 친절을 피부로 느끼었다. 그럴수록 또다시 자기 집에 찾아온 창수를 댕대한 자신이 돌이켜져 면구스러운 생각에 얼굴이 화끈거리었다.

《루추하지만 우리 사무소에 나갑시다.》

김창수는 그를 사무소로 데리고나갔다.

서로 책상을 가운데 두고 마주앉자 조봉우는 구로다를 만나고온 이야기를 했다.

《이번에 힘써주신 덕택으로 살아나게 됐습니다. 뭐라고 감사를 드렸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은 미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김창수의 안해가 다과를 차려가지고 나왔다가 다시 안방으로 들어간 다음에 조봉우는 안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어 창수앞에 내놓았다.

《창수씨, 약소하지만 이걸 받아주십시오. 저의 일때문에 아마 일도 많이 못하셨을겁니다.》

순간 김창수의 얼굴에는 저으기 불쾌한 기색이 떠올랐다. 그는 준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봉우씨, 이렇게 하는건 나를 모욕하는겁니다. 도로 넣으십시오.》

조봉우는 그의 뜻밖의 일에 당황해났다.

《그런게 아닙니다. 다만 저의 성의를...》

《글쎄 도로 넣으십시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상공회에서 도와드린거지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설사 좀 도와드렸다고 하여도 사례금이 나 바라고 한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을 다반사로 여기며 살아온 조봉우는 자기가 모처럼 사례금을 도로 넣으라면 오히려 불쾌해하는 김창수의 마음을 이해하기가 힘들었다. 돈이 판을 치고 사람이 죽고사는것도 돈이 결정하는 세상이었다. 더구나 창수네 집은 살림살이도 구차했다. 그런데도 그는 웅당 받아야 할 사례금을 받는것을 도리어 모욕으로 생각하지 않는가. 그것이 조봉우에게는 도리어 이상스레 느껴졌다. 그는 한번 다시 권해보았다.

《창수씨, 내 립장도 좀 봐줘야 지 않겠습니까. 신세를 진 사람이 그 값을 하는거야 웅당한 일이 아닙니다. 받아주십시오.》

《봉우씨의 심정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봉우씨에게 진심으로 하고싶은 말이 있습니다.》

하고 김창수는 계속했다.

《그것은 우리모두가 조선사람으로 떳떳하게 살자는겁니다. 봉우씨도 이 세상에 돈보다도 더 귀중한것이 있다는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조국입니다. 우리는 망국노의 수치와 설움을 안고 살던 지난날의 조선사람이 아닙니다. 오늘의 우리에게는 위대한신 **김일성**원수님께서 창건하시고 이끄시는 영광스러운 조국이 있습니다. 세상사람들은 모두 경애하는 **김일성**원수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사는 조선사람들이 부럽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일본사람의 행세를 하면서 숨어살아야 한단 말입니다.》

봉우씨, 돈이라는건 있다가도 없어질수 있고 없다가도 생길수 있지만 나라없는 백성은 상가집개만 못합니다.

봉우씨의 아버지가 탄광에서 어떤 죽음을 당했습니까? 그것은 나보다 봉우씨가 더 잘 알고있지 않습니까?

봉우씨, 나는 같은 동포로서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조선사람으로 떳떳하게 살아주시오.》

김창수의 말소리는 부드러웠으나 봉수의 가슴을 아프게 찌르는것이였다.

더는 어쩔수 없어 사례금봉투를 도로 넣고 집으로 돌아온 그는 밤이 깊도록 잠을 이룰수가 없었다. 김창수의 준절하면서도 간곡한 목소리가 자꾸만 귀전에 쟁쟁히 울려오고 망국노의 설음속에 온갖 민족적 멸시와 천대, 가난과 굶주림을 참으며 살지 않으면 안되였던 지난날의 악몽같은 일들이 꼬리를

물고 되살아왔다.

창수도 말했지만 봉우의 아버지는 이 지방에 있는 아탄탄땅에서 네식구의 목숨을 이어가기 위하여 살인적인 고역살이를 하였다. 그런 아버지는 새벽에 굴속에 들어가면 한밤중이라야 갱박으로 나올수 있었다. 어느날 먹지 못하여 배가죽이 등에 가붙은 기진맥진한 아버지가 겨우 갱구까지를 탄차를 밀고 나왔는데 감독놈은 꾸물거린다고 트집을 걸면서 아버지를 사정없이 후려쳤다. 얼굴이 으깨여지고 머리가 터졌다. 동포로동자들이 달려와서야 감독놈은 매질을 그만두고 달아났다.

《여러분… 우리 집 사람에게 전해주오. 원쑤를 잊지 말라고… 그리고 애들을 데리고 조선으로 돌아가라고… 나를 고향땅에 묻어달라고… 아…》

아버지는 이 말을 남기고 마지막 숨을 거두었었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우리 남매를 키우기에 얼마나 많은 고생속에 피눈물을 흘리며 살아왔던가…)

어린 봉우에게 차례진것은 《조센징(조선사람)》 《닌니꾸루사이(마늘내 난다)》는 민족적멸시와 《기따나이, 고지끼(더럽다. 거지새끼)》라는 가난탓으로 당하는 천대뿐이었다.

고바야시내 상사에서 로동을 할 때에도 조선사람이기때문에 차별을 받았었다.

돈을 벌기 위해 억척같이 일하였다. 조선사람의 티를 안내기 위해서 민족적량심마저 저버리었다. 왜놈감독에게 억울하게 맞아죽은 아버지의 생각때문에 때로는 량심에 가책되는 때도 있었다. 하지만 이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했고 돈을 벌자면 민족적량심을 저버려야만 하였다. 그로록 자기를 키우느라고 고생한 어머니마저 한집에 살수가 없었다.

(그런데도 결국은 어떻게 되였는가? 나는 그놈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지 않았는가.)

조봉우는 조선사람은 조선사람이지 결코 일본사람으로는 될수 없다고 하던 창수의 말의 깊은 뜻이 이제야 깨달아지는듯싶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의 생각도 더욱 깊어갔다. 그는 지기를 죽음의 함정에서 건져준 김창수와 상공회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이 깊어졌다. 그 사람들은 한사람의 파산을 구원해주고도 보수를 요구하지 않을뿐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모욕으로 생각한다.

또다시 김창수의 말소리가 귀전에 울려왔다.

《봉우씨도 이 세상에는 돈보다 더 귀중한것이 있다는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조국입니다.》

물론 조봉우도 지금까지 일본사람들속에서까지 경탄과 부러움을 자아내고있는 **김일성**원수님께서 현명하게 이끄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하여, 그리고 총련조직에 대하여 적지않게 들은바

있었다. 그러나 돈벌이에만 눈이 어두웠던 그는 그런데 대해서 되도록이면 외면하다 살아왔었다. 그런데 자기가 외면해온 사람들과 총련조직의 도움을 받아 파산을 면하게 되었다. 지금에 와서 조봉우에게는 그 모든것들이 전혀 새롭게 느껴지고 생각되는것이였다.

김창수는 비록 가난하지만 조국에 대한 높은 긍지를 가지고있기때문에 조선사람으로서 떳떳하게 살고있는것이 아닌가!

그것이 느껴졌을 때 조봉우는 너무나도 너절하게 살아온 자신이 돌이켜져 모택불이라도 안은것처럼 얼굴이 뜨거워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그리고 무슨 오물통속에 빠져 헤매다가 나오기나 한것처럼 자기 몸에 악취가 풍기는것만 같이 여겨져 구역질이 났다.

그의 생각은 꼬리를 물고 끝없이 이어졌다.

《여보, 왜 주무시지 않아요?》

잠든줄로만 알았던 안해가 자리에 일어나았으며 조용히 물었다.

《당신은 왜 일어나오?》

《어쩐지 잠이 오지 않아요. 그 분회장이 우리를 살려주었다는것이 꿈만 같아요.》

《정말 고마운 사람들이요.》

하고 조봉우는 잠시 동안을 두었다가 조용한 목소리로 계속했다.

《여보, 우린 지금까지 우리에게 돈보다 더 귀중한 조국이 있다는것을 잊고 살았소. 사람답지 못하게 살았소.》

안해는 무엇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잠자코 있었었다.

그들에게는 이밤이 너무나 길게 여겨졌다. 봉우는 어서 날이 새기를 기다렸다.

이른새벽이었다.

봉우는 부리나케 일어나 밖에 나갈 차비를 하면서 안해에게 말했다.

《여보, 아직 집에 현금이 더 있지?》

《왜 그러세요?》

《그걸 가져오오. 쓸데가 있소.》

《이른새벽에 돈은 뭇하려?》

안해는 어리둥절해서 물었다.

《글쎄 쓸데가 있다니까.》

얼마후에 조봉우는 안해가 가져온 돈을 어제저녁 도로 가지고온 사례금봉투속에 더 넣어 주머니에 찌르고 집을 나섰다. 그가 김창수네 집에 다달았을 때 창수도 벌써 일어나 마당에서 허드레일을 하고 있었다. 봉우를 보자 창수의 얼굴에는 저으기 놀란 빛이 떠올랐다.

《아니, 이 새벽에 어떻게?》

봉우는 서슴없이 안주머니에서 돈봉투를 꺼내어

창수앞에 내밀며 간청을 했다.

《이걸 분회조직에서 받아주십시오. 총련애국사업에 써주십시오. 나의 소원입니다.》

김창수는 감동의 빛이 어린 눈으로 그를 이윽히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가슴에 끓어오르는 걱정을 못이겨 그의 손을 움켜잡았다.

《봉우씨.》

《창수씨. 나도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조선사람의 얼을 가지고 땀땀이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모르지만 나에게게도 분회일을 맡겨주십시오.》

눈에 뜨거운것이 글썽 피여오른 조봉우의 얼굴에는 굳은 결심이 아롱져있었다.

김창수도 코등이 시큰했다. 그는 봉우의 손을 힘주어 잡고 기쁨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봉우씨, 정말 잘 생각했습니다. 우리 같이 손잡고 애국사업에 힘씁시다.》

김창수와 헤어져 집으로 돌아오는 조봉우의 걸음은 날듯이 가벼웠다.

해돋이의 맑은 해발이 부채살같이 퍼지고있었다. 그 붉은 빛발을 온몸에 받아안으며 그는 마음속으로 부르짖었다.

(나는 조선사람이다. 나에게도 김일성원수님께서 현명하게 이끄시는 영광스러운 조국이 있다.)

자기 집 현관문앞에서 걸음을 멈춘 그는 문기둥에 걸려있는 문패를 떼어 무슨 더러운 물건이나 버리듯 멀리 내동댕이쳤다.

다음날 아침 그 자리에는 《조봉우》라고 커다랗게 쓴 새 문패가 자랑스럽게 걸려있었다.

## 다듬은말

본래 말

다듬은 말

본래 말

다듬은 말

나팔구

나팔아구리

날인하다

(도장)찍다

나포하다

불잡다, 불들다

남새륜작재배

남새그루바퀴키우기

난감하다

딱하다

남자복

남자옷

난공사

어려운 공사, 힘든 공사

납본

책바치기, 바치는 책

난류

더운 흐름

납부하다

바치다, 물다

난류성어족

더운 흐름물고기

납입하다

바치다, 들여놓다, 물다

난문제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

넌넌이

해마다

난방

방덥히기

년령

나이

난방장치

방덥힘장치

년륜

해돋이

난사

어려운 일, 딱한 일

년세

나이

난처하다

딱하다

년장자

나이 많은 사람, 나이

난해하다

알기 어렵다, 어렵다

많은 분

날조하다

꾸며내다

노메르

번호

날염

무늬찍기



# 래양의 품

량우직

## 1

조국방문단을 태운 《만경봉》호는 동해의 검푸른 물결을 헤치며 조국으로 조국으로 다가가고있었다.

밤이 퍼그나 깊었으나 최경수는 선실에 내려가지 않고 하많은 생각에 잠겨 갑판을 거닐고있었다.

바다의 밤공기는 몹시 차거웠다. 소금기를 머금은 녹녹한 해풍이 최경수의 봄외투자락은 마구 날리었다.

검푸른 밤하늘에는 은구슬을 뿌린듯 총총한 별들이 유난히 밝은 빛을 뿌리며 반짝이고 늑실늑실 굶니는 물결이 쉬임없이 배전을 철썩철썩 때리었다.

그 소리를 듣느라니 40년전 일제의 강제징용에 결려 사흘동안이나 오물장같이 악취가 코를 찌르고 어두컴컴한 배밀창에 짐승처럼 갇히어 일본으로 끌려가던 때의 일이 생각나 최경수는 저절로 몸서리가 쳐졌다.

그때로부터 그는 산설고 물설은 이국땅에서 민족적차별과 멸시, 고역과 가난에 시달리며 얼마나 많은 피눈물을 흘렸던가. 탄광과 군수공장에서 얼마나 많은 동포들이 억울하고 무참한 생죽음을 당했던가. 나라 잃은 민족의 신세란 정말 상가집 개만도 못했다. 그것은 생각만 하여도 이가 갈리고 치가 떨리는 암흑의 세월이었다.

(그러던 내가 진정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이끄시는 사회주의조국의 땃땃한 해외공민으로 꿈결에도 그림던 조국으로 가고있단말인가.)

생각할수록 이 엄연한 현실이 최경수에게는 어떤 지 꿈만 같이 여겨졌다. 그의 가슴은 그칠새 없이 배전에 철썩이는 파도처럼 마냥 설레이기만 하였다.

그러면서도 최경수는 가슴깊이 웅이처럼 땃혀내려가지 않는 한가지 사연으로 하여 마음이 쓰리었다.

(우리 영숙이는 지금 조국땅 어느곳에서 무엇을 하고있을까?)

최경수의 눈앞에는 제 어미를 잃은 갓난아이때의 영숙이의 얼굴모색이 어렵듯이 떠오르고 20여년전에 있었던 가슴아픈 추억이 머리에 되살아왔다.

당시 최경수는 막벌이로동으로 입에 풀칠을 하며 근근히 네식구의 목숨을 이어가고있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중에 송명호라는 한 청년이 있었다. 그는 남조선에서 피뢰군 강제징병을 기피하여 일본으로 밀항해온 사람이었다. 도시빈민의 아들로써 어려서부터 별의별 고생을 다 겪으며 자란 명호는 인정과 의리가 깊은 열혈청년이였다. 그래서 그는 무척 동포들의 사랑을 받았었다.

명호는 일본에 건너온지 세해만에 같은 막벌이로동을 하던 부모 없는 한 조선인처녀와 살림을 시작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의 안해가 첫 해산을 한지 두달밖에 안되는 때에 어떤놈의 밀고로 명호는 밀항건으로 일본경찰에 잡혀 오무라수용소에 끌려갔다. 마침내는 남조선으로 강제송환을 당하고말았다.

명호는 일본경찰의 포승에 묶이워 끌려가면서 《경수형님- 안해와 우리 갑숙이를... 우리 갑숙이를 부탁드립니다-》

하고 피타는 목소리로 당부를 하였다.

명호의 안해는 마른벼락과도 같이 머리우에 떨어진 불행에서 받은 충격과 임신한 몸으로 막달이 잡힐 때까지 고된 로동을 한 후파로 남편이 잡혀간지 석달만에 한많은 세상을 등져버렸다. 하여 갓난아이만이 외토리로 남았다.

최경수는 사람의 도리로서 마땅히 갑숙이를 맡아 키워야 하였다. 그러나 처음에 안해한테 그 말을 하기가 여간만 힘들지 않았다.

가뜩이나 쪼지게 가난한 살림살이에 공교롭게도 그의 안해 역시 명호의 안해보다 한달 앞서 몸을 풀었고 (딸애였는데 이름은 영숙이였다) 그우로 아들이 둘씩이나 있었다. 게다가 실상가상으로 안해는 산후탈로 시름시름 앓기까지 했다.

이런 형편에서 아무리 무뎠던 안해이지만 남의 갓난아이까지 맡아길러달라고 하기가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는데 벌써 그의 눈치를 알아챈 안해쪽에서 먼저 고생스러워도 갑숙이를 맡아키워야지 어찌겠느냐고 하면서 선뜻 나섰다.

최경수는 그러는 안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다.

그러나 산후탈을 앓는데다가 먹는것이 없는 안해는 젖이 나지 않아 두 아이는 고사하고 한 아이의 배를 채우기조차 힘들었다. 우유를 사대자니 조들리는 살림살이에 힘이 부치였다. 그 사정을 알리없

는 갓난것들은 해종일 배고프다고 마른 젖가슴을 허비며 자지리지게 울어댔다. 그 모양이 애처로와 안해도 갓난것들과 같이 눈물을 찢다.

그러던 어느날이었다.

그날도 최경수는 일감을 얻지 못하여 사방으로 돌아다니다가 밤이 퍼그나 늦어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그가 방안에 들어서자

《인제 오세요?》

하며 두 갓난것은 량쪽에 끼고 누웠던 안해가 자리에 일어나았으며 먼저 그의 손부터 여겨보았다.

순간 최경수는 자기의 빈손을 어찌했으면 좋을지 몰랐다.

안해의 텅텅 부은 얼굴에는 어두운 그늘이 졌다.

방안에는 팽장고갈이 써늘한 팽기가 끼쳤다.

최경수는 몸이 오싹 떨리어 쇠줄로 열기설기 얹어맨 깨여진 사기화로안을 기웃이 들여다보았다. 련탄불이 다 사그라져 흰 재만 남았다.

최경수는 저절로 한숨이 나갔다. 이제는 련탄도 다 떨어진 모양이었다.

《래일아침까지면 우유도 다 떨어지는데 오늘도 빈손으로 돌아오시면 어떡해요. 두 아이가 어떻게 나 올려대는지 아빠트사람들이 자지 못하겠다고 야단을 쳐요.》

안해는 사뭇 애달픈듯 눈물이 글썽해서 고시랑거리었다.

최경수는 가슴이 꼭 막히었다. 무어라고 할 말이 없었다. 아침에도 안해는 우유때문에 걱정을 했었다. 그러나 오늘도 일거리를 잡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온것이였다. 다른 동포들도 모두 어렵게 지내는 처지여서 어데 가서 돈을 돌릴데도 없었다.

그는 안해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어 무겁게 입을 열었다.

《당신에게 너무 고생시켜 안됐소. 래일은 어데 가서든 번통을 해보겠소.》

최경수는 벌써 몇번이나 이런 말로 안해를 달렸는지 몰랐다.

《아이들이 불쌍해서... 저라도 몸이 성하면 모르겠는데... 이러다가 두 아이가 다 잘못될가봐 겁이 나요. 정말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 사정이 딱한걸 보구 갑숙이를 데려다 기르겠다는 집도 있지만 그 애 부모들 생각을 해서라도 어떻게 남을 주겠어요. 차라리 영숙이를 주면 주었지...》

안해는 돌아왔더니 얼굴을 싸쥐고 서럽게 울었다.

지금까지 구차한 살림살이를 근근히 지탱해나가

느라고 별의별 고생을 다 하면서도 언제 한번 불평을 말한적이 없는 안해였다. 그런 그가 오죽하면 그런 하소연을 하며 울기까지 하랴싶어 최경수는 마구 가슴이 찢기는것 같았다.

무거운 침묵이 가슴을 짓누르는 방안에는 안해의 설움에 찬 울음소리만이 잔잔히 흘렀다.

최경수는 다 해어진 포대기속에서 자고있는 두갓난것의 얼굴을 애처로운 눈길로 들여다보았다. 영숙이는 코가 오목하고 눈이 오목한것이 제 어미를 닮았는데 갑숙이는 들창코에 귀가 큰것이 저의 아버지를 닮은것 같았다.

잠결에도 배가 고파서인지 영숙이는 마른 입술을 오물거리며 젖꼭지를 빠는 시늉을 하며 포대기속에서 팔다리를 꼬지락거리었다. 그러다가 별안간 킁킁거리더니 울음을 터뜨리었다. 그러자 갑숙이도 덩달아 잠을 깨고 보채기 시작했다.

지금껏 쿨쩍거리고있던 안해는 급히 눈물을 거두고 두 아이에게 번갈아 젖꼭지를 물리었다. 그러나 그것은 빈젖이였다. 아이들은 더욱 바스러지는 소리를 내며 울어댔다. 그 울음소리에 코딱지만한 방안이 금시 떠나갈듯싶었다.

최경수는 눈앞에 벌어진 그 애달픈 광경을 보지 말자고 눈을 감았다.

아이들은 더욱더 볼에 덴것 같이 울어댔다.

최경수는 참다 못하여 방옷목에 팔베개를 하고 아무렇게나 누워버리었다.

(이 어려운 고비를 어떻게 넘길수 있단말인가?)

최경수는 눈앞이 캄캄했다. 계속되는 일본경제의 불경기속에서 앞으로도 생활이 나아질 가망은 없었다. 아니 앞날의 일보다도 당장 래일부터 아이들에게 먹여야 할 한두명의 우유가 문제였다. 안해의 몸은 날마다 쇠약해져가고있었다.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두 갓난것들뿐아니라 안해마저도 잘못될것 같았다.

몸도 성하지 못한 안해가 두 갓난것을 말아기르기에 현실은 너무나도 가혹했다.

이 세상은 욕망대로 살수 없는 세상이었다.

아무래도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지금 그대로 질질 끌다가는 더 큰 변이 날것 같았다.

(그렇다면...)

최경수의 눈앞에는 불현듯 일본경찰에 붙잡혀 가면서 안해와 갑숙이를 부탁하던 명호의 모습이떠 눈물속에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자기들 내외에게 《우리 갑숙이를... 갑숙이를...》 하고 당부하던 명호의 안해의 애처로운 모습이 떠올랐다.

(안될 말이지. 갑숙이를 남한테 준다면 내가 무슨

사람인가.)

최경수는 머리를 강하게 저었다.

《흐음-》

그는 신음소리를 내며 또다시 몸을 뒤척이었다.

(이대로는 더는 견딜수 없지 않은가. 이대로는 ...)

밤은 깊어만 갔다.

울음에 지쳐버린듯 보채던 아이들도 이제는 잠잠했다.

그러나 최경수는 잠을 청하지 못하고 피로운 생각을 안고 모태기였다.

한밤을 꼬박 뜬눈으로 지낸 그는 아침에 안해를 앞에 불러놓고 온밤 생각하고 또 생각한 말을 꺼냈다.

《여보, 당신도 말했지만 아무래도 두 아이를 다 기를수는 없을것 같소. 그러니 한 아이는 그 집에 주시다.》

최경수의 목소리는 떨리었다.

안해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어떻게 그런 무서운 말을...》

《나도 가슴이 아프오. 그렇지만 어찌겠소.》

《그것만은... 그것만은... 나는 아무 애도 줄수 없어요...》

안해는 이렇게 부르짖으며 두손으로 얼굴을 싸쥐고 일어나 밖으로 달려나갔다.

그러나 그것은 안해의 순진하고 간절한 욕망에 지나지 않았다.

돈이 모든것을 지배하는 그 사회에서 그의 욕망은 며칠을 못가서 짓밟히고말았다.

최경수네 부부는 송명호내외에 대한 의리를 지켜 영숙이를 김만호란 동포네 집에 맡기었다. 김만호란 사람은 동포들가운데서 인망이 높은 사람이였다.

그 집에 영숙이를 맡긴 최경수내외의 쓰라린 가슴을 어루만져주는 위안거리는 자기들에게는 아직 친자식들이 둘씩이나 있고 낡은 정보다 기른 정이라는 말도 있지만 갑숙이도 기르면 친자식과 다름이 없다는 그것이였다.

그런데도 영숙이를 김만호네 집에 맡기고 돌아온 안해는 며칠을 자리에 몸져누운채 일어나지 못했다.

그후 김만호네는 자기 집 사정으로 인차 다른 도시에 옮겨갔는데 한해남짓 지난 어느날 최경수는 그에게서 뜻밖의 편지를 받았다. 편지에는 김만호 일가가 조국으로 귀국하게 되었는데 조국에 가셔도 영숙이를 친딸로 생각하고 잘 키우겠다는 사연이 적혀있었다.

그런데 김만호네가 니가다에서 떠나는 날자는 하

루밖에 여유가 없었다.

그날밤으로 최경수내외는 부랴부랴 니가다로 떠났다.

다음날 아침에 니가다에 도착한 그들은 곧바로 부두로 나갔다.

부두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있었다. 귀국자들은 벌써 배에 오른 뒤였다.

사람들이 손에손에 든 공화국기발과 꽃다발이 물결치는 속에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만세의 환호성, 배우에 있는 떠나는 사람들과 아래에 있는 배에 우는 사람들이 서로 마구 손을 흔들며 찾고부르는 웨침소리에 부두는 떠나갈듯하였다.

최경수내외는 정숙이(그들의 둘째딸)와 갑숙이를 각각 하나씩 맡아업고 술렁이는 사람들의 물결을 헤치며 앞쪽으로 앞쪽으로 나아갔다.

퍼그나 시간이 걸려서야 그들은 맨 앞쪽에 나설수 있었다. 사람들속에서 비비운 그들의 전신은 온통 땀에 젖었다. 그들이 서있는 자리에서는 배우의 사람들의 모습이 똑똑히 보이였다. 최경수내외는 배우에 죽 늘어서서 저저마다 손을 흔들며 무어라고 부르짖고있는 사람들을 몇번이고 훑어보았다. 그러는데 안해가 문득

《저기 김만호씨가 있어요.》

하고 손을 들어 한쪽 끝을 가리키었다. 최경수도 안해의 손길을 따라 그쪽으로 눈길을 보내였다. 안해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 최경수도 안면이 있는 김만호가 아이를 안은 녀인과 같이 서서 누구에겐지 손을 흔들어보이고있었다.

최경수와 안해는 거의 동시에 그들을 향해 손을 높이 쳐들며 큰소리로 웨치였다.

《김만호씨-》

《영숙아-》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의 작별에 정신이 팔린 김만호내외는 그들의 부름소리를 듣지 못하였다.

봉- 출발을 알리는 배고동소리가 부두의 소음을 누르고 울리었다.

《김만호씨-》

《영숙아-》

최경수내외는 목이 터지라고 부르고 또 불렀다.

그러나 출발직전의 한순간 더욱 들끓기 시작한 부두의 소음이 그들의 애라는 부르짖음소리를 삼켜버리었다.

봉- 두번째 배고동이 울리자 드디어 배가 서서히 움직이며 부두에서 멀어져갔다.

《영숙아-》

안해는 울음섞인 목소리로 딸아이의 이름을 부르

고는 얼굴을 찌푸렸다.

최경수의 두볼에서도 뜨거운것이 줄지어 흘러내렸다.

(갑숙이가 스물두살이 됐으니 영숙이도 같은 나일테지... 조국의 따사로운 품에 안겨 그 애는 얼마나 골골한 처녀로 자라났을까?)

최경수는 눈앞에 성장한 딸의 모습을 제멋대로 그려보았다. 대학생복을 입은 영숙이도 그려보고 어느 공장 기계앞에서 일하는 영숙의 모습도 그려보았다. 그런가 하면 배우가 되어 무대에서 춤을 추는 영숙이, 농장벌에서 농사일을 하는 영숙이도 그려보았다.

(하지만 제 어미를 닮은 오목눈은 옛모습 그대로 일테지...)

최경수는 축축히 젖은 눈굽을 훔치었다.

그의 마음을 알아주기나 하듯 《만경봉》호는 조국으로, 불같이 그리운 조국으로 쉬임없이 가고있었다.

## 2

최경수가 조국의 품에 안긴지도 어느덧 보름나마 지났다.

유서깊은 만경대 고향집... 혁명박물관... 황해제철련합기업소와 금성트락포르공장... 묘향산의 절경... 화려한 극장무대...

참관의 드바쁜 나날이 흘러갈수록 최경수는 가슴에 끓어오르는 흥분과 감격을 견줄수 없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끝없이 룡성발전하는 조국의 장엄한 모습은 참으로 상상을 초월하는것이였다. 날마다 이어가는 참관길에서 보고 듣는 모든것을 통하여 최경수는 어제날 망국의 암운속에 빛을 잃었던 이 땅우에 강력한 사회주의조국을 일떠세우시고 인민의 락원을 꽃피우신 어버이수령님의 위대성이 더욱 가슴깊이 새겨지고 주체조선의 해외공민된 민족적궁지감에 가슴이 터질듯 부풀어오르는것이였다.

이렇듯 뜻깊고 보람찬 나날을 보내는 가운데서도 최경수의 마음한구석에서는 영숙이에 대한 생각이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품속에서 골골한 처녀로 자랐을 영숙이의 모습을 눈앞에 그려보며 그리움에 사무쳐 밤잠을 이루지 못한적도 한두번이 아니였다.

참관을 다니는 길에서 영숙이나이포래의 처녀들이 깔깔대며 지나가는 모습을 볼 때면 그들속에 혹시 오목눈을 가진 영숙이가 끼여있지나 않을까하는 생각에 저절로 걸음이 멈춰지기도 하였다.

날이 갈수록 더해지는 그리움에 못견디어 때로는 안내원 박동무에게 영숙이를 찾아달라고 부탁할가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안해가 《조국에 가시면 영숙이를 보고싶어도 찾지 마세요. 그 애 양부모들이 달리 생각할수도 있잖겠어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고있을 그 집안에 그늘이라도 지게 하면 어찌겠어요.》 하던 말이 떠올라 그만두었다.

이렇게 그의 리성은 안해의 말이 옳다고 긍정하고있었으나 그의 감정은 여전히 딸에 대한 그리움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것은 거의 본능적인것이라 할수 있는, 리성의 힘만으로는 어쩔수 없는 일인가싶었다.

오늘도 오후에 **김일성**종합대학을 참관하고 숙소로 돌아온 최경수는 로대에 앉아 저녁노을빛을 담고 유유히 청류벽을 감돌아흐르는 대동강을 바라보며 영숙이생각에 잠겨있었다. 종합대학에서 술한 처녀대학생들을 만나고온 뒤여서 그런지 오늘따라 영숙이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가슴에 사무치였다.

(조국방문날자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애를 끝내 만나지 못하고 돌아간단말인가. 아니, 만나지않는것이 옳아. 그 애는 지금의 부모들이 친부모인줄 알터인데 내가 만나서 무슨 좋은 일이 있겠는가, 남이 정성다해 키워놓은 그 애앞에 내가 너의 친아버지다 하고 나서기도 체면없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최경수는 더욱 가슴이 쓰리였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십니까?》

별안간 뒤에서 나는 말소리에 놀라 최경수는 혼자생각에서 깨여났다.

언제 나왔는지 안내원 박동무가 뒤에서 그를 지켜보고 서있었다.

최경수는 그의 물음에 마음이 찢리여

《아니, 뭐... 별로...》 하고 어물어물 대답하였다.

그러자 박동무는 그의 옆에 와서 앉더니 심중한 낯색을 짓고 묻는것이였다.

《어디 몸이라도 편찮으신게 아십니까? 어쩐지 낯색이 좋지 않으신것 같습니다.》

《원 별말씀을... 나는 아무 말도 없습니다.》

최경수가 웃음진 얼굴로 이렇게 말하자 박동무는 잠시 무슨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분회장동지, 이렇게 물어서 안됐습시다만 무슨 근심되는 일이라도 있는게 아십니까?》

최경수는 가슴이 섬찝했다.

(안내원동무가 어떻게 내 마음속을...?)

최경수는 차라리 이런 기회에 영숙이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 놓았으면 속 시원할것 같았으나 또다시

안해의 말이 떠올라 인차 그런 생각을 억눌러버렸다. 그는 짐짓 웃어보이며 말했다.

《원 안내원동무두… 아 그토록 보고싶던 조국의 품에 안겨 이 세상 락을 다 보고있는 사람에게 무슨 시름스러운 일이 있겠소.》

최경수는 이렇게 돌려맞췄으나 박동무의 얼굴에서 의문의 빛이 지워지지 않았다.

마침 관리원아주머니가 급히 로대에 나타나더니 박동무에게 전화가 왔다고 알리었다. 하여 그들의 이야기는 중단되었다.

최경수는 저도모르게 안도의 숨이 나갔다.

(안내원동무가 캐여물으면 어쩔번했는가.)

그는 다시는 영숙이생각때문에 얼굴에 그늘이 지지 않도록 하여야겠다고 단단히 속다짐을 했다.

그로부터 사흘후였다.

최경수네는 오전에 세상사람들이 모두 경탄해마지않는 평양 9.15주락아소를 방문하고 오후에는 쉬었다. 무슨 까닭인지 이날따라 안내원 박동무가 아침부터 보이지 않았다. 9.15주락아소에도 다른 안내원동무가 따라갔었다. 혹시 자기들때문에 요즘 무리를 해서 몸이라도 편찮은것이 아닌지 걱정이 되어 다른 안내원동무에게 물었더니 무슨 불일이 있어 어디에 갔다는것이였다.

저녁무렵이였다. 최경수는 다른 불일이 있어 안내원들의 방에 들리었다. 그런데 방금 돌아오는 길인듯 박동무가 봄외투도 벗지 않은채 책상에 마주앉아 무슨 문건을 보고있었다.

그동안에 정이 폭 들어 그를 보지 못한것이 불과 하루밖에 안되지만 최경수는 여간만 반갑지 않았다.

박동무는 자리에서 일어나 여느때나 다름없이 최경수를 친절히 맞아들였다.

《그렇지 않아도 좀 물어볼 말씀이 있어서 방에 찾아가려던참이였습니다.》 하고 박동무는 의자를 권했다.

《그래요?》

최경수는 그가 권하는 자리에 앉아 별안간 무슨 일인가 하고 다음말을 기다리었다.

이윽고 박동무가 물었다.

《분회장동지, 영숙이라는 따님을 말하기르는데 아버지의 이름이 김만호라는분이 틀림없습니까?》

최경수는 뜻밖의 물음에 깜짝 놀라 어안이 뻥뻥하였다.

《아니 그 일을 어떻게?...》

《사실은 함께 오신 리선비아주머니에게서 들었습니다.》

리선비아주머니는 같은 분회일을 하는 사이여서

영숙이의 사연을 처음부터 누구보다 잘 알고있었다.

최경수는 미리 그의 입을 막지 못한것이 후회되었다.

《원 너자들이란...》

《아닙니다. 이따금 분회장동지의 얼굴에 그늘이 지기에 제가 무슨 영문인지 몰라 그 아주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하고 박동무는 계속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있을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숙이를 찾도록 제기했습니다.》

《아니 그 문제를 제기했단말입니까?》

최경수는 저으기 놀랐다.

《그래서 각지에 수소문하여 일본귀국자들중에서 김만호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몇사람 찾기는 했는데 알아보니 그들은 모두 영숙이의 양아버지가 아니였습니다.》

순간 최경수는 서운한 생각보다도 조국동지들에 대한 고마움에 목이 확 메였다. 그 고마움에서도 그는 자기들에 대한 조국의 사랑을 가슴뜨겁게 느끼었다.

(도대체 나나 영숙이가 무엇이길래...)

그 고마움에 목메일수록 공연한 일거리를 만들어 조국동지들에게 그런 수고와 걱정을 끼친 자신이 그지없이 죄스러웠다.

그는 박동무의 손을 부여잡고 물기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안내원동무, 그 일에 대해서는 더 마음을 쓰지 말아주시오. 그 애야 이미 남에게 준 애가 아니요. 부모로서 보고싶은 정이야 어찌 없겠소만 영숙이도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품속에서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나고있을텐데 그이상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소. 나는 그 애를 못만나도 조금도 섭섭하지 않소. 그러니 이제는 다 잊어주시오. 이젠 내가 진심으로 부탁하는겁니다.》

박동무는 잠자코 듣고만 있었다.

### 3

일본에 돌아갈 날이 다가올수록 조국방문단원들은 더욱 분명한 나날을 보내었다.

천하의 명승 금강산에서 사흘동안 즐거운 휴식을 마치고 평양에 돌아온 최경수는 밤늦도록까지 책상에 마주앉아 《조국방문일지》를 한장한장 번지며 일본으로 돌아가서 분회동포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거리를 정리하고있었다. 그러느라니 그동안 보고들은 모든것이 머리에 되살아와 감격과 흥분에 또다시 설레이는 가슴을 견잡을수 없었다.

별안간 나드는문에서 다급한 손기척소리가 났다.

《네, 들어오십시오.》

최경수는 의자에서 일어났다. 문이 열리더니 박동무가 한 책임일군과 같이 방안으로 급히 들어왔다. 그 책임일군은 여러번 만나 최경수도 잘 아는 사람이었다.

최경수가 자리를 권할 사이도 없이 그 책임일군은 우선우선한 얼굴로

《급히 알려드릴 일이 있어서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하고 저르기 흥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분회장동무, 기뻐하십시오. 따님을 찾았습니다.》

《네?! 우리 영숙일요?》

최경수는 자기의 귀를 의심하였다.

(그 애를 찾다니?)

《네, 영숙이를 찾았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찾아주셨습니다.》

《네?!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 영숙이를 찾아주셨단 말씀입니까?》

최경수는 책임일군의 말을 어떻게 리해했으면 좋을지 몰랐다. 자기로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일이였다. 그는 그저 무슨 꿈을 꾸는것만 같았다.

《며칠전에 어버이수령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여 일본에서 온 조국방문단성원들의 건강과 생활에 대해서 하나하나 물으셨습니다. 그때 분회장동무가 딸을 아직 만나지 못한 사연을 아시게 된 어버이수령님께서 안색을 흐리시더니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분회장동무가 딸은 만나지 못한것은 아직 동무들의 성의가 부족하기때문입니다. 조국에 온 사람이야 우리 땅에 있겠지 어데 갈데가 있습니까. 분회장동무가 모처럼 조국에 와서 딸을 못만나고 가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꼭 그 딸을 찾아서 만나게 해주어야 합니다.>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손수 영숙이를 찾을 조치를 취해주셨습니다.

최경수는 가슴속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걱정을 못이겨 금시 터치려는 울음을 가까스로 참았다.

책임일군은 감격에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하였다.

《그런데 알고보니 영숙이를 기른 양아버지의 본명은 김만호가 아니라 김순철이었습니다. 김만호는 일본에서 살 때 필요에 따라 쓴 가명이었습니다. 영숙이는 지금 ○○시에서 사범대학 졸업반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숙이의 양아버지는 그애의 성을 자기 성으로 고치지 않고 최가로 그냥두었습니다. 영숙이한테도 자기네 집에서 키우게 된 사연을 다 이야기해주고 부모님들 생각을 해서라도, 공부

를 잘해서 훌륭한 나라의 기둥감이 되어야 한다고 늘 가르치곤했답니다. 영숙이는 매일아침 양부모들과 같이 여기로 옵니다.》

최경수는 더는 가슴에 끓어오르는것을 참을수 없었다. 그는 《어버이수령님》 하고 목메인 소리를 하며 오열을 터치고야말았다.

(제가 무엇이기에 수령님께서는 이토록 크나큰 사랑을 베풀어주십니까. 망국노의 설움은 피눈물을 뿌리며 이국땅에서 값없이 살아가던 저에게 영광스러운 조국을 안겨주시고 아무것도 모르던 저를 총련일군으로 키워주신것만도 그 은혜 갚을길 없사운데 이국땅에서 헤여졌던 딸자식까지 따사로운 조국의 품속에서 만나게 해주시니 그 은정을 무엇으로 다 갚을수 있겠습니까. 어버이수령님...)

최경수는 곁에 사람들이 서있는것도 다 잊어버리고 어깨를 크게 들먹거리며 울고 또 울었다.

다음날 아침이었다.

방안에는 유난히도 밝은 해살이 비쳐들고있었다.

하많은 생각과 뜨거운 눈물속에 한밤을 뜬눈으로 지새운 최경수는 초조한 마음을 달래며 방안을 서성거리었다.

복도에서 발자국소리가 들려왔다.

(영숙이가 오는가?)

그는 가슴을 울렁거리며 귀를 강구었다. 그러나 발자국소리는 차츰 멀어져갔다. 그는 혼자 허거픈 웃음을 짓고 돌아서서 창문가로 다가갔다. 창문밖에는 아침해빛을 반사하여 눈부시게 빛나는 대동강의 흐름이 바라보이였다.

(정말 영숙이가 올까? 사범대학졸업반 학생이라지... 공부나 잘하는지?... 그런데 왜 아직 오지 않을까? 혹시 못오는거나 아닐까? 그럴수야없지...)

그는 손목시계를 들여다보고나서 또다시 잦은 걸음으로 방안을 서성거리었다.

마침 그때였다.

복도에서 급히 걸어오는 발자욱소리가 나더니 문기척소리와 함께 박동무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는 기쁜 목소리로 알리었다.

《분회장동지, 따님이 왔습니다.》

최경수의 가슴은 터질듯이 쿵쿵 찢었다. 그가 막 달려나가려는데 어제밤에 찾아왔던 책임일군이 조선옷대학생복차림을 한 몸매가 늘씬하고 얼굴이 약간 둥그스름한 처녀를 앞세우고 들어왔다.

최경수는 울렁이는 가슴으로 처녀의 얼굴을 여겨

보았다. 오목한 눈, 오목한 코... 그 얼굴에는 갓난 아이때의 영숙이의 모습이 어렴풋이 남아있었다.

영숙이가 틀림없었다.

최경수는 달려가 영숙이를 와락 끌어안고싶었으나 어떤 일인지 발이 얼어붙거나 한것처럼 떨어지지 않았다.

영숙이도 오목한 감장눈으로 뚫어지게 그의 얼굴을 마주지켜볼뿐 못박힌듯 그 자리에 서있었다. 다만 가슴이 높뛰는것이 알리었다.

부녀가 이렇게 마주서있는데 뒤편에서 들어온 머리가 희끗거리는 사나이가 제잡담하고 경수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와 그를 얼싸안았다. 김만호였다. 경수도 그를 마주안았다.

《이게 몇해만이에요.》

《영숙이를... 영숙이를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소. 고맙소... 정말 고맙소.》

최경수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있었다.

《원 별소릴... 영숙인 우리가 키운게 아니라 어버이수령님께서 키워주셨소.》

김만호는 이렇게 말하고는 영숙이를 돌아보고 일렀다.

《영숙아, 이분이 내가 늘 말하던 너의 친아버지다. 어서 인사를 올려라.》

그러나 영숙이는 눈에 눈물이 그들먹이 피어오른 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저 애가 왜 저렇가? 어서 내 품에 달려와 안기지 못하구... 자기를 남한테 준 이 애비를 원망해서일까?...)

최경수가 이런 자책감에 가슴을 조이는데 별안간 영숙이가 《아버지!》 하고 울음을 터뜨리며 그의 품에 달려와 안기었다.

최경수는 두팔로 으스스하게 딸을 껴안았다.

《아버지.》

영숙이는 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어깨를 떨며 흐느끼었다.

방안의 사람들도 모두 눈물을 흘리었다.

딸의 잔등을 떨리는 손으로 더듬는 최경수의 얼굴에도 뜨거운것이 비오듯 흘러내리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뇌이였다.

(애야, 나를 용서해라, 그때 돈이 판을 치는 일본 땅에서는 어쩔수 없었다. 그렇기만 어버이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조국땅에서 이렇게 다시 만나지 않았니. 우리들이 이렇게 만나듯이 이제 갑숙이도 경애하는 수령님의 품속에서 아버지를 만날 날이 꼭 온다.)

영숙이는 좀처럼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애야, 그만해라. 아버지와 같이 어버이수령님께 인사를 드리자.》

최경수는 물기어린 소리로 이렇게 말하고 영숙이를 안았던 팔을 풀었다. 그리고는 옷깃을 여미고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앞으로 다가갔다.

울음을 그친 영숙이도 옷매무시를 바로잡고 아버지옆에 나란히 섰다.

최경수는 경건한 마음으로 어버이수령님을 우러러보며 목멘 소리로 말썸을 올리였다.

《어버이수령님, 이국땅 찬바람속에서 헤어졌던 저희들 부녀는 이 화창한 봄날 한없이 자애롭고 인자하신 태양의 품-수령님의 사랑의 품속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어버이수령님, 고맙습니다.》

아버지와 딸은 자기들에게 오늘의 기쁨과 행복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수령님께 다함없는 감사와 충성의 한마음을 담아 머리를 깊이 숙여 삼가 큰절을 올리였다.

## 한가정에서

리량호

유심이가 분회사무소를 나선것은 밤이 퍼그나 깊어서였다.

비에 함초롬히 젖은 양철지붕들이 띠엄띠엄 서있는 가로등빛을 받아 번들거리고 뻑뻑이 들어선 낮은 처마들에서는 락수들이 툭툭 떨어졌다.

유심이는 비가 멎은것을 확인하고서도 이윽도록 하늘을 쳐다보다가 고개를 떨구어 비에 젖은 자전거를 바라보면서 한참 서있었다.

그는 자전거를 꼼꼼히 닦아서 끌고 질척질척한 골목길을 저벅저벅 걸어나왔다.

큰 길목에 이르자 걸음을 멈추고 또 멍하니 앞을 보다가 뜨직뜨직 걷기 시작하였다.

자동차들이 달리며 쥐어뿌리는 물바래를 피할념도 하지 않고 시름이 잔뜩 실린 걸음이었다.

《첫술에 배부르겠소, 그만하면 잘 했소. 힘을 냅시다.》

분회장의 말이 들려오는것 같았다.

유심이는 흠칫하고 섰다. 금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고개를 들고 사방을 둘러보았다.

성인학교 수업을 마치자마자 수강생들 앞이라는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자리에 퍼더버리고있었던 일이 떠올랐기때문이다.

50을 바라다보는 이때까지 사람들앞에라곤 나선적이 없는 그였기에 교단에 서니 주접이 들고 가슴부터 두근거리었다.

마음을 다잡으려고 할수록 몸가짐이 어색해졌다.

백묵은 칠판에 대기가 바쁘게 부러졌다. 손에 얼마쯤 힘을 주면 좋을지 가늠할수가 없었다. 그러니 더 초조감이 났다.

떨리는 마음을 가까스로 누르며 써놓은 글은 갖배운 아이들의 글과 같이 뻔뻔뻔했다. 지우고 다시 써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제목을 쓰고나니 이마에는 송골송골 땀이 돌아나고 부끄럼 잘 타는 처녀처럼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늘 쓰는 말조차 더듬거리지고 목소리는 자꾸 목구멍으로 기어들어갔다. 입안이 말라 연방 입술을 빨아가면서 수업을 했다.

강의를 마치고나니 온 몸이 땀으로 후줄근히 젖었다. 언제 어떻게 마쳤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수강생들 대하기가 먼구해서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퍼더버렸던것이다.

수강생들이 저마다 수고했다고 격려를 해주었지만 그 말소리는 아득히 먼곳에서 들리는것 같았다.

그가 수강생일 때 같으면 맨먼저 칠판을 닦는다, 책상을 치운다, 방을 쓴다 하고 말없이 서돌렸을것이지만 오늘은 그러지 못했다.

유심에게는 분회장의 말이 고마웠다. 하지만 착잡한 그의 마음을 달래줄만한 힘으로는 되지 못하였다.

(말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괜히 말은게 아닐가.)

그렇게도 굳게 마음먹고 나선 일인데 뜻대로 잘 안되니 강사를 끝까지 해낼것인지 자신마저 흔들리는것이였다.

하늘에서 또 비방울이 듣기 시작하였다. 그는 자전거를 탈 생각을 하지 않고 어깨가 축 처져 걸었다.

《들떠서 그러다가 망신이나 당하지 마소.》

남편의 말이 금방 집안에서 튀어나오는것 같았기때문이었다.

그가 강사를 말아나선것을 남편은 마뜩지 않게 여겼다.

남편에게는 학교구경도 못한 유심이가 성인학교에서 몇해 배운 말은 밀천으로 남을 가르치려고 덤벼거리는것이 경솔한것 같이 여겨졌을것이다. 뿐만 아니라 해마다 시작만 하다가 끝장을 못보는 성인학교사업을 말아서 제대로 하지 못하여 남의 말밖에 올라 망신을 당할것 같이하는 말이였다.

유심이는 자기 집에 문맹자를 두고 남한테만 성인학교에 나오라고 하자니 죄를 지은것만 같아 남편더러 글을 배우자고 했었다.

그러나 유심이가 하는 일을 가뜩이나 언짢게 여기던 남편에게서 도리어 가시돋친 말을 들었던것이다. 남편이 그러는것은 유심이가 망신당할것이 녀려되어 그러기도 하지만 보다는 안해가 강사로 나서면 남편인 자기가 문맹자로 있기가 거북스럽고 또 글을 배우라고 귀찮게 그럴것이 싫은데 있었다.

그도 남편을 앞에 앉혀놓고 선생이노라고 글을 가르친다는것이 썩스러울것 같아 그이상 말을 비치



지 못했으나 말은 강사사업은 꼭 해내겠다고 장담을 했던것이다.

그런데 강사로서의 첫사업이 이렇게 되니 맥이 탁 풀리었다.

하지만 그런 티를 남편에게는 보이고싶지 않았다.

그는 흘러내린 몇오리의 머리카락을 쓸어올리고는 태연히 집으로 들어섰다.

자리에 누웠어도 그 일이 새록새록 되살아와서는 지긋게도 머리속을 파고들면서 마음을 괴롭혔다.

(남을 가르치자고 마음먹은 내가 글 한자도 똑똑히 못쓰다니... 애당초 실력이 모자라는것을 알고나서지 않았던가. 배우자. 아니 남보다 더 배워야 한다.)

그는 밤새도록 뒤치락거리다가 결심을 하였다.

일어나는길로 분회장택에서 칠판을 얻어왔다. 글씨편습부터 하자는것이였다.

한 사나흘 분필글을 써보니 한결 나았다. 힘을 얼마나 넣으면 좋겠다는 료량도 생기고 집새도 제법들이 잡혔다. 글자에 차츰 자신이 생기기 시작했다.

부엌에서 밥을 짓다가도 저가락으로 허공에 글을 써보고 선반에 얹힌 그릇들을 보고 설명을 해보기도 하였다.

꽤 익숙해진것 같기도 하였으나 뭔지 성에 차지 않았다.

이궁리 저궁리 하던 끝에 한가지 생각이 피득 떠올랐다.

(웁지, 왜 진작 그 생각을 못했담.)

그는 성인학교 수업내용을 가지고 자기 집 아이들 앞에서 해보기로 작성했다.

유심이의 말을 듣자 아이들은 좋은 안이라고 대번에 찬성을 해나섰다.

그는 살그머니 남편의 기색을 살폈다. 남편한테서는 쓰다달다 반응이 없었다. 그러한 남편앞에서 하는것이 주저되었으나 오히려 잘 됐다싶어 련습겸 수업을 하였다.

가족들앞에서도 주눅이 들었으나 첫수업 때보다는 훨씬 수월했다.

시험수업을 마치자 아이들은 생글거리며 수고했다는 뜻으로 고개를 까닥거렸다.

《어머니, 읽기와 쓰기는 아주 잘된것 같은데 해설에서 떠듬거리니 자신이 없든것 같이 들려요.》

고급부에 다니는 딸애가 걱정스러운듯이 말했다.

《글쎄 하자고 한 일은 많은데 잘 안되는구나.》

《야 그만하면 꼭 선생님들 같은데요 뭘.》

중급부에 다니는 아들은 히죽히죽 웃으며 만족하라는듯이 어머니를 두둔해나섰다.

《넌 어머니말씀이면 그저 단줄 아니?》

《형 누난 어머니 발뒤꿈치에도 못따라가.》

아들은 그러면서 꼴을 돈구듯이 앓은채로 발을 들었다 놓으며 입술을 삐죽 내밀어보이였다.

《요것이...》

《됐다. 그만 해라. 너희들은 얼굴만 마주대면 신경이질이구나.》

유심이는 아이들이 그러는것이 싫지 않았으나 짐짓 나무랬다.

딸애는 동생을 보고 눈을 핏기죽거리더니 금시 잊은듯 정색을 했다.

《어머니 설명을 할 때에는 늘 쓰는 쉬운 말로 하시면 좋을것 같아요.》

역시 딸애는 요구가 높고 부족점을 정확히 보는것 같았다.

유심이는 귀가 번쩍 띄였다.

(웁구나, 늘 주고받는 말로 하면 되겠지. 그리고 웁지. 집에서처럼 말을 하면 쉽겠지, 그런걸 난 또...)

좋은 실마리가 잡힌것 같았다. 그의 얼굴에는 웃음이 확 피였다.

《아버지 그러찮으세요?》

딸애는 동의를 구하려는듯이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유심이도 의견을 듣고싶었던 차라 남편을 보았다.

《응 글쎄...》

남편은 어쩔 하고 마른기침을 낚였다.

남편은 유심이가 하는것을 보고 속으로는 제법이라고 생각했다.

밤이고낮이고 공부한다고 돌아다니는 유심이를 보고 남편은 쫓지도 않은것이 저렇게 다니다가 힘이 들면 그만두겠지 하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몰라보게 발전한것을 보고 사실 놀라고있었다.

그러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듯이 뻔히 쳐다보는 딸애를 대하니 속이 뜨끔했다.

《너희들 앞이니까 그렇지 다른 사람들앞에서야 잘되겠니.》

그는 말을 얼버무리고 다시 기침을 낚더니 슬그머니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는것이였다. 딸애는 아버지가 나가는 모습을 보다가 어머니에게 눈길을 돌렸다. 웬일이냐는 뜻이였다. 서운한 빛도 섞여있었다.

유심이는 남편이 자기가 하는 일을 못마땅해하는데 대해 섭섭하게 생각하다가 아이들앞이라는 생각에 얼른 말머리를 돌렸다.

《자 이제 너희들 공부나 하거라. 아버지는 급한

불일이 있어 그러신다.》

유심이는 불안해진 자기얼굴빛을 아이들이 볼까 봐 고개를 돌려 칠판을 닦았다.

방안에는 어수선했던 공기가 돌았다. 아들은 머리를 기웃거리다가 제방으로 돌아가고 딸애는 어머니의 기색을 살피며 무슨 말을 할듯할듯하다가 자리를 떴다.

아이들이 나가자 유심이는 후- 숨이 나갔다.

그는 한참 그런듯이 앉아있다가 일기장을 펼쳤다. 단 몇 줄이라도 쓰는것이 공부가 잘되어서 이제는 습관이 되었다.

시계는 열한시를 쳤다.

일기를 적다말고 생각에 잠겼다.

(왜 저렇가, 모자라는 점이 있으면 말이라도 해주지 않고 왜 덮어놓고 못마땅하게만 생각할까. 내가 너무 주체넘게 굴었을까.)

남편의 태도가 저으기 섭섭했다.

딸애한테도 그런식으로 대하는 남편을 아직 본적이 없었다.

남편은 지기 못지 않게 딸애를 귀여워하였고 웬만한 청은 다 들어주었다.

그럴 때면 오히려 유심이가 아이들의 버릇을 꾸힌다고 지청구를 했었다.

그러던 남편이 오늘은 어떻게 된 일인지 알수가 없었다.

한편으로는 남편이 수업을 시작하려 할 때 훌쩍 나가버려 반기는 아이들을 실망케 하면 어쩌나 하고 마음이 죄였었는데 못듣는척하면서도 수업을 마지막까지 들어준것을 다행으로 생각했다.

그래도 역시 결과는 아이들에게 어색한 감을 준것은 마찬가지였다.

(늦었는데 왜 안들어올까 그러다가 감기라도 걸리면 어쩌려구.)

귀는 문밖으로 기울여졌다.

《아이 배고파, 어머니 파자 없나요?》

공부를 마치고 응석투로 말을 하며 딸이 곁에 와 앉았다.

《자겠는데 군입질을 하면 못써.》

유심이는 밤중에 먹을것을 찾는 딸을 여태껏 본일이 없었다.

오늘따라 일부러 그러는 딸의 애릇한 정이 느껴졌다.

《어머니!》

《왜 그러니.》

딸은 어머니의 얼굴을 찬찬히 보더니 근심스레 말하였다.

《아버진 아직 안돌아오셨어요.》

《추운데 글썄...》

《또 영수네 집에 가셨나봐.》

딸애는 금시 뽀로통해져서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쓸었다.

《아버진 글은 배우지도 않고 만날 영수네 아버지하고 술만 잡수시면서... 옳지 않아요.》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유심이는 불부은 소리를 하는 딸을 버릇없이 군다고 꾸짖었다.

《속상하지 않으세요. 오늘 밤에 어머니가 그렇게 잘 하셨는데도 아버지는 왜 안된다고만 하실가요? 아버진 배우기 싫으니깐 무턱대고 안된다고 하시지 않아요. 아버진 어머니를 아니 너자들을 깔보시는 것 같아요.》

유심이는 딸애를 흘겨보았다.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못써.》

유심이는 나무라면서도 고분고분 말을 잘 듣던 딸애가 안타까와 참지 못해 하는 말을 들으니 속이 알팍지근했다.

그러면서도 남편이 늘 버릇처럼 너자들이 잘난체하고 다니지 말라고 하던 말이 생각났다.

(오늘밤에도 그런 뜻에서 한 말일가.)

유심이는 잘난체해서 한것도 아니였고 또 그럴수도 없다고 생각했다.

글을 배우는데서도 항상 너자들이 뒤떨어지고 숨을 죽이고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강사를 하는것이였다.

유심이는 새어나가려는 한숨을 들이키였다.

《어머니가 애를 쓰시는데 어쩌면 그렇게 대할수가 있겠어요. 올봄엔 저두 유치원교양원으로 가겠는데 집에 글 모르는 아버지를 두고... 남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딸의 목소리는 젖어있었다.

남편이 자기에게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딸애한테 걱정을 시키는것이 못내 가슴이 아팠다.

딸이 교양원으로 된다는것을 남편은 무척 기뻐하였다. 첫출근을 할 때에는 고운 옷을 입혀 보란듯이 내놓자고 하였다.

그러한 남편이 자기때문에 딸애가 안타까와한다는것을 알기나 하는지. 유심이는 남편이 야속하였다.

《어머니 오늘 제가 읽은 책엔요 어떤 학자가 평생 공부를 하고나서도 유언에서 <어이쿠, 내 한번 실컷 공부를 하고 죽었으면 한이 없겠다.>고했다는

말이 있었어요.》

딸애는 로학자의 흉내까지 내면서 말하였다.

일부러 딸애가 밝은 표정을 지으면서 그러는것을 보자 유심이의 얼굴에도 웃음이 피었다.

《그 학자는 욕심도 많구나.》

《그렇지요, 어머니? 호호호.》

《호호호...》

유심이는 따라 웃으면서도 그냥 지나칠 말이 아니라는것을 느꼈다. 그런 말을 하며 웃기려고 하는 딸의 마음씨가 가루했다.

딸이 자기 방으로 돌아가자 밖에서 기침소리가 났다. 남편이 추위를 털어버리듯 몸을 부르르 떨면서 들어왔다. 그는 말없이 털썩 앉아 호주머니를 뒤져 담배곽부터 찾았다. 몇모금 빨더니 얼마 타지도 않은 담배를 재털이에다 대고 비벼꺼버렸다.

그는 문앞에 와서 모녀간에 하던 얘기를 들었던 것이었다. 딸의 말을 들은 그는 자기가 온 집안을 여성버성하게 만든것 같아서 마음이 좋지 않았다.

유심이는 남편앞에 차물을 따라놓았다.

《이제부터라도 글을 좀 배우시다.》

남편은 차를 후후 불다가 놓았다.

《이 나이에 글을 배워서 뭘하겠소. 글을 몰라도 이날 이때까지 살아왔소. 전장》

남편은 볼멘소리로 폭 내쏘고는 모로 돌아앉았다. 《사람답게 살자는 말이에요.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배우시다요.》

《그러니 아이들이나 잘 키우잔말이요.》

《아이들이 잘먹고 잘입는것만 바라는줄 알아요? 우리보다 생각하는게 앞섰다오. 부모들이 뭇뭇치 못한것을 오히려 안타까와한답니다.》

남편은 아까 들은 딸애의 말이 생각났다. 그의 얼굴에는 노기라고 할지 짜증이라고 할지 그런 빛이 편편 떠올랐다.

《그래 당신에게 무슨 덕될게 있어서 그러오. 고생을 사서 한 필요가 어디있는가말이요. 배우지 않겠다는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까지 들으면서...》

남편은 유심이가 하는 일을 아무런 보람없는 헛고생이라고 치부하는것 같았다.

유심에게는 자기의 일에 대해서 남편이 그정도밖에 리해를 못해주는것이 가슴아웠다.

《전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필 당신이 할 필요가 뭐요?》

남편의 말이 너무나 서운했다. 남편은 성인학교 사업을 시답지 않게 여겼으나 유심이는 오히려 나이도 적지 않은 자기에게 이 일을 맡겨준것을 고맙게 여기고있다.

여직껏 동포들을 위해서 일해본적이 없는 그는 이 사업을 꼭 자기가 해야 할 일로 간주하고있었다. 자기의 이러한 심정은 몰라주는 남편이 안타까왔다.

《누가 하든 이 일은 꼭 해야 할 일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웅골차고 강한것이 스며있었다.

남편은 유심이를 쳐다보았다. 남앞에서 말도 제대로 못하던 안해의 그 어디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가해서였다.

《당신도 제발 좀 배우시다. 배우면 힘이 솟고 눈앞이 확 티어요.》

유심이는 남편을 애원에 찬 눈으로 보면서 간절하게 말하였다.

남편은 담배연기만 풀풀 내뿜을뿐 말이 없었다.

유심이는 일터에서 돌아오는길로 저녁상을 차려놓고 집을 나섰다.

성인학교를 하는 날에는 늘 수강생들의 집을 찾아다니느라고 바쁜 걸음을 하게 된다.

강사일에 숙련이 되면 한시름 놓을줄 알았는데 일은 더 많아졌다.

이 분회에서는 지난 시기 성인학교를 시작했다가 마감까지 해본적이 없었다.

개강식은 버젓하게 하는데 얼마 못가서 흐지부지되고말곤했다.

몇해 그러는동안에 수강생들속에서는 《또 좀하다가 말겠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주로 강사때문이었다.

판데서 데려온 강사다보니 이런 사정 저런 사정으로 갈려가곤했던것이다.

유심이가 강사를 하자 이번에는 끝까지 하자고 하면서 꾸준히 나오는 사람이 많았다. 하지만 일부는 또 그런식으로 되겠거니 하고 나오지 않는것이였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많이 모아야 공부하는 사람들도 흥겹게 배울수 있을것이였다. 쓰지도 읽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야기라도 들려주어서 눈을 띄워주어야 했다.

유심이는 그러한 수강생들을 위해서 영화도 보이고 노래도 가르쳐주며 조국의 소식과 우리 나라력사속에서 흥미를 끝만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유심이는 앞으로는 장구치는법이랑 젊은 아주머니들을 위하여 김치담그는 법이며 조선료리법도 가르쳐주는 등 여러가지 형식으로 더 재미를 붙이게 하자고 마음먹었다.

그의 노력으로 수강생들이 차츰 불어나기는 했으

나 전원이 다 나오는 날은 거의 없었다.

사람이 살아가느라면 무슨 일인들 생기지 않으랴만 만나오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한심하기 짝이 없었다.

그는 성인학교를 뒀던 뒤에 다시 안나온 사람들을 한집한집 찾아가 사연도 알아보고 그날 한 과목을 가르쳐주었다.

그중에는 미안해 하며 진심으로 사과하는 사람도 있었고 별로 하고싶지는 않으나 그가 찾아와주는 것을 미안하게 여겨 체면상 배우는 사람도 있었다.

유심이는 한 집을 나서다가 굳어진듯 서버렸다.

《배우기 싫다는데 두 원. 무슨놈의 성화가 저리도 심한지. 자기 집에는 눈쁜 장님을 신주모시듯하면서...》

들으라는듯이 우정 큰소리로 투덜거리는 것이었다. 금방 만났을 때에는 유심이더러 수고한다고 침이 마르도록 치하를 하던 사람이다. 오늘은 좀 급한 생겨서 나가지 못했지만 이담엔 꼭 나가겠노라고 미소를 띠우며 귀맛 좋게 말하던 사람이었다.

유심이는 가슴이 후두두 떨렸다.

(어찌 그럴수가 있겠는가.)

마치 손바닥을 휘딱 뒤집듯이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돌변하는 태도가 그지없이 섭섭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그의 발걸음은 땅에 닿지 않는 것 같았다.

분한 생각이 들었지만 옳은 말이었다.

마땅히 들어야 할 지적이다. 자기 가정을 해결하지 못한 자책감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의 얼굴에는 고뇌의 그늘이 짙어갔다. 배우지 않으려는 남편에 대한 불만이 울컥울컥 솟구치기도 하였다.

그는 이내 고개를 저었다.

자기가 사업을 잘하지 못한 책임이라고 생각했다.

그럴수록 잠을 덜 자면서라도 공부를 해야 하고 준비를 더 잘하여 남편을 설득시켜야겠다고 속다짐하는 것이었다.

집에 돌아오니 아이들을 다 잠들었는지 조용했다. 남편은 아무것도 덜지 않고 땅바닥에서 그냥 뉘엿뉘엿어있었다.

곤히 잠든 남편을 깨울세라 이불을 조심스럽게 덮어주고 물병도 머리맡에 가져다놓았다.

유심이는 잠든 남편의 얼굴을 근심스레 지켜보았다.

발고랑같은 주름살이 패인 구리빛얼굴은 자면서 도 모진 고통을 겪는 것처럼 찡그러져있었다.

이불밖으로 내뻗친 손은 못투성이고 성한데 없이

혈었으며 꺾쇠같이 퍼일줄 몰랐다.

토목일을 세관게 하는 남편이 요즈음엔 술만 마시면 몰려드는 피곤과 잠을 이겨내지 못했다.

그 나이에 몸을 아끼지 않고 막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남편이 측은하기도 하였다.

일시적이거나 남편을 고깝게 여겼던 자신이 민망스러웠다.

남편을 살뜰히 보살펴주지도 못하고 밤마다 돌아다녀야 하니 죄송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유심이는 추운날 한데서 종일 일을 하고나서 집에 돌아와 따뜻한 방에 들어앉으면 어깨가 나른해지고 온몸이 노그라지는 것 같았다.

팔다리를 놀리기도 귀찮아 그는 우두커니 앉아있었다. 그러다가 조선신보에 눈이 갔다. 신보의 제목 글발이 눈에 띄자 곧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목마른 사람이 샘물을 만난듯이 기사내용을 단숨에 읽어내려갔다. 무겁게 덮이려던 그의 눈까풀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가볍게 자주 깜짝거리지고 눈귀에서부터 입가로 웃음이 떠돌기 시작했다.

조선신보에는 텔레비에도 자주 출연하는 일본에서도 이름이 있는 기자의 수기가 실려있었다.

《조선이 부럽다》란 제목의 글이었다.

《...나는 외국을 많이 다녀본데 의거하여 <자유제도>에 대해서와 <인간자유>에 관한 글을 적지 않게 썼다. 그때마다 일본이 가장 자유스럽고 모든 의미에서 제일 좋은 나라라고 자부했었다. 이것은 예순이 가까이 되는 오늘까지의 나의 생활신조로도 되고있었다.

그러나 조선을 본 오늘에 있어서는 나의 이 신념과 신조는 금이 가기 시작했다.

<인간의 자유>에 대한 문제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하는가.

...인류는 수천년동안 이 문제를 해명하기 위하여 모대졌다.

나도 그렇고 나의 동업자들도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고전철학자들의 글들을 뒤지는데 시간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정확한 대답을 얻지 못하였다.

나는 이 문제의 과학적인 해답을 조선에서 찾았다. 조선이 낳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원수님께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사상을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하시여 사회주의모범의 나라를 건설하시었다.

이 나라에서는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모든 것을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한다. 나라의 모든 정책이 사람을 중심에 놓고 세워진다. 그리하여 인민

들은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진정한 자유를 향유하고있다. 나는 그것을 그들의 희망에 넘친 밝은 표정에서 찾아볼수 있었다.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고 사는 나라 조선,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조선인민이 정말 부럽다...》

유심이는 무엇이랴 형언할수 없는 궁지가 가슴에 그득히 차오면서 온몸에 힘이 뻗치였다.

분회동료들에게 어서 빨리 알려주고싶었다.

그의 눈앞에는 어깨를 으쓱거리며 기뻐할 수강생들의 모습이 보이는것 같았다.

그는 서둘러 치마저고리로 갈아입었다. 유심이는 조선옷을 입을 때마다 조선사람이란 궁지가 솟아나고 나는 조선사람이라는것을 뼈젓이 뽀내고싶었다.

50이 다 된 그의 얼굴에는 주름들이 잡히고 흰머리가 섞였으나 기쁨이 실린 눈만은 젊은이들처럼 빛났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키에 회색치마저고리를 입고 활개치며 걸어가는데 그의 온몸에서는 기운이 넘치는것 같았다.

그는 문득 남편생각이 떠올랐다.

남편이 제눈으로 이런 기사를 척척 읽어내면 얼마나 좋을가. 귀중한 책과 글을 눈앞에 두고도 알지 못하는 남편을 생각하니 유심이는 자기가 큰 잘못을 저지른것 같아서 기술이 옥죄여졌다.

오늘밤에는 이 기사내용도 알려주면서 깨우쳐주리라 마음먹고 단단히 먹었다.

유심이가 성인학교에서 기사를 읽어주자 수강생들은 좋아서 어쩔줄을 몰라했다.

두번세번 듣고도 더 듣고싶어하였다.

신문기자들은 유독 우리 조국에 대해서만은 평가를 린색하게 해왔는데 이번에는 그럴듯하게 썼다고 떠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이 가장 귀중하다는것이야 벌써 배워서 아는데 그 기자는 인제야 알았으니 우리가 선생이 아니냐고 하여 웃기는 사람도 있었다.

행복과 궁지가 섞인 웃음이었다. 그들을 보는 유심이의 마음도 더없이 흐뭇해졌다.

그는 남편도 이 기사내용을 들으면 기뻐하리라 생각했다. 흠족해하는 남편의 모습을 그려보는 그의 얼굴에도 어느덧 미소가 떠올랐다.

집으로 돌아오는 유심의 걸음은 자연히 빨라졌다.

집에 돌아오니 남편은 기분이 몹시 나쁜듯 험상궂은 표정으로 담배만 빨고있었다. 유심이를 보자 남편은 눈을 부릅뜨고 쏘아보다가 껍 소리질렀다.

《그 선생노릇 당장 그만두지 못하겠소!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더니 젠장, 남편 망신을 시키면

서까지 그 노릇을 해야겠소!》

유심이는 눈앞이 아득해졌다. 남편이 그렇게까지 화를 내며 모진 말을 하는것을 처음 보았다. 유심이는 얼떨떨해져서 눈만 크게 뜨고 남편을 쳐다보았다.

남편은 유심이를 노려보면서 무슨 말을 더 하려는데 입을 움찔거리다가 픽 돌아서 문을 활카당 열어제끼고 나가버리었다.

유심이는 너무나 뜻밖의 일에 아연해졌다. 그는 서있을 힘마저 없어져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무엇때문에 남편이 그리도 화를 내는지 도무지 영문을 알수 없었다. 신보기사내용을 알려주어 기쁨을 같이 나눌 생각으로 한껏 부풀어올랐던 가슴은 줄지에 폭 꺼지고 눈굽에 눈물이 펴고이었다.

유심이는 남편이 나간 문을 점도록 바라보았다.

남편은 오늘 낮에 일터에서 망신을 당했었다. 같이 일하는 동포가 설참에 고향에서 온 편지라면서 그에게 읽어달라고 봉투를 내밀었다. 남편은 부끄러웠지만 글을 모르니 열어줄수 없었다. 그러자 그 동포는 못믿겠다는듯 그를 쳐다보며

《아니 성인학교 선생님의 남편이 글을 모르다니요.》 하는것이였다.

남편은 모닥불을 뒤집어쓴듯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까막눈이라는것이 폭로되어 가뜩이나 부끄러운데 그 말을 들으니 더욱 창피해져서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싶은 심정이였다. 생각할수록 낮이 뜨거워 못견딜 지경이였다.

그는 글을 안배운 자신을 탓하기보다 먼저 안해에 대한 노여움이 치밀어올랐다. 안해가 강사노릇을 한다고 부산을 피우며 나돌아가기때문에 당한 망신이라고 생각되어서였다.

그는 한바탕 화풀이를 할 작정을 하고 집에 돌아와 기다리고있었던것이다.

이런 사정을 알리 없는 유심이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야 남편의 그러는 까닭을 짐작조차 할수 없었다.

남편의 고향소리를 듣고 딸애가 장지문을 열고 내려내왔다. 유심이는 얼른 얼굴을 돌려 눈굽을 닦았다.

결에 와 앉은 딸애는

《어머니, 아버지가 왜 그러시나요?》 하고 물었다.

《별일 아니다.》

《아버진 참, 어머니가 애쓰시는것도 모르고, 왜 잘되어가는 성인학교까지 그만두라고 하시는가요? 전 이제 아버지한테 말씀드리겠어요.》

딸애는 더는 못참겠다는듯이 말하였다.

《넌 가만있거라, 아버지도 깨달을 때가 있을게 다.》

유심이는 딸애의 그 심정이 기특하게 여겨졌으나 이렇게 타일렀다.

《안야요. 저도 아버지를 깨우쳐드리는데 도와나 서겠어요. 어머니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고계세요.》

유심이는 딸의 말이 고마왔다. 딸을 자기방으로 돌려보내고난 유심이는 남편이 그런다고 자기가 하는 일에서 물러설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이제 기회를 봐서 남편에게 진심을 다해 깨우쳐주리라 생각하며 성인학교 교수안을 짜기 시작하였다.

밤이 이속해서야 남편은 술에 취하여 돌아왔다. 방안에 들어서자 쓰러지듯 자리에 누워 잠이 들었다.

유심이는 남편 머리맡에 물병을 가져다놓고 하던 일을 계속하였다.

그는 교수안을 다 짜고나서 얻어온 금색종이를 가위로 적당히 잘라 풀로 붙이였다.

동녘이 희부스름해올무렵, 유심은 책상에 기대채 술궂이 잠이 들었다.

남편이 자다가 갈증을 느껴 눈을 떴다. 방안이 환했다. 날이 다 샌줄 알고 벌떡 일어나 미닫이를 열었다.

《아니... 이때까지...》

그는 튀어나가려는 말을 삼키고 책상에 기대여 잠든 유심이를 들여다보았다. 유심이는 눈확이 폭 꺼지고 주름살이 더 는것 같았다. 귀밑으로 희끗희끗 새치가 나타났다. 그런 안해를 보니 아까 화김에 한 말이 뉘우쳐졌다.

사실 안해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것이였다. 글을 배워주려고 아글타글 애를 쓰는 안해의 말을 듣지 않고 배우지 않은 자기가 나빴다고 생각하였다.

자기때문에 가슴 아파했을 안해를 생각하고 후회하였다.

《사람두 원 쫓쫓...》

그는 자기가 덮고 잔 이불을 유심이에게 덮어주었다. 그러고도 그는 한참동안 안해의 얼굴을 살피었다.

유심이는 목직한것이 어깨를 내리누르는바람에 부시시 눈을 떴다. 남편은 무춤하고 저버렸다. 자기를 지켜보는 남편의 눈길과 마주치자 유심이는 얼른 일어났다.

남편은 자기가 조심스럽지 못하여 안해를 깨운것

도 그렇지만 축이 간 그의 얼굴을 보느라니 슬며시 화가 동하였다.

《대관절 당신은 어떻게 하자는거요. 그렇게 한다고 돈이 나오겠소, 밥이 나오겠소.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무엇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가 말이요. 그 몸 되여가는 꼴이 뭐요?》

유심이는 이불을 개던 손을 멈추고 남편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점도록 바라보았다.

《여보, 저도 잠을 자고싶고 쉬고싶어요. 하루일을 하고 돌아오면 막 몸이 노그라지는것 같어요.

낮에만 일하고 저녁에 쉬면 편한줄이야 전들 왜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이 일을 하지 않고는 못견디겠어요. 남에게 잘보이기 위해서도 아니고 더구나 돈을 바라고 하는게 안예요.

저는 이때까지 사람이 산다는게 배불리 먹고 사는것이 단줄 알았어요.

그리고 걱정없이 잘먹고 잘입고 사는게 부러웠어요. 그러나 저는 우리 글을 배우고 내가 조선사람이라는것을 깨닫고 조선사람이라는것을 뼈젓이 자랑하며 살게 되면서 사람이 사는 진짜 맛을 알게 했어요.

생각해보세요. 나라를 잃고 일본땅에 와서 살면서 조선사람으로 태어난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살던 그때를 생각하면 기가 막히지 않아요. 까막눈으로 세상을 모르고 두더지처럼 살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한 유심이는 일본으로 와서 살아온 지난날을 이야기하였다.

일제시기 부모를 따라 일본 도호꾸지방의 굴 공사장 함바에 첫발을 내디딘 순간부터 그들에게는 불행과 고통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락반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그는 철이 들자부터 어머니와 함께 함바의 부엌에서 시달리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의 예린 손은 마를 날이 없이 별경게 붙어있었다.

오직 하나민고 살던 어머니마저 잃은 그는 의지할데 없는 홀홀고아로 되였다. 부모들에게서 받은 이름조차도 쓸줄 몰랐고 태어난 고향도 기억에 회미했다.

흐르는 세월은 속일수 없어 같은 함바에서 일하던 총각과 살림을 꾸렸으나 살길은 갈수록 막막하였다.

공사장에서는 꼬리를 물고 사고가 일어났다. 언제 불상사를 당할지 몰라 그들은 야밤중에 산밭을 타고 사나운 짐승들이 욱실거리는 깊은 산속으로만 자주 들어갔다. 나중이야 알았지만 그곳은 야마가 다에서도 그중 깊고 험한 산골이였다. 그들은 산전

막을 치고 숯구이를 하였다. 그러면서도 언제 놔둘  
한테 덜미를 잡힐지 몰라 마음을 놓지 못하였다.

그들에게는 단 하나의 기쁨이 있었다. 첫아들을  
낳은것이였다. 하나 그 기쁨도 오래가지는 못하였  
다.

아들이 다섯살 나던 해 여름이였다.

부모를 따라 산에 올라갔던 아들은 독사에게 물  
려 생죽음을 했다.

자기 이발로 태줄을 꿸고 고이고이 키우며 고생  
속에서도 오직 하나의 희망으로, 사는 보람으로 삼  
았던 아들이 죽었으니 눈앞이 캄캄해지고 하늘이  
무너지는것 같았다.

하늘이 무심하고 땅을 치며 통곡을 했다. 자기들  
의 기구한 운명을 두고 한탄을 했다.

그곳에 있으려니 죽은 아이 생각이 자꾸 나서 살  
림을 싸짚어지고 산을 내렸다. 알고보니 해방이 된  
지 이래나 지난 뒤였다. 유심이는 그만 까무라치고  
말았다. 진작 해방이 된줄 알았더라면 단 석달이라  
도 일찌기 알았더라면 아이를 죽이지도 않았을것이  
였다.

그들은 애써 잊어버리려고 세차게 일을 해냈다.  
조선사람들의 모임에도 자주 나갔다. 귀동냥으로나  
마 세상물정을 들으니 해방이 됐다는 실감이 들고  
조선사람들끼리 힘을 합치면 어떤 일이든지 큰 일  
을 할수 있을것 같기도 했다.

그럴수록 눈이 어두웠던 지난날이 후회되고 아들  
을 잃은 일이 못건디게 가슴을 허비였다. 자기들이  
무지몽매한 탓으로 아들을 죽인것 같은 생각까지  
들었다. 이 가슴아픈 사연을 잊으려 했다. 그래 그  
들 내외는 약속이나 한듯 그 얘기를 입밖에 내지  
않았었다.

한데 오늘밤, 이렇게 꺼내놓고보니 가슴이 쓰리  
다못해 찢어지는듯하였다.

《그 애긴 뭇때문에 새삼스레 끄집어낸단 말이  
요?》

남편은 별안간 큰 소리를 지르며 유심이를 쏘아  
보았다. 성급히 담배를 꺼내들고 신경질적으로 성  
냥을 그어 붙여물었다.

아마도 비참했던 지난날이 못건디게, 가슴을 저  
리게 회상된 모양이였다.

《우리는 나라의 소중함을 너무나 뼈저리게 체험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당신은 그것을 진정으로 깊  
이 느끼지 못하고있어요. 나는 그것이 가슴아파요.  
당신이 그것을 깨닫도록 못해드리는데 것이 안타까와  
요.》

유심이의 목소리는 축축히 젖어있었다.

한동안 말이 없었다. 돌아앉아서 눈굽을 닦은 손  
수건을 접었다 폈다하던 유심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남편을 쳐다보았다.

남편은 다 타들어가는 담배를 끝냄도 하지 않고  
얼어붙은듯 앉아있다.

유심이는 남편의 손에서 담배를 뽑아내어 불을  
끄고 말을 이었다.

《나라라고 다 한가지가 아니예요, 우리 조국 공  
화국 같은 나라, 온 세상사람들이 부러워 우러러보  
는 그런 나라는 세상에 또 없어요. 그것은 오직  
위대한 수령님께서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이룩해놓  
은 나라, 우리 조국이에요. 그렇기때문에 뼈젓기 가  
슴펴고 조선사람임을 자랑하며 살지 않아요.

나는 우리 말과 글을 배우고 우리 조국이 어떤  
나라인가를 알게 되면서부터 크나큰 민족적공지와  
기쁨을 가지게 되었어요. 나는 이 궁지와 기쁨을 아  
직 깨닫지 못한 우리 동포들을 깨우쳐주지 않고서  
는 못건디겠어요.》

유심이는 차츰 흥분하여 말에 열기가 올랐다. 그  
것을 깨달은 그는 말을 끊고 남편을 보았다.

남편은 여전히 창문만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있었  
다.

《당신도 자신을 조선사람이라고 생각하시지요?  
그러나 아직 진정한 조선사람이라고 말할수 없어요.  
》

유심이의 이 말에 남편은 화뜰 놀라는듯, 아니 향  
의하는듯한 눈길로 안해를 쳐다보았다.

《아마 제말이 납득되지 않으실거예요.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사람으로서 조선말과 글  
을 모르고 조선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진정한 조  
선사람이라고 말할수 없다고 말씀하시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지기 나라 글  
도 모르고 자기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도 잘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조선사람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자기 나라 말과 글을 알고 또 자기 나라 역사를  
알아야만 자기 나라를 사랑하게 되고 자랑을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남편은 유심이의 말이 가슴에 맺혀오는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수그리었다.

《우리는 자기자신을 위해서뿐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도 진정한 조선사람의 녀를 가지고 자랑을  
가지고 살아야 해요. 당신은 늘 우리는 못살았지만  
아이들만은 잘살게 해줘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  
어요. 우리 아이들을 잘살게 한다는것은 배불리 밥  
이나 먹게 해주는건 아니예요. 그 애들이 진정 조국  
을 잘 알고 조선사람의 녀를 가지고 자랑과 기쁨을

가지고 살게 교양하는것이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땀땀이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큰 애는 이제 곧 교양원으로 나가게 되는데 글모르는 아버지가 있다는것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해요.》

유심이는 이야기를 끊고 간절한 심정으로 남편을 쳐다보았다.

남편은 그냥 고개를 숙인채 담배만 피우고있었다.

《오늘 신문에도 우리 조국을 부러워하면서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고 사는 우리 조선인민이 부럽다는 글이 써여있었어요. 수강생들이 그 기사를 읽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당신이 그들속에 없는것이 참으로 섭섭했어요. 당신만 배우자고 나서주면 저는 아무 걱정도 없겠어요.》

유심이는 그냥 애원하듯 남편을 쳐다보았다.

남편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채 그린듯이 앉아있다. 창문이 푸르스름 밝아왔다.

유심이는 조반을 지으러 부엌으로 나갔다.

유심이는 수업을 마감짓기 위해서 맨처음 걸었던 직판판을 다시 칠판에 걸고 돌아서다가 남편이 들어서있는것을 보고 저으기 놀랐다.

그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다. 그러나 기뻐다. 설명을 하다가도 남편과 눈길이 마주치면 저도모르게 얼굴에 생기가 돌고 목소리도 밝아졌다.

《...빼앗겼던 우리 조선말과 글을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짜 해방을 맞이했다고 말할수 없으며 진정한 조선사람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일제가 무엇때문에 조선사람한테서 말과 글을 빼앗으려 했겠습니까.

우리 말에는 조선의 력사가 있고 조선민족의 일이 스며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놈들이 한사코 빼앗으려고 한것이 아니겠습니까...》

남편은 고개를 푹 수그리고 유심이의 설명을 듣고있었다.

《그러면 다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읽겠습니다.》

수강생들은 일제히 고개를 들었다.

《...일본에 있는 조선사람이 우리 나라 말과 글을 모르고 우리 나라의 력사를 모른다면 그런 사람은 조선민족이라고 말할수 없습니다.

조선사람은 어디서 살든지 반드시 조선말과 글을 알아야 하며 조선력사를 알아야 합니다.》

수강생들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였다.

남편은 안해를 정찬눈으로 바라보았다. 교시의 구절구절이 심장속을 푹푹 파고들어와 새겨지는것 같았다.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일본에 사는 우리들을 것처럼 따듯이 보살펴주시다니...)

그는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미여지는것 같았다. 다른 사람들이 보는것도 개의치 않고 유심이를 보고있었다.

(아 높은 뜻을 가르치려고 당신이 그렇게도 애를 쓰고있었구려...)

그제서야 칠판에 걸려있는것이 어제밤에 자기집에서 본 교시판임을 알아보고 얼굴을 확 붉혔다.

그 귀중한 말씀을 알아보지 못했던 자기가 큰 죄를 지은것 같이 생각되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는 입술을 지그시 사려물고 고개를 크게 끄덕이였다...

수강생들은 삼삼오오로 이야기를 나누며 집으로 돌아갔다.

홍겨운듯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있었다.

남편은 그들을 눈으로 바라며 밖에 서서 유심이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맨나중여야 분회장과 유심이가 나왔다.

《허허 오늘은 우리 선생님이 적적하지 않겠는데.》

분회장은 만족한듯이 웃으며 유심이더러 수고했다면서 먼저 돌아갔다.

별이 총총한 밤길을 그들 내외는 천천히 걸었다.

남편은 자전거를 끌고 유심이는 곁에서 걸었다.

동쪽길에 올라서자 걸음을 멈추었다.

강건너에서 명멸하는 등불을 보고 생각에 잠겼다.

그들사이에는 많은 말이 오고갔다.

남편은 하마트면 자기 일생에서 가장 귀중한것을 놓칠뻔했던것을 생각했다.

《고맙소. 그동안 당신을 너무 괴롭혔소. 용서하오.》

그의 말에는 진정이 느껴졌다. 뉘우침과 기쁨이 엉킨 말소리였다.

유심이는 그만 눈곱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뿜돌았다.

《고마와요. 깨달아주시니.》

《할 일이 많은데 몸은 조심하오.》

더없이 부드럽고 애뜻한 정이 흐르는 말이였다.

유심이의 두볼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한사람을 또 깨우쳐주었다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깨우쳐주었다는 기쁨에서였다.

《전 이 기쁨으로 살아가요. 이런 기쁨 없이 무슨 재미로 살겠어요.》

그들을 다시 걷기 시작하였다.

물위에 비낀 가지각색의 불빛들이 가물거리며 따라왔다.

마치 이 가정의 앞길을 축복하듯이...



# 조국땅에 배당은 이른새벽에 외 1 편

김윤호

세찬 파도 출렁이던 동해바다  
그렇듯 망망하고 가없는 바다도  
순간에 달려왔는가  
조국땅에 배당은 이른새벽  
나는 갑판우에 서있다

배길에 앞서 달리는 이 마음  
불안으며 속삭이며 설레이던  
파도소리도 바람소리도  
어느새 멎은 잔잔한 바다  
나는 꿈속에 서있는것인가

아, 조국땅 조국땅  
저 멀리 물안개 헤치며  
달려오는 산봉우리 산봉우리  
진정 내가 조국에 왔구나  
위대한 수령님 계시는 조국땅에 와닿았구나

깜깜한 이역의 하늘아래  
잠결에 깨어서도  
다시 잠못들며 부르고 불러보던  
어머니조국이였어라

눈물로 고향땅 적시며 떠나던  
늙은 부모들의 손길에 매달리며  
사나운 원썬들의 구두발에 짓밟히며  
건느던 현해탄

원한과 설음의 긴긴 세월을  
가슴마다 가져주며  
먼먼 이국땅 하늘높이 휘날려주던  
조국의 기발을 우러르며  
불안으며 불을 비비며  
흘린 그 눈물은 얼마였던가

아, 이역만리에도  
따사로운 그 햇빛 다름없이 비쳐주시는  
위대한 수령님  
사랑의 그 품속에 사는  
한없는 고마움에, 끝없는 행복에

목메이면 목메일수록  
달려가고싶은 마음  
보고싶고 안기고싶던 조국의 품

비그을 지붕밑조차 빌려주지 않는  
이역의 하늘아래  
숨겨가는 벗을 놓고  
찬비내리는 깊은 밤길을 울면서 걸기도 하였더라

수모와 멸시에 우는  
어린이들의 손목을 끌고  
쏟아지는 눈물을 감추며  
때로는 어두운 골목길을 에둘기도 하였고  
때로는 맞서는 원썬과의 싸움속에  
한밤을 지새우며  
솟는 해를 맞이하기도 하였더라  
걸음마다 걷고걸는 그 길이  
언제나 조국으로 가는 길에 잇닿아있기에...

아, 암담한 수난의 날에도  
준엄한 시련의 날에도  
기쁨과 행복으로  
가슴 진정할수 없는 그 어느 순간에도  
언제나 그 이름 부를 때면  
따사로운 손길로 불안아주는 조국이어

하루를 백년삼아 기다렸노라  
이날을, 이 아침을 기다려  
눈물과 설음도 뛰어넘었고  
기쁨과 즐거움도 날아넘어 달려왔노라

위대한 **김일성** 원수님께서 계시는 나라  
사회주의조국이어!  
조국땅에 배당은 이른새벽에  
나는 갑판우에 서있다  
한번만이라도 단 한번만이라도  
달려오고싶은  
천만겨레들의 뜨거운 소원을 안고  
나는 조국의 품속에 안기노라  
이 아침에

# 내 눈에는 눈물이 흐른다

들끓는 명절날의 거리  
방금 흥겨운 춤판에서  
들어선 걸음이건만  
웬일인지, 웬일인지  
내 눈에는 눈물이 흐른다

수령님의 영상을 우러르며  
다가서는 투표함  
얼마나 긴긴 세월  
얼마나 먼먼 길을 걸어  
내 이앞에 다가서는것인가

철없는 어린 나이에 끌려가던 이국만리  
모진 세월을 살아오던  
온갖 설움과 고통이  
일시에 솟구쳐오른다

반백이 다된 오늘까지도  
잊지 못하며 살았노라  
아침이면 고향의 마당가에서 울던  
그 까치의 울음도  
으스름저녁이면  
저 멀리 풀숲에 날던  
애어린 반디불빛도

아, 언제나 그림던 조국산천  
사람마다 삶의 권리를 찾고  
자유와 행복과 영원한 기쁨을 찾은  
그 하늘 그 땅을 생각할 때마다  
크나큰 조국공민의 영예를  
만리해외 이역땅에도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르며  
달려오고 달려가던 마음-

지난날의 목메이던 설움과  
누를길 없던 한없는 기쁨을 가슴에 안고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  
첫 선거표를 투표함에 넣는다

얼마나 긴긴 세월과  
머나먼 싸움의 길을 걸어  
조국은 이 크나큰 영예를  
나에게 안겨주는것인가

나는 불을 적시며  
나의 선거표를 넣는다  
하늘마저 가리운 이국땅 깊은 갭도속에서  
멀시와 수모속에 눈감으며  
부둥켜안고 가슴치던  
그 모든 겨레들의 눈물로 가슴을 적시며

나는 투표함에 넣는다  
지옥같은 남조선하늘아래  
살아 살길 없는 원썬들의 발굽밑에서  
오늘도 갈라진 아들딸을 그리며  
북녘하늘 우러러  
뜨거운 눈시울을 적시고계실  
늙은 부모들의 그 마음을 담아

어지러운 이역의 거리에서  
조선의 푸른 하늘을 그리며  
이 세상 가장 위대한 수령님 모신  
조선의 아들 된 높은 궁지로 가슴설레이며  
그 어느날엔가는 조국으로 달려올  
젊은 세대들의 념원을 담아  
나는 이 충성의 한표를 넣는다

아, 꿈에도 그리던 조국땅  
명절로 들끓는 이 아침  
공민의 가장 큰 권리로  
가슴 높뛰는 이 시각  
와당은 조국땅에서도  
위대한 수령님제시는  
이 수도의 한가운데서  
나는 이 충성의 한표를  
위대한 조국에 바친다

# 조국에 첫 인사 드리며

고찬유

머나먼 이역땅에 태어나  
책속에서만 그림속에서만  
그려보던 조국땅  
노래로만 불러보던 어머니조국이여  
나는 이제야 조국땅에 첫 인사를 드린다

키높이 자란 강가의 버드나무  
설레이는 가지들은  
어머니의 술많은 머리칼인가  
창가에 비쳐드는 맑고 고요한 하늘  
이랑이랑 갈아빈진 부드러운 흙은  
포근한 젖가슴처럼 나를 안아준다

아, 어머니품이여  
이 정답고 아름다운 땅에서 살길없이  
이역만리 하늘아래 떠돌며  
눈물속에 이 아들을 낳아기른  
부모들의 숨막히던 그 원한 어이 잊으랴

숨저도 눈감지 못한채  
조국의 그 하늘을 그리며  
세상을 떠나가던 부모들의 그 눈빛이여

이역살이 사나운 비바람속에서도  
피흘리며 쓰러지는 투쟁속에서도  
목청껏 부르고 부르며  
숫구치는 힘으로 뜨거운 눈물로  
온 가슴을 더웁혀주던 나의 조국

수난의 긴긴 세월과  
간악한 원쑤와의 싸움속에  
력사의 엄혹한 시련이  
수없이 갈마들었건만  
조국이여 그대는 어떻게

그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이토록  
강하고 부유한 나라로  
하늘땅에 높이 솟아 빛나는것인가!

어디 가나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친 내 나라  
길가에 나서면 나를 부르듯 모두가 정다운 목소리  
공장에 가면 온 공장이 기다린듯  
지대마다 불꽃날리며 에워싸고  
농장벌에 서면 끝없는 벌판이  
황금가을을 속삭이며 반겨주는 땅

아, 구름비낀 푸른 산밭도 땅도  
마을과 거리도  
하늘가에 치솟은 저 높은 집들도  
울려퍼지는 저 고동소리도  
모두가 나의것-우리의것인  
사회주의조국이여!

이역에서 태어나 자라  
그대 위하여 벽돌 한장 쌓은 일 없이  
자라온 몸이건만  
이국살이 한많은 설음 씻은듯 가져주며  
그대는 다 주고있구나  
그 모든것 서슴없이, 아낌없이 안겨주며...

두불을 적시며 나는 운다  
그 어디에 태어나 자라서도  
한결같은 아들로 그 품에 안아주는  
어머니조국  
이 조국을 이 땅우에 세워주신  
어버이수령님 한없는 사랑이여  
너무도 크나큰 행복과 영광에  
두불을 적시며 나는 조국땅에 첫 인사를 드린다

# 내 통일의 그날에 상식을 잡겠노라

황격락

하늘도 땅도  
흐르는 물도 날아가는 새들도  
모두다 우리의것인 내 나라  
마을과 거리, 공장과 농장도  
모두다 인민의것인 사회주의 내 조국

람홍색공화국기 하늘높이 휘날리는  
혁명주권을 다지는 이 아침  
한없이 넓고 큰 어머니조국의 가슴에 안기어  
내 오늘 수도 평양의 출판에서  
어린이마냥 기쁨에 겨워  
팽과리를 잡고 춤을 추노라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온 인민이 한사람같이 뭉친  
나의 조국  
어머니조국

내 이역에서 나서자라  
잠결에도 꿈결에도 그리던 일  
제 나라 조국땅에서 맞고싶던 명절  
팽과리를 마음껏 쳐봤으면...

거칠고 험한 남의 땅  
꺾일수 없는 민족의 넋을 가슴에 간직하여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목메이며 치던  
이 팽과리

내 오늘  
어머니 조국땅 한가운데서  
가는곳마다 고향같고  
만나는 사람마다 형제같이 정다운  
흥겨운 이 아침에  
출판에 뛰어들어  
팽과리를 잡았노라

끓어오르는 감격으로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땀을냄도 없이  
내 힘껏 치노라

받아안은 사랑, 지녀주신 기쁨 많고많건만  
그 기쁨에 더하여  
오늘의 이 행복 안겨주신  
수령님의 그 은혜에 목메이며  
내 마음속에  
굳게 다짐하노라

주림에 허덕이는 저 남녘땅  
신음하는 겨레들에게  
우리과 다름없는 이 행복 안겨주시려  
한평생을 인민 위해 바치시는  
아버이수령님의 높은 뜻 받들어  
충성의 노래 투쟁의 노래  
더 높이 부르며  
나아갈것을,

온 강산에 메아리쳐가라  
팽과리소리여  
이역만리에서 오늘의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싶어하는  
모든 겨레들의 심정을 담아  
저 지옥같은 남녘에서  
복讎하늘 우러르며  
수령님의 한품속에 안길 그날을 기다리는  
겨레들의 념원을 담고 치는 팽과리소리여  
하늘땅 끝까지 울려퍼져라

그리운 남녘땅  
내 고향 넓은 들판에서  
아버이수령님 모시고  
눈물로 불을 비비며 춤추는 그날  
내 기어코 상쇠를 잡고  
이 팽과리를 더 높이 치리라

## 따스한 봄날에

장청현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 시절에 겪은 일이 좀처럼 잊혀지지 않는 때가 많다.

나의 경우를 놓고봐도 수십년전의 일들을 더듬어 볼 때 그 기억의 갈피속에는 아득히 흘러간 나날들에 부모형제들이나 담임선생들이 하던 말과 행동들이 생동한 화폭으로 되살아날 때가 종종 있다. 그 화폭이 평범한 나날들에 있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 너무나도 생동한것으로 하여 놀라울 때가 많다.

지난 세월 우리의 부모들은 대체로 어렵게 살아 자녀교양의 뜻을 깊이 깨닫지 못하였고 또 그런 정신적여유도 없었다.

이국땅에서 살아온 나의 부모역시 그 레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험피 하나 변변한것이 없어 자꾸만 처저내리는 바지를 한쪽손으로 추슬러올리며 다른 손으로는 동무들의 못을 따먹겠다고 한참 못치기를 하는 나를 보고

《애야, 넌 공부는 안하고 왜 밤낮 그따위짓만 하고 돌아다니느냐, 거기서 돈이 나오느냐, 밥이 생기느냐?》

하던 어머니의 모습이 30여년이 지난 지금도 눈에 삼삼하다. 그 시절 어머니에겐 돈과 밥이 가장 귀중하였고 공부도 그것을 벌기 위한 수단이었을것이다. 고작해야 나의 부모의 교양방법은 이러하였고 그밑에서 자란 나도 오랜기간 돈이 가장 귀중한것으로 생각되었다.

세월은 흘러 어버이수령님의 따사로운 품에 안긴 나는 나라의 어엿한 주인으로, 학생을 가진 학부형으로 더 없는 행복을 누리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근로자들은 학부형으로서 아들딸들의 학습을 정상적으로 지도방조하며 모든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교육교양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오늘 학생들을 가진 모든 부모들은 자녀교양의 귀중함을 알고 자식들을 대하는 하나의 행동, 한마디의 말에도 무엇인가 교양이 되게 의의있는 뜻을 담으려 한다.

그러나 자식한테서 엉뚱한 질문을 받고 당황한 나머지 그 나이와 지식수준, 성격과 동심세계 등을 고려함이 없이 경솔하게 교양하려 들면 소기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때가 있다.

나는 한 자그마한 《사건》을 목격하게 되었다. 얼마전에 있는 일이었다. 그날은 일요일이었다. 나는 아침부터 책을 보다가 바람을 쐬길 대동강기슭을 따라 산보를 나갔다.

따스한 봄날이여서 그런지 강기슭엔 낚시질을 하는 사람, 홀로 조용히 책을 보는 대학생, 한쪽구석에 앉아 무엇인가 즐겁게 속삭이는 청춘남녀의 모습들이 사방에서 눈에 띄었다.

나는 강물의 흐름에 따라 한참 건다가 너럭바위가 널려있는 구석진곳에 앉으려다 그만 엉거주춤 서버렸다. 바위뒤에 이미 한패가 와있었던것이다. 모두 세명인데 한가족인듯싶었다.

그들 세식구는 솔밭모양으로 둘러앉았는데 늦은 아침인지 이른점심인지 가늠할수 없는 식사를 금방 하려는참이었다.

붉은넥타이를 맨 인민학교 2~3학년쯤 돼보이는 어린 학생과 그 아버지인듯싶은 도수안경을 낀 중년사나이가 마주앉고 녀인은 그들앞에 음식가지를 올려 꺼내놓느라고 한창 분주하였다.

학생은 자기앞에 그 어떤 음식이 놓여지기가 바쁘게 그것을 금시 입에 넣곤하였다. 몹시 시장하였던 모양이다.

한열에 낚시도구가 있고 바위우에 솜의투들이 규모나게 쌓여있는것으로 보아 그들은 가족계획에 의해 이른새벽부터 산보삼아 낚시질하러 나왔고 이제야 아침식사를 한다는것이 쉬이 짐작되었다.

한가정의 단란한 광경을 목격한 나의 마음은 사뭇 즐거웠다. 그리고 한편 부럽기도 하였다. 나는 어쩐지 아쉬운 마음을 금하지 못한채 그 자리를 슬그머니 피했다.

강 아래쪽에 내려가서 책을 펼쳤으나 글은 눈에 잡히지 않고 정신은 자꾸만 그 가족에 대한 생각으로 흐르고있었다.

문득 집에서 안해가 하던 말이 생각났다.

《우리도 아이들을 데리고 대성산쯤 한번 나가보자요.》

그때마다 자신은 어떻게 대답했는지 잘 기억되지 않으나 어쨌든 오늘까지 그 계획이 실현되지 못하고있다. 무엇인가 자녀교양에 대한 열정이 높지 못한데 대해 자신을 뉘우치게 된다.

나는 한창 앉았다가 너럭바위쪽으로 다시 발걸음을 되웁겼다.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있는지 보고싶어서였다. 그러나 아까 그 자리에는 녀인만 홀로앉아 책을 보고있었다. 연보라색 양복치마를 입었는데 어딘지 모르게 고상한 품격을 자아내는 녀성이었다. 교원인지, 의사인지, 아니면 그러루한 직업을 가진 녀성인듯싶었다.

무슨 책을 보는지 직업상 다소 흥미가 동하여 물어보고싶은 마음이 없지 않았으나 녀성의 사색을 깨칠가봐, 또 그 녀성에게서 풍겨오는 함부로 범접

키 어려운 인상을 느껴 그만 강기슭으로 걸음을 옮겼다.

거기서는 도수안경을 낀 그 중년사나이가 방울을 달고 낚시를 즐기고있었다. 무슨 고기가 물리느냐는 나의 물음에 그저 《붕어지요.》 하고 방울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채 통명스레 대답할뿐이었다.

보매 과묵한 성미의 사나인듯싶었다. 그옆에서는 붉은넥타이를 멘 학생이 무슨 나무꼬챙이같은것으로 아버지가 잡은듯싶은 고기꺄미를 뒤집기도 하고 찢어보기도 하며 장난에 빠져있었다.

세식구가 어뜩새벽에 집을 나설 때에는 아이를 중심으로 한 그날 하루일정에 가슴을 설레이며 버르고왔음에 틀림없었겠는데 이 시각에 이르러는 제각기다.

아버지는 방울에서 좀처럼 눈을 땔줄 모르며 어머니는 소설읽기에 여념이 없고 아이는 장난하느라 정신이 없다.

대동강기슭의 봄날은 이렇듯 조용히 흐르는듯싶었다. 그런데 내가 말하려는 자그마한 《사건》은 바로 이때 벌어진것이다.

이제껏 장난에 묻혀있던 아이가 갑자기 다급한 소리로 어머니를 찾으며 고기꺄미를 들고 달려왔다.

《엄마아! 엄마!》

좀처럼 책에서 눈을 땔줄 모르고 그런듯이 앉아있던 어머니는 아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자 흠칫하며 머리를 쳐들었다.

길다란 속눈썹을 치켜든 녀성의 저르기 겁에 질린듯한 눈은 유난히 까맣고 정기가 도는데 어딘가 모르게 다정한 빛을 띠고있었다.

《엄마, 이 고기새끼를 좀 봐요. 내가 나무꼬챙이로 암만 눈을 찢어줘도 이놈은 눈 한번 깜박거리지도 않아요.》

학생은 어머니앞에다 고기꺄미를 놓고 나무꼬챙이로 몇번 실험해보더니 이번에는 그 나무꼬챙이를 자기 눈앞에 갖다대며 계속한다.

《그런데 난 조금이라도 눈앞에 나무꼬챙이를 갖다대기만 하면 자꾸만 눈을 감아버리는데 왜 그러나요? 네?》

학생은 신기한 발견을 하였다. 그리고 어려운 질문을 들이댄것이다.

나는 이 광경을 유심히 바라보며 과연 그 교양이 있어보이는 녀성이 어떻게 나오겠는지 매우 흥미를 가지고 대답을 기다렸다.

녀성은 저르기 당황하여 얼핏 나를 쳐다본 다음 아이를 향해 방긋 웃으며 말하는것이였다.

《강달아, 넌 아직 용감하지 못해서 그런단다. 그 고기를 보지, 그놈은 용감하니까 아무것이 닥쳐와도 눈 한번 끄떡 안하지 않니.》

녀성은 이 어려운 고비를 교양자다운 자각으로 그럴듯하게 넘긴듯싶었다. 그러나 그것은 한순간에 지나지 않았다. 녀성은 심히 오산을 했던것이다.

학생이 그 말을 듣고 잠시 무엇인가 생각하는듯

하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이번에는 그 나무꼬챙이를 자기 어머니의 눈앞에 불쑥 내밀었다.

어머니는 그만 《앗》소리를 지르며 뒤로 벌렁 나자빠졌다.

《보라, 눈 감는걸, 엄마도 용감하지 못해!》

어머니는 배를 그러안고 웃어댔고 아이도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나도 덩달아 웃었다....

이것이 내가 목격한 자그마한 《사건》이다. 그러나 여기에 이것으로 그칠수 없는 문제가 있다.

어머니는 자녀교양에 대해 관심이 어느정도 높았던것만은 사실이다. 어떻게 해서나 자기자식을 교양하려는 주관적욕망이 컸던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어머니는 욕망만 앞세우고 깊은 고려도없이 사리에 닿지 않는 대답을 건성 하는바람에 그만 실패하고말았다.

어머니는 아이 물음에 생물학적원리를 알기 쉽게 풀어주든가 만약 그것을 몰랐다면 적어도 인간에게 있어서 눈을 감는것은 자체보위를 위해 응당 필요한것이라든가 아니면 차라리 모르겠으니 아버지한테 물어보라든가 하는 식으로 솔직하게 대답했어야 할것이였다.

학생은 어머니의 엉터리대답속에서 진리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아 령리하게도 역습을 들이대여 그 허위성을 발가놓았는데 이것은 단순히 볼 문제가 아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아이에게 솔직할것을 요구하였고 사람은 언제나 진실해야 함을 루차 강조하면서 교양해왔을것이다. 그런데 어머니자신 아이앞에 솔직하지 못하였고 진실하지 못하였다.

학생은 평범한 나날에 있는 그 사소한 《사건》을 통하여 부모들이란 교양을 위해서는 허위를 서슴없이 날조할수 있다는 유해로운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선입관이 작용하여 앞으로 부모나 교원들의 교양사업에 대해 의혹을 가지고 대하기도 쉽다.

이렇게 분석해보면 그 자그마한 《사건》이 결코 평범한 나날에 있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심각한 《사건》이 아니였는가 생각된다.

자녀들앞에 건성 던지는 한마디의 말에도 그들의 세계관형성과정에 자못 큰 영향을 준다는것을 우리는 흔히 잊기가 쉽다. 하지만 작은것으로부터 출발하지 않는 큰것이란 있을수 있겠는가.

아버이수령님의 참된 아들딸로 자라나는 우리의 새세대들을 가르치는데서는 부모로서 대수롭지 않게 흘려버릴 작은 일이 있을수 없는것이다. 그 작은 일이 쌓이고쌓이면 자녀교양에서 큰 흠집이 생길것이며 이런 부모들은 학부형의 구실을 잘하지 못했다고 말할수 있을것이다.

학부형의 마음이 된 나는 결코 작다고만 볼수 없는 방금전의 일을 두고 깊이 생각하면서 봄별파스한 대동강변을 걸었다.

# 들에서 만난 사람

최수길

무릇 생활속에는 크지 않은 하나의 평범한 일을 두고 생각을 더듬게 하는 그런 때가 있다.

얼마전 내가 신원벌을 찾았을 때였다.

저녁노을의 마지막빛이 스러져갈무렵이었다. 신원역에서 기차를 내려 가리마처럼 벌한가운대를 곧게 켜고 나간 길을 따라 걷고있었다.

꽃섬을 하던 실바람도 어느새 진해지고 해가 방실거릴 때만 아장거리던 봄도 인젠 완전한 수집음을 떨어버린듯 어스름이 습새여드는 들엔 그대로 푸른 빛이 짙어가고있었다. 도란도란 들리는 개울물소리, 깃을 찾아 버들숲으로 날아드는 새들의 청맑은 지저귀, 프락포르들의 동음...

분주한 하루일이 끝나가는 전야의 숨결이 그대로 느껴졌다.

나는 부푼 가슴을 안고 걸었다. 그런데 얼마후였다. 길옆에 서있는 한대의 프락포르가 나의 걸음을 멈추게 했다.

(혹시 고장이 생겼는가?)

나는 기름걸레를 든 손을 부지런히 움직이고있는 고수머리청년을 보고 말을 걸었다.

《어디 고장이 났는가요?》

곤색작업복을 입은 그 청년이 술진 눈에 웃음을 담고 익살좋은 톤담으로 나의 말을 받는것이였다.

《고장이라니요! 옛날부터 부지깽이도 편다는 농사철에 고장이란 될말입니까.》

《그럼?》

내가 머뭇거리자 젊은 그 동무는 기관실우에 훌쩍 뛰어오르며 제깅에 웃어제끼는것이였다.

《하하하... 뭐랄가요. 이를테면 내 이 <친구> 45호가 숨쉴있는 <의사>를 만나 예방주사를 맞고있는 참이라고 할가요.》

(뭐? 프락포르가 예방주사를 맞다니...)

새롭게 들게 되는 그의 말에 어리둥절해졌다. 익살이 심한 이 청년의 말을 어떻게 들어야 좋을지 망설이는데 뜻밖에 프락포르 배밑에서 내 발을 툭 치는 사람이 있었다.

《여보게 교수? 배낭속에서 새 감속기치차를 꺼내주게.》

그제서야 나는 프락포르밑에서 한사람이 작업중이란걸 알았다.

(아, 이 사람이 이를테면 프락포르의 <의사>란말이군!)

그가 찾는 배낭이 어디 있는가 하여 두리번거리는데 차제밑에서 이런 말이 또 새어나왔다.

《여보게 친구! 이 45호를 더 사랑해야겠어, 이를테면 임자가 처녀를 사랑하는것만 못지않게 말이네, 알겠나? 결코 못지않게 말이야...》

(처녀를 사랑하는것 못지않게...)

그러는데 어느사이에 기관실에서 뛰어내렸는지 고수머리청년이 대답하는것이였다.

《알겠어요. 내가 그만 전번 기술정비때 설친것 같아요...》

무슨 까닭인지 청년의 말속에는 익살기가 없었고 <의사>의 명철한 진단에 고개가 숙여진 <환자>의 진정어린 마음이 확연히 느껴지는것이였다.

청년이 기름걸레를 비비틀며 웃음을 거둔 술진 눈을 습벅이는데 나사를 조이는 차제밑의 사람이 말을 계속했다.

《우린 귀가 밝아야 하거든, 그래야 언제나 이것의 <건강>상태를 가늠할수 있구, 또 그래야 이 <응석받이>가 사시절 무탈해서 일을 잘할수 있거든, 안그런가?》

프락포르를 <응석둥이>로 아는 사람, 그 말속에는 프락포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한다는것을 일깨워주는 뜻이 담겨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프락포르운전수들은 프락포르를 제때에 정비하고 수리하며 관리를 잘하여 그 리용률을 최대한으로 높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고보면 이 사람들이야말로 농민들의 힘은 일을 덜어주시고 이 땅에 기계농사의 새 시대를 안아오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높으신 뜻을 심장으로 느끼고있는 참다운 기계화초병이 아닌가.

나는 청년과 함께 담배를 붙여물었다. 바쁜 길이였으나 웬일인지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잠시후였다. 차밑에서 기름에 절은 밤색모자가 붙끈 솟아올랐다.

마흔서넋이나 되었을가... 빛날은 남색작업복을 걸친 실박한 어깨, 어글어글한 눈이 습벅이는 너무

죽한 얼굴...

땀이 번들거리는 이마를 팔소매로 땀 훔친 그 사람은 이어 프락포르에 오르며 말하였다.

《새 이바퀴를 바꿨으니 맥을 불검 저 앞포전을 내가 제끼지, 그러니 성팔동문 이 배낭을 가지고 저 수리차가 있는 느리나무쪽에 가있으라구, 의견없겠지?》

벌쐼 웃어보인 그 사람은 발동을 걸기가 바쁘게 기세 좋게 달려가는 것이었다. 나는 젊은 운전수를 돌아보았다.

《책임운전수인가요?》

《아닙니다.》

《그럼?!》

《저 사람은 군농기계작업소 수리공입니다.》

《?!...》

영문을 몰라하자 청년은 간단히 사연을 말하는 것이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군농기계작업소 수리공은 해마다 이렇게 봄갈이때면 신원벌을 찾아오군한다고 한다. 그는 이동수리차를 몰고다니며 한대의 프락포르라도 고장이 날세라 따라다니면서 직심스럽게 돌봐준다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하루일을 끝내고도 또 이렇게 부속이 든 배낭을 메고다니며 밤낮을 가림없이 예방치료를 하는 <의사>가 되어주군 한다는 것이다.

청년은 배낭을 걸머지고 걸으면서 말을 계속했다.

《올해에도 눈석이가 시작되자부터 찾아왔습니다. 저런 사람을 두고 뭐라고 했으면 좋을까요? 한마디로 기름과 흙을 두손에 묻히고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요!》

배낭을 멘 청년은 느리나무쪽으로 갔다. 나는 그를 이윽도록 바라보았다.

(기름과 흙을 두손에 묻히고사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었구나!)

견잡을수 없이 가슴이 달아올랐다.

저런 충성의 마음들과 성실한 걸음들에 떠받들리는 우리의 농촌은 정말 얼마나 좋은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농촌체제의 찬란한 빛발아래 어제날 이지러진 호미자루를 잡던 손에 오늘은 기름을 묻히고 해마다 풍년나락을 가꿔가는 축복받은 이 땅의 주인들!

나에게는 연한 한줄기의 연기를 남긴채 멀어져가는 프락포르가 수십수백대로 보였다.

소중한 그 무엇을 받아안은듯 나의 가슴은 부풀어올랐다. 그러나 어쩐지 아쉬운 생각이 자꾸만 갈마들었다.

(그런 사람과 한마디 인사말도 없이, 이름도 묻지 못한채 헤어졌다니...)

그런데 프락포르의 이미 하나의 점으로 사라졌고 배낭을 진 청년도 퍼그나 멀어진 것이다.

한참만에야 나는 자리를 떴다.

설사 이름을 모른들 어떠랴, 약동하는 대지의 벅찬 숨결을 온몸으로 느끼며 마음속으로 꿰뚫었다.

온 들판에 가득찬 저 기계군단의 우렁찬 동음속에 이해에도 이 땅우에선 한랭전선이 거만한 고개를 숙이고야말리라!

이해에도 온 세상의 열렬한 축복속에 만풍년의 황금노적가리가 창공높이 솟아오르리라!